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월 2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08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문중의 파벌조장

석지관, 석성우, 석자명, 석법장 …

불교에 갓 입문한 사람들은 스님들 성에 '석(釋)'씨가 유난히 많은 것을 보고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왜 석씨네 사람들은 그렇게 출가를 많이 했을까 하면서. 그러나 그 '석'씨가 본성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석(釋)'씨인 것을 알게되면 '아하' 하며, 가장 근원적인 성씨는 물론 부모형제를 비롯 모든 인연을 끊고 오로지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출가한 사람들이 스님들임을 실감한다.

이렇게 성까지도 버린 스님들 사이에서 최근 세속의 문중관념보다도 더 드센 문중파벌이 벌어져 불교계의 고질병폐중 하나로 비판받고 있다.

내 문중 네 문중을 따지고 문중에 얽혀 모든 일을 처리하며 선거 등 종단행정에 영향력까지 행사한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보다 문중의 지시면 무조건 따르고 또 그 일이 정법에 그르침이 없는 가를 살피기보다 문중에 얽매여 일을 벌인다. 문중의 힘을 늘이려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어떤 스님이 종단의 소임을 맡았을 때 그 스님이 안거를 얼마나 했고 어떻게 공부했는 가를 따지기 보다 어디 문중인가, 누가 은사인가, 문중이 고루 안배가 됐는가를 따지기 바쁘다. 큰 절에 서조차 방장이나 주지를 뽑을 때 ○○암 파, ○○암 파 등의 각축전이 벌어져 어디가 승리했다는 소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들린다. 마치 조선시대 붕당이나 세속의 정치판을 보는 것같다.

"속성도 버렸으니 모두가 일불제자"

조계종 새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고산스님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계종의 문중 파벌을 걱정했다. "조계종은 문중파벌이 세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좀더 높이 올라가 모두가 일불제자(一佛弟子)라 생각하면 문중파벌이라는 개념은 이미 없어집니다."

수행자는 원래 홀로 서야 한다. 힘세고 영향력 있는 문중에 속한다고 구도(求道)가 잘되는가. '부소의 물처럼 혼자서' 갈 뿐이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가산硏, '가산불교대사림' ㄱ항목 1·2권 출간

세계 불교술어 결집 '대불사'

매년 2~3권씩 15권 완간…세계최대 불교사전
원전 1천종 참고 15만 항목 정리-해설

29일 출판기념회

국내·외 15만여 항목의 불교술어를 결집한 세계 최대 '불교종합 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伽山佛敎大辭林)〉이 출간됐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이 출간한 〈가산불교대사림〉은 한국불교 관련 항목의 발굴과 인도불교에서 유럽불교학에 이르기까지 불교술어를 서술한 것으로 'ㄱ'항목 제1·2권(1만6천여 항목)이 먼저 나왔다. '일반불교 및 한국불교술어의 최초 결집'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산불교대사림〉은 기존의 불교사전보다 한국불교 항목 30%를 새롭게 추출한 대규모 사전(전 15권)이다.

〈가산불교대사림〉은 한글 현대문으로 서술하면서도 한자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어 등 불교 원어를 병기함으로써 韓漢·韓梵·韓巴 등 다용도 복합어휘 전문사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 〈고려대장경〉 〈한국불교전서〉 〈신수대장경〉 등 각종 대장경류 및 원전류 1천여종을 전거(典據)로 하여 내용을 기술하면서 항목에 대해 용례와 참고문헌을 다양하게 밝힘으로써 독자에게 해석공간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현재 불교학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 불교종합 〈나카무라(中村)불교어대사전〉('74·일본), 〈망월(望月)불교대사전〉('36·일본), 〈Encyclopadia of buddhism〉('61·스리랑카), 〈불광대사전〉('88·대만)과 주제별 불교사전 〈법화(梵和)대사전〉('86·일본) 등을 모두 대조, 종합 반영해 이들보다 월등 자세하고 풍부하게 불교술어를 서술해 놓았다. 종교, 역사, 철학, 문헌학 등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의 필독서가 되도록 전 항목에 걸쳐 다각적 시점을 최대한 확보, 전문성을 살렸다.

제1·2권이 출간되기까지 집필 인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약 40억원이 소요됐다. 〈가산불교대사림〉은 앞으로 매년 2~3권씩 연차적으로 간행되며 올 연말 제3권 'ㄴ·ㄷ'항이 발간될 예정이다. 제1·2권 출판기념회는 29일 오후 6시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지관스님 인터뷰 3면〉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 15만여 불교 술어를 집대성하는 '가산불교대사림'은 전 15권으로 완간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가운데)과 종회의장 법등스님이 21일 김대중 대통령을 방문 환담했다.

김대통령 "종교편향 예방위해 최선"
고산스님 "'제2건국 운동' 적극동참"
고산-법등스님 21일 청와대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은 21일 오후3시 청와대로 김대중 대통령을 방문, 종단 현안등에 대해 환담했다.

청와대 본관에서 두 스님을 접견한 김대통령은 "고산스님께서 취임하셔서 종단수습이 잘 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고산스님은 "종단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종단이 정상궤도에 올랐고 수행본연의 자세를 찾았다"며 "제2건국 운동이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불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어떠한 종교에 대해 차별도 하지 않으며 똑같이 존중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종교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난 극복과 불교계의 개혁 등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진행된 이날 환담에서 고산스님과 법등스님은 국민정신문화 고양을 위한 정신문화개발 교육을 제의했다. 또 대불교계 공약사항들에 대한 실행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연태 기자

국내·외 참회문 발표키로

조계종 138회 종회

교육원장-일면스님
호계원장-월서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21일 제138회 임시종회를 열고 종단사태와 관련 세계인을 향한 참회문을 채택했다. 또 공석중인 교육원장과 호계원장도 선출했다.

△참회문 발표 63명이 참석한 21일 종회에서는 종단사태와 관련, 국내불자와 세계 인류를 향한 참회문 채택이 첫 안건으로 다뤄졌다.

△증정비대위 해체 종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종단사태 당시의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해체됐다.

△영축총림방장추대 취소 종회는 21일 세번째 안건에 상정된 '영축총림 방장 추대 취소 및 영축총림 해제 결의의 건'과 관련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였다. 격론을 벌인 종회는 총림해제는 유보하고 방장추대 취소에 대한 의사만 표결에 붙였다. 63명이 찬반 투표를 해 찬성 45표, 반대 13표, 무효5표가 나와 영축총림 방장 추대를 취소했다.

△정화회의 관련 의원에 사퇴촉구 종회는 정화개혁회의에 가담했던 7명의 중앙종회의원에 대해 차기종회(3월예정) 이전에 사퇴할 것을 촉구키로 결의하고 사퇴하지 않을시 징계를 결의하기로 했다.

△정화회의측 법적대응 사무처에 일임 정화개혁회의가 종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자격상실 확인 소송등을 낸 것과 관련 종회는 종회사무처가 변호사 선임을 비롯 일체의 법률적 대응을 일임해 처리키로 했다.

△교육원장 등 선출 22일 오전 일정이 유회된 가운데 오후 2시 60명의 참가로 속개한 종회는 교육원장에 일면스님을 표결로 임명동의(찬성39, 반대20, 무효1)했다. 표교원장에 추천된 도형스님의 임명동의는 부결(찬성16, 반대40, 무효2)됐다. 월서스님(종회의원)과 정무스님(영월암주지)이 경선을 벌인 호계원장 표결에서는 월서스님이 36표를 얻어 선출됐다. 또 총무원장 호법부 종고스님에 대한 임명동의도 찬성 45표로 가결됐다. 〈일면·월서스님 프로필 4면〉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일면스님



◇월서스님

알림

TV 인터넷 불교정보사업 시작합니다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 '컴맹'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같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보는 TV에 인터넷TV 수신기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에서 PC통신 전자우편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인터넷 안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불교정보화에 앞장서온 본사는 홈TV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TV'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 TV를 통해 종단 종무행정 네트워크와 포교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개시합니다. 인터넷 TV에 가입하시면, 종단이나 사찰의 각종 공문, 법문자료 등을 인터넷TV로 송·수신할 수있으며 불교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종단과 사찰, 불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가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략정보실
(02)732-1520 ·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伽山智冠 編著 伽山佛敎大辭林 출간을 축하합니다

스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사상 및 문화 전반에 걸쳐 우리 민족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민족사 중흥의 중요한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사를 주도해 온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불교술어를 결집'하는 불교대사전 편찬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라고 여기신 지관스님(본 법인 설립자 겸 원장)께서는 1982년 5월 3선에 당선 후 이 발대하고도 어려운 편찬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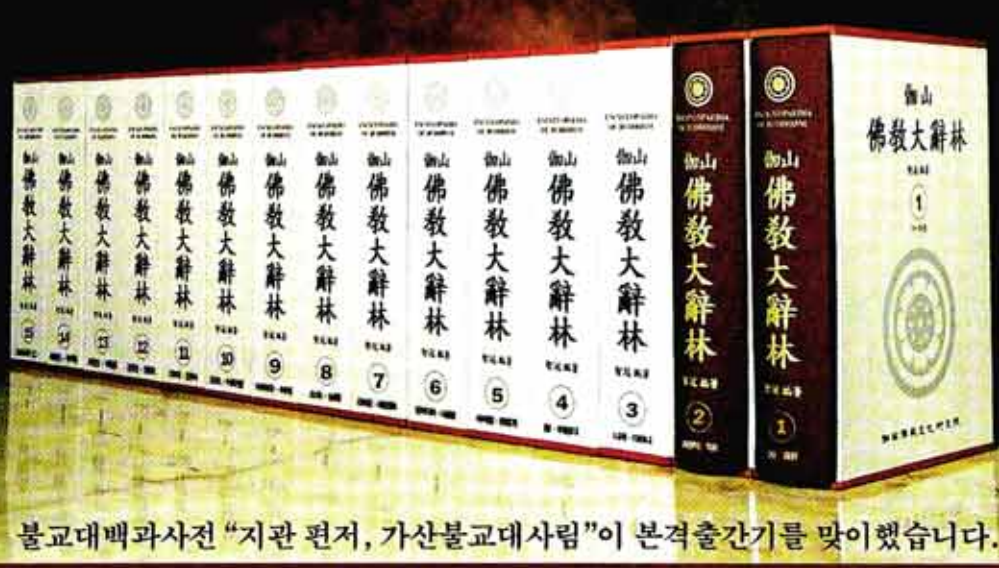
평생 후학양성과 내외전 연구에 남다른 여정을 걸어오시고 동국대 총장을 역임하시는 등 교육불사에 처음이 없는 분들이 15만여 표제어 추출 및 기초자료를 정리하셨고, 1991년 6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는 본격적인 편찬작업에 임한 결과, 금번 드디어 1·2권을 출간하시게 되었습니다.

스님 함으로 어려움 대작불사를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스님 모시고 정진하고 있는 가산가족에게는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회 사부 대중에게도 오랜만에 뜻깊은 선물입니다. 속히 완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지회 대중들도 후원과 동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후원회 · 출간준비위원회 올림

"2500년 불교사에 있어서 세계 최다 표제어를 수록한 불교대백과사전"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일반불교술어 및 한국불교술어의 정치한 1차결집"
"세계불교학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한국불교학 및 인문학 연구전통의 새로운 지평"



불교대백과사전 "지관 편저, 가산불교대사림"이 본격출간기를 맞이했습니다.

□ 규모
전체 종합목수 15만여 항목(표제어)으로 현재 간행된 국내외 사전 등 최다항목 계재
권수 4×6배판 전 15권
출간 : 권1 ㄱ항(가~과원) 항목수 : 8234
권2 ㄱ항(과원덕~낙토) 항목수 : 7697

□ 작업기간
1차 / 기초작업기간(1차 표제어 발굴 및 정리)1982년~1991년
2차 / 편수 재작업 추가 항목 발굴 조정 · 기초원고작업 기간 1991년~ 1993년
3차 / 본격 집필 및 출간기간 1994년~현재

□ 참여인원
총괄집필 가산 지관스님을 보좌하여 원내외 30여명 작업 (연 인원 30×365)

□ 편수특징
· 1700여 년인의 한국 불교 술어의 최초결집
· 명이한 한글 현대문으로 서술하되 원문을 반드시 병기하여 대중화와 전문화의 요구를 아울러 충족하였음
· 불교 원어를 본격 병기(한자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함으로써 韓漢 · 韓梵 · 韓巴 · 韓藏 등 다용도 복합어휘 내지는 전문사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임
· 같은 불교 술어일지라도 최대한 한국불교 찬술 문헌에서 그 용례를 설정하였음
· 시대순(초기불교 ~ 근본불교 ~ 부파불교 ~ 대승불교 ~ 밀교 ~ 선불교에 이르는 사상사적 변천과 지역순(인도불교 ~ 남방불교 ~ 티베트 ~ 동북아(중국 · 일본 · 한국) 등 전지역에 이르는) 지역적 변화에 따른 종합서술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백과사전적 전문적 이해를 도모함.
· 대장경류 및 기간된 원전류 1,000여종(高麗大藏經, 韓國佛敎全書, 新修大藏經, 禪苑 등)을 집중 분석하여 용례화하였으며, 상세한 표기와 정확한 문헌표기로 술어이해를 위한 연구성과를 최대한 밝힘
· 권련항목과 공항목을 통하여 관련 술어를 체계적으로 연결 · 이해하도록 하여 불교술어의 연쇄적 관심을 통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였음.
· 특히 한 항목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서술하기보다 용례와 참고문헌을 다양하게 밝힘으로써, 현시점에서 보는 세계적인 사전 편수 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확보했음. 즉 독자에게 해석 공간 및 지평을 최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실어주는 것을 편수특징으로 삼았음.
· 기존에 출간된 모든 불교 사전(일본, 스리랑카, 독일, 영국 등 전지역의 사전)을 비평적으로 참고하되, 기존의 연구성과를 교정 추가 반영하였음
· 종교 · 역사 철학 문헌학 문학 의학 등 한국학 및 관련 연구자들의 필독서가 되도록 전 항목에 걸쳐 종합적이고도 다각적 시점을 최대한 확보 서술하였음

□ 예산
1982년~현재 40억원 소요

□ 양우 편찬 및 간행계약
연차로 간행하되 현재 연간 2~3권 간행 예정(예정 여건에 따라 완급이 조정됨)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승동 192-10
우당기념관 2층
T. (02) 765-9602~3 F. (02) 765-5673

사 설

봉원사 훼손 안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긍정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지역이기주적 발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를 했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지자체는 소아적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든가 상수원을 오손하는 사업을 추진해 말썽을 일으켰던 일이 적지 않았다. 경우는 다르지만 최근 서대문구청이 서울의 대표적 전통사찰인 신촌 봉원사 경내지를 관통하는 순환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서대문구가 추진중인 독립공원 성역화사업과 연계한 안산순환도로 건설은 봉원사경내지 7필지를 강제수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서대문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찰측과 변변한 상의 한번없이 계획을 수립한 뒤 봉원사측에 사찰토지의 강제수용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서대문구의 일방적 토지수용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다. 우선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 전통사찰의 토지를 수용하려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계장관은 이를 해당종단과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만약 이곳에 순환도로가 건설될 경우 자동차 소음 공해가 생겨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이 파괴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서대문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경내지를 강제수용할 경우 삼보정재의 유실과 사찰환경의 파괴로 인해 불교의 종교활동은 심대하게 악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봉원사측이 이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불교계가 이번 사건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자체 등이 공공목적이라는 미명아래 사찰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사례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다. 그동안 불교계는 이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자체가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사찰경내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사례가 속출하자 불교계는 국회와 관계기관에 청원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실로 97년 가을,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서대문구의 경우에서 보듯이 법조항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데도 사찰측과 상의없이 토지수용을 강행하려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아직도 초법적 행정만능주의가 활개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사찰의 수행환경과 문화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결과적으로 사찰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절들이 환경파괴로 훼손돼간 뼈저린 경험을 기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어떤 경우라도 초법적인 토지수용은 있을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한 전통사찰의 존엄과 수행환경의 파괴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봉원사는 전통사찰 중에서도 무형문화재 제48호인 단청과 제50호인 영산재를 보존 전수하는 사찰이다. 이곳에는 매년 수많은 불자들과 외국인들이 단청과 영산재를 보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이런 사찰은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수행환경을 보존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오히려 훼손에 앞장서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 서대문구가 조금이라도 상식을 존중하는 자치단체라면 하루속히 사찰경내지를 관통하는 순환도로 건설계획을 전면 수정 또는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봉원사 경내 '도로통과' 물의

서대문구청 허가절차 무시 추진
"수행환경 훼손-정재망실 등 우려"

서대문구청(구청장 이정규)이 안산(봉원사 뒷산)을 중심으로 전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분류해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신촌 봉원사 경내지를 관통하는 순환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서대문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안산 순환도로는 구청을 출발해 한성과학고-금화시민아파트-북아현동-금화터널 상단-봉원사, 다시 구청으로 이어지는 총 7km의 왕복 2차선 도로.

봉원사 구간은 대웅전에서 불과 3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태고프라자 주차장을 관통하고 있으며 경내지 1141평 430m도 수용된다. 이와관련 서대문구청은 지난허 12월 8일 1차적으로 402평 120m 구간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 통보를 봉원사에 보내 온 상태이다.

전통사찰 봉원사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많은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은 경내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찰측과 충분한 사전 논의는 물론 사찰측의 이의신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로건설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봉원사 관할 관청이면서도 봉원사가 전통사찰보존법의 보호와 적용을 받는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 또 봉원사가 선암사, 향림사, 백련사와 더불어 문화관광부 특별지정 관리사찰인 점을 숙지하지 못하고 도로 건설계획 추진에 앞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전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봉원사 주지 인공스님은 "서대문구청이 수행도량에 대한 불교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목적과 개발이익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종단과 협의해 범불교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원사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조계종은 20일 총무원 사회부 산하 사찰환경보존위원회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정화회의 월하종정 재추대

정화개혁회의는 19일 구룡사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월하스님의 종정 재추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새 원로의원에 도원, 도성, 도봉, 지원스님을 선출했다. 정화회의는 의장에 도성스님(부산 태종사 조실, 전 대흥사 주지)을 선출했다.

정화회의 의원 111명중 68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종정 추대 및 원로의원 선출에 앞서 종헌을 개정해 '종정은 정화회의에서 추대한다' '원로의원은 정화회의에서 선출한다'고 했다.

정화회의 총무원장 정영스님은 이날 회의에서 부원장과 부장 인사를 발표했다. △부원장 상덕(안양 용화사 주지) △총무부장 대우(전 선운사 주지) △재무부장 명도각(중흥사 주지) △사회부장 법철 △문화부장 현대 △호법부장 덕륜스님. 포교원장 지원, 교육원장 혜인스님은 유임됐다.

한편 정화회의 부의장 현수스님은 20일 "62년부터 98년 10월 사이에 징계받았으나 승려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자 화장찬성률 타종교인보다 적다

서울시 500명대상 설문

화장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진 불교 신자들의 화장찬성률(60.2%)이 천주교(81.4%), 개신교(66.9%)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18일 발표한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20세 이상 서울시민 500명 가운데 불교 신자들이 화장문화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이 개신교 33.8%인 반면 불교는 69%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여성에 비해 남성이, 20대 계층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장자의 경우 화장에 대한 거부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화장에 대해서는 66.8%가 찬성하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30.4%만이 찬성한다고 밝혀 실질적으로는 화장을 선호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예의 때문에 화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화장을 하는 경우 유골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산이나 강에 뿌리겠다는 의견(34.8%)과 납골당 안치 희망(33.9%), 그리고 납골묘 안치 희망(31.9%)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94년 산골희망자(59.9%), 납골장 안치 희망(11.1%)의 조사 결과에 비해 점차적으로 산골 희망자보다 납골당이나 납골묘 이용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필선 기자

포교사고시 응시자격 확대

조계종 '포교사제도 개선안'

전문기관장에 추천권 부여 교양대 안나와도 응시 가능 품수전 수습제 도입키로

불교대학 수료생으로 제한된 포교사고시 응시 자격이 확대되고 자격품수 전 수습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포교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21일 '포교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2월초 열리는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와 포교원의 심의, 포교법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시자격 확대이 확대된다. 조계종복지재단 등 포교원이 인정하는 각급 전문기관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자격 품수 전에 소정의 수습기간을 도입한다. 이에따라 불교교양대학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포교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년 2회 강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포교사 연수도 크게 바뀐다. 사찰에서 3~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수행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포교사팀에 참가하지 않거나 의무 수련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갱신 기간은 현행 3년을 유지한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종회발전 재가봉사단' 생긴다

3월초 발대…종회의원 활동분석등 전개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연대가 재가불자들의 적극적인 종단참여를 위한 '종회발전 재가봉사단 발족' 준비활동에 착수했다.

재가연대는 2월 중순까지 종회발전 재가봉사단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종회발전 재가봉사단을 모집해 3월 초 정식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재가연대는 3월 결산종회에서부터 종회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분석 평가, 법안심사, 중앙종무기관 감사, 예결산심사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가연대 소속 정웅정씨 등 5명은 21일~26일 열린 제138회 중앙종회를 참관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조계종 종헌종법특위

소위원회 구성

조계종 종헌종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휴)는 20일 오전 제2차 회의를 갖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에는 중원(관음사주지) 진허(마곡사주지) 보선(대둔사주지)스님과 종회의원 종하, 정휴, 학담, 현응, 법안, 운달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만성스님이 선임됐다. 특위는 활동시한을 올 6월말까지로 정했다.

임연태 기자

'재가보살포살본' 발행

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

재가불자 대상의 포살법회 차제(순서)와 진행 방법을 규정한 '재가보살포살본'이 발행됐다.

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은 25일 '재가보살포살본' 3천부를 발행해 '법회와 설법' 구독자를 비롯해 일선 사찰에 배포키로 했다. 재가불자들을 위한 포살본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법성스님은 "그동안 재가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식 위주의 교리강습이었다"며 "성찰적 참회수행법을 통해 재가불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신의 신행을 검증하게끔 하는 데 발행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불교입문' '불교교리'로 교육받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재가포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포교원의 신도교육 체계화 구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 책의 발간으로 재가불자 포살법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철저한 진상규명을

199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東邦佛教大學

(우 136-022)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전화: (02)763-0229, 763-8536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1. 모집 과정 및 학과
가. 대학과정 (2년제)
1)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OO명(편입생 약간명)
2) 범 패 과 : OO명
3) 불교미술과 : OO명
나. 교양과정(1년제) : OO명

2. 응시자격(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대학과정
1) 신입생
가)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나)강원 사교과 이상의 수료자
다)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2) 2학년 편입생
가)정규대학 졸업자 나)불교교양대학 졸업자
나. 교양 과정
1) 교임 및 사찰 관리인, 승려 권속 및 신도회 간부
2)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타 자격이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가. 대학과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나. 교양과정 : 서류심사 및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1월 18일(月) ~ 2월 20일(土)
(평일은 10:00~17:00, 토·일요일은 15:00까지, 공휴일 휴업함)

5. 전형일자 : 1999년 2월 21일(日) 10:00 ~ 17:00

6. 전형장소: 본 대학 강의실 및 실기실

7.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8. 제출서류
가. 대학과정 :
1)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4)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5)주민등록등본 1부 6)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7)반명함판 사진 6매
나. 교양과정
1)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이력서(반명함판 사진 6매 포함) 1부
3)주민등록등본 1부 4)재직증명서 1부

9. 전형료 : ₩30,000(불교미술과 ₩40,000)

10. 참고사항
가.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대학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겐 법계(대선)를 품수케 함.
나. 교양과정은 매주 2~3일 사이에 5강좌 강의함.
다. 기숙사 운영(지방학생 문의 바람)

11.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제출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해도 됨.
다.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라.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1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763-0229, 8536)
나. 태고종 서울종무처(☎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종무원
라. 경서원(☎733-3345~6)



◇15일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왼쪽)을 예방해 환담하는 고산스님. 16일 통도사 방문에서는 방장 월하스님이 출타해 만나지 못했다.

■고산총무원장, 방장-원로스님 차례로 예방

"종단화합 · 교육개혁 등 조언 수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15일부터 20일까지 5대총림 방장스님들과 원로스님들을 차례로 예방하며 승가화합과 종단안정을 위한 조언을 수렴했다. 이번 방문에서 고산스님은 행자교육기간의 연장과 전통 승가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의지를 중점적으로 밝혔다. 방장과 원로스님들은 고산스님에게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한결같이 당부했다.

▲15일 오전 해인사에 도착, 방장 법전스님과 원로의장 혜암스님을 차례로 예방한 고산스님은 "행자 교육기간을 늘리고 승가의 전통 교육체계를 개편해 교육 개혁의 틀을 다지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전스님과 혜암스님은 "고산스님이 총무원장이 된 이상 종단은 빈틈없이 발전의 기로를 갈 것을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오후 김천 직지사를 방문한 고산스님은 명예원로의원 관응스님을 예방했다.

▲16일 오전 통도사에 도착한 고산스님은 방장 월하스님이 출타한 가운데 부방장 청하스님과 주지 월파스님을 예방해 환담했다. 고산스님은 "통도사행에 주변의 반대도 많았다"고 말했다. 부방장 청하스님은 "경율론에 밝은 고산스님이 종단의 일을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송광사에 도착한 고산스님을 삼일암에서 접견한 방장 보성스님은 "먼 길을 다니시며 종단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으며 고산스님은 승가교육 체계의 개혁의지를 밝혔다.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을 방문해 백양사로 동행한 고산스님은 방장 서옹스님에게도 교육개혁의 의지를 비쳤다.

▲20일 오전 수덕사에 도착해 방장 원담스님에게 "종단을 잘 이끌어 가 달라"는 당부를 받고 원로의원 응담스님을 예방했다. 응담스님도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목어

가족

가족의 관계를 생각케하는 사건이 연일 일어났다.

수연(18)양은 후진해오는 냉동트럭에 몸던져 동생을 구하고 숨졌다.

자모씨는 술해 취해 새벽2시에 들어온 딸(여고생)의 뺨을 때렸다. 딸은 아버지를 112에 신고했다.

아버지와 누나등 일가족 6명이 공모해 씨받이로 낳아 입적시킨 아들(초등학생)을 목졸라 죽여 암매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정스님은 어느 여성지 1월호에서 이런말을 했다.

"누군가를 보살펴야 해요. 또 무엇인가를 보살펴야 합니다. 사람이란 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수한 관계속에 산다고요. 누군가를 보살피면 가슴이 따뜻해 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게 될거예요. 그 대상을 먼데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집안에서 친구사이에서 이웃에서 찾아 보십시오.

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몇생을 쌓은 인연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기분이나 정서적인 문제로 마음을 닫고 산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야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매일 한집에서 자고 먹고 생활하는 가족은 관계의 기본단위다.

가족끼리의 관계확대가 직장이고 사회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 따뜻함이 감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사물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면 사람의 둘레에 어떤 온기가 생깁니다. 오늘을 사는데는 정신적 · 육체적 사랑도 아닌 그저 지켜봐 주고 보살피는 일, 따뜻한 가슴을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연양의 동생사랑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나 보다.

"한자 한자 전항목 감수했어요"

인터뷰 '가산불교대사림' 펴내는 지관스님



· 1932년 경북 영일 生
·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57년 해인사 대교과 졸업
· 1968년 동국학원 이사
· 1976년 동국대 철학박사
· 1986년 동국대 제11대 총장역임
· 現 동국대 선학과 교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 저서 〈능엄경약해〉〈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신라 · 고려 · 조선편 외 다수

삼장전승 · 불교중흥 불사…자동차 · 휴가 반납

항목별 유기적 연결… '해석적 관점' 용어풀이

"불교대사전의 편찬이 불교연구와 그 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가는 불교중흥의 근간이라는 생각으로 미력하나마 부처님 말씀을 최대한 결집했습니다."

1982년 음력 5월, 삼각산 경국사 극락보전에서 삼천배 기도와 함께 불교대사전 편찬을 발원한지 18년. 발원의 성과물인 〈가산불교대사림(伽山佛敎大辭林)〉 첫 권을 받아든 지관스님(68 ·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일 뿐"이라는 말로 감회를 대신했다.

다양한 술어를 최대한 포함시킨다는 것을 발간 원칙으로 삼아 'ㄱ' 항목 1 · 2권이 나오기까지 18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만큼 '완벽'을 지향한 끈기 때문일까. 〈가산불교대사림〉은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 일반불교 및 한국불교 술어의 최초 결집'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관스님은 명칭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辭典)'의 개념을 넘어 '사림(辭林)'으로 새롭게 칭한 이유를 "불교술어를 최대한 다양하게 수록, 백과사전 처럼 '어휘의 숲'을 이뤘다는 의미"라고 밝힌다.

"불교문화, 사상 전반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원칙을 두었습니다. 민족 주체성을 자각하면서도 세계를 향한 보편적 시각을 갖고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지요. 같은 불교 술어일지라도 최대한 한국불교 찬술 문헌에서 그 용례를 찾아 병기하고, 근본불교 술어는 물론 불교권 국가에서 특별하게 변형되어 토착화되거나 창출된 술어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자료도 놓치지 않았으며, 마감 교정에 들어간 중에라도 해외에서 새로운 사전이 나왔다는 연락이 오면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입수, 새 항목 추가하기를 3~4회. 국내 · 외에서 발간된 최신 자료는 모두 입수하여 보완했다. "각 항목에 대한 전거를 밝히면서 관련 용례를 제시하다 보니 50회나 관련 내용을 찾아가도록 된 항목도 있더군요. 한 항목에 대한 한 가지 정의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와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항목을 유기적으로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편수지침은 불교뿐만 아니라 인문학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을 개척한 것.

지관스님은 해인사 강주와 동국대 교수, 총장 등을 역임하며 30여년간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강의를 병행해 온 만큼 불교종합사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불교의 중흥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계 · 율 · 론 '삼장'을 바르게 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장을 제대로 전승하기 위해서는 그 술어 하나하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하지요. 승가의 후학들에게는 물론, 점점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불교 연구자들에게 불교술어를 정리하는 일은 더없이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70년 중반쯤 해인사 강주로 있으면서 일본의 〈망월불교대사전〉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불교연구의 근간이 될만한 불교종합사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혔지요.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운허(耘虛)스님께서 일본 불교사전을 번역하고 한국불교의 중요술어를 추가하여 1961년 〈불교사전〉 1권을 발행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기초자료 조사기간이었던 10년을 제외하면 〈가산불교대사림〉은 자료입력에서 편집, 교정까지 외부의 도움을 받지않고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모두 이뤄냈다. 지관스님과 사전편수실 기획실장 현원스님을 주축으로 편찬실 책임연구원 김영욱 박사, 각 분과 연구원 20여명이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사전편찬'을 화두(話頭)로 여름휴가까지 반납하며 어느 선방 수좌 못지않게 용맹정진을 한 것.

현원스님은 "지관스님은 누구보다 먼저 가산불교문화원에 출근하여 새벽 2~3시까지 연구에 몰두하시곤 합니다. 최종 원고를 지관스님께 가져다 드리면 그걸 한장도 빠트리지 않고 새벽까지 3~4번씩 읽고 또 읽으며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십니다. 전항목 60%에 가까운 한문 윤독을 직접 맡아 하면서 또 사전 원고 전체를 몇번씩 감수하느라 시력도 많이 나빠지셨다"고 전한다.

기초자료조사를 마치고 91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개원과 함께 본격적 편수작업이 시작된 후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 마련. 빠른 시일안에 투자(?)의 성과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 지속적인 지원을 이곳저곳에 요구하기도 어려웠다. 자료수집과 연구에 관한한 '무한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지관스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찾은 방법은 바로 '절약'. 동국대 재직당시 받는 월급 등 모든 수입을 사전편수실 통장에 자동이체시켰다. 승용차를 처분하고 어디를 갈 적이면 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다. 여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 98년 봄, 서울 강남의 한 사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려고 하자 당시 스님이 거처하고 있던 경국사에서 차를 내줬다. 그 중형차를 타고 가 주차장에 하차하자 대형차들을 타고 온 후배 스님들이 얼굴을 붉히며 서로 차를 빼느라 난리였다는 것.

"재정 때문에 난관에 부딪칠 때가 몇번 있었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인지 그때마다 도움을 준 후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산불교대사림〉은 그 분들의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성된 것이지요."

스님은 이 사전을 기초로 공부하여 삼장을 터득하고 삼학에 정통한 후학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

"'망월' 사전이나 '나카무라' 사전도 완간까지 10년 이상씩 걸렸지요. 후학들이 사명감을 갖고 대를 이어 완간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산불교대사림〉도 완간까지 제가 회향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큰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가산불교대사림〉이 완간될 수 있도록 종단을 비롯 한국불교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불교대사림편찬발원문

일심으로 청정법신 비로자나와
무상심심 미묘하온 팔만법장과
전법하는 스님들게 원하옵나니
가호하사 제소원을 살펴주소서
구법위해 진송제양 당대를비롯
신라백제 고구려의 스님들이여!
죽음조차 무릅쓰고 고국을 떠나
국민위한 그마음은 비할데없네!
백명중에 돌아온이 열명안되니
후인들이 전인난을 어찌알리요!
일념으로 천축향해 가는길에는
황사비가 가득하여 눈을못뜨다!
가는길엔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험한곳엔 밧줄잡고 건너갔으니
후인들은 이런고난 아는이없어
개중에는 용이하게 경을대하네!
범한어가 합친어휘 알기어려워
학인들은 이부분에 골치를 앓다
제가이점 해결코자 생각했으나
이런저런 잡된일로 얽매였다가!
임술년에 이르러서 비로소집필
한국불교 대사전을 편찬하노니
천용팔부 호법신장 옹호하옵고
시방삼세 부처님은 증명하소서
시작부터 마침까지 장애가없고
문수보살 대지혜의 가피를입어
어휘마다 부처님의 본의에부합
하루속히 완간하여 고불하리다
이사전을 편찬하온 공덕으로써
한국불교 선양함에 도움이되고
감로수를 마신이는 모두가이익
일체중생 빠짐없이 해탈하소서
저자신이 임종할때 병고가없고
떠날때를 미리알아 앞이밝으며
이몸으로 항사세계 두루하여서
미진겁이 지나도록 도생하리다
나의이름 듣는이는 발심을하고
저의모양 보는자는 낙을얻으며
한중생도 남아있어 성불못하면
영원토록 정각도를 취치않으리!
사전불사 뜻을모아 동참한자중
집필자나 후원자나 염려한사람
모두함께 열반상에 높이앉아서
중생위해 열반가를 제창하리다

불기 2525(1982) 임술 5월 11일
삼각산 경국사에서
비구 석지관 삼천배

800 중앙승가대 동문 스님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 대화합의 장을 이루겠습니다.

저희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에서는 회장 효종스님의 사의표명으로 본 회칙 13조 1항에 의거 총동문회 운영위원 41명중 32명의 참석하에 만장일치 추대로 **원종스님** (본교 5회졸업 / 강화 보문사 주지)을 불기 2543년 1월 14일 새 동문회장으로 추대 결의하였음을 제방의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께 고하는 바입니다.

사회와 종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안으로 화합과 정진의 새장을 열어나갈 것을 부처님전에 서원을 세웁니다.

신임 회장단 및 임원 구성

· 회 장 : 원 종 (5회 졸업)
· 수석부회장 : 진 욱 (6회 졸업) 외 4명
· 사 무 처 장 : 선 법 (9회 졸업)
· 기 획 실 장 : 정 인 (8회 졸업)
· 출 판 국 장 : 정 산 (9회 졸업)
· 재 정 국 장 : 종 식 (9회 졸업)
· 홍 보 국 장 : 도 관 (10회 졸업)
· 기 획 국 장 : 종 호 (13회 졸업)
· 홍 보 차 장 : 동 출 (13회 졸업)
· 서 기 : 태 능 (15회 졸업)
· 기 획 차 장 : 종 석 (16회 졸업)
각 기수 회장 부회장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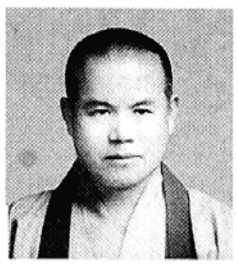
※본교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불기 2543년 1월 21일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임원 일동

"사옥이전…독립채산제 유보"

청주BBS 새 사장 도공스님



"1백80만 충북지역 불자들이 부처님 정법을 이해하고, 올바른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향기로운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3대 청주불교방송 사장에 선임된 도공스님(청원 현암사주지)의 다짐이다.

97년 개국 당시부터 방송위원으로 활동해 온 스님은 "방송국이 세들어 있는 건물 모기업의 부도로 사옥이전이 가장 시급하다"며 "지역 교계인사들과 힘을 합쳐 4월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올해 안으로 실시될 예정인 지방국 독립채산제에 대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주불교방송만은 3~4년간 독립채산제를 유보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73년 법주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80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80년~83년까지 법주사 교무국장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어린이 법회 활성화 최선"

어린이지도자련 새 회장 덕진스님



"어려운 여건속에서 위축돼가는 어린이법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지도자들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21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새 회장에 추대된 덕진스님(울산 정토사 주지)의 소감이다.

스님은 82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의 전신인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활동을 시작으로 어린이 포교에 투신해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회장, 감사 등을 역임하며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 왔다.

스님은 "그동안 쌓아온 성과물을 바탕으로 새 시대에 부응하는 지도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년 2회 진행되는 지도자연수교육을 보다 현실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연꽃〉지의 내용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한국불교선학연구원 개원법회

한국불교선학연구원(원장 이은윤) 개원법회가 수덕사 방장 원담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동국대 송석구총장, 한나라당불자회 함종한회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후2시 논현동 무불선원에서 열렸다. 이날법회에서 선학연구원 이사장 법장스님은 "경허 만공선사의 가풍을 선양하여 이 땅에 선풍을 진작하고 한국불교의 법맥을 정립하자"고 말했다.



고산스님 조계사 초하루 법회 법문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음력 12월 초하루인 18일 조계사 법회에서 설법했다. 이날 법회에는 4백여명의 조계사 신도들이 동참했다. 고산스님은 법어에서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며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굳건한 신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면 모든 가정이 화목해지고 국가도 건강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월대조사 탄신 88주년 법요식

천태종(원장 운덕)은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의 탄신봉축 법요식을 15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도용 종정, 운덕 총무원장을 비롯해 종단 간부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스님, 불교방송 성낙승 사장, 이원종 충북지사, 이길융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등 사부대중 2만5천여명이 참석했다.



포항불교여성회 창립 15돌 총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경북지부 포항불교여성회(회장 김경희)가 13일 오전 11시 포항 오션파크호텔에서 창립 15주년 총회를 열고, 포항지역 여성불자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이날 총회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 정장식 포항시장, 장성호 경북도의회 의장,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회 김묘주 회장 등을 비롯 3백여명의 여성불자들이 참석했다.

교차로

실직자 가정에 쌀 전달



석담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공동대표 는 '저소득 실직자 가정의 겨울나기를 위한 쌀 보내기 운동' 차원에서 21일 강북구 25가구와 도봉구 25가구에 쌀 40kg 1가마씩을 전달했다.

불교문화원 협시보살 점안



성관 수원포교당주지는 20일 오전 10시 불교문화원 법당 삼존불협시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삼화불교대 제8회 졸업식



혜인 삼화불교대학 학장은 2월 6일 오전 11시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제8회 졸업식을 거행한다.

허균·허난설헌 문학상 수상



원철 천안 한암사 주지는 '허균·허난설헌 문학상' 시 부문 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자서전 '위하여…' 출판회



용태영 변호사는 31일 낮 1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고희기념 자서전 제3부 〈爲하여 살았나니〉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신흥사서 동계수련대회



목정배 대한불교법사회장(동국대 교수)은 22일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수련원에서 동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제3회 명원 차문화상 시상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장(사진 위)과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2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3회 명원차문화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학술부문에 김명배 한국차학회 명예회장, 교육부분에 신설학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 공로부문에 정승연 다례원장 등이 수상했다.

美 메릴랜드 교환교수에



양형진 고려대 교수(물리학과)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 교환 교수로 1년간 재직하기 위해 22일 출국했다.

日서 제조물 실태 조사

연기영 동국대 법과대학장(제조물책임법제정 입법실무위원장)은 일본 제조물책임 제도조사단장을 맡아 17일~24일 일본을 방문, 관련실태조사와 자료를 수집했다.

반야심경 강좌 열어

한동대 부산구도회 회장은 정형조 박사 초청, 〈반야심경〉 대강좌를 28~31일 오후 7시 구도회 법당에서 실시한다. (051)462-5062

조계종 신임 교육·호계 원장 프로필

교육원장 일면스님

47년 9월 25일 경북 경주에서 출생했다. 59년 해인사에서 명허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67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68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79년 동국대 불교대학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80년 해인사 교무국장, 81년 조계사 재무국장, 82년 봉선사 교무국장, 83년 흥국사 주지, 85년 광동학원 감사 등을 지냈다. 86년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87년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조계종 제9, 10, 11, 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불암사 주지이자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이다.

호계원장 월서스님

36년 4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51년 부산 범어사에서 하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60년 법주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72년에는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68년~71년 법주사 재무국장, 71년 불국사 재무국장, 71년 경주 분황사 주지, 75년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75년 조계사 주지, 77년~78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81년 불국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제4, 5, 6, 8, 10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95년 조계종 호계원 초심호계원장직을 수행했다.

김지견박사 日 문화연구센터 객원교수에



김지견 한국정신문화원 교수는 2월 1일 일본 경도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의 객원교수로 부임한다. 김박사는 이곳에서 1년간 일본의 불교를 연구하고, 각종 특강과 연구도 병행하게 된다.

또 일본 류코구(龍谷)대등에도 출강, 화엄학을 강의할 예정이다.

"거사불교 활성화에 힘쓸래요"

포교사고시 수석 서정탁씨



"도반의 권유로 포교사고시에 응시했는데, 수석합격이라니 기쁩니다. 더욱 정진하라는 경책으로 삼겠습니다." 조계종포교원이 실시한 제3회 포교사고시에서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은 서정탁불자(경기불교대학 졸업).

수원포교당 거사회 부회장과 신도회 총무 소임을 맡고 있는 서씨는 "거사불교 활성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포교사들이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종단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손목인 유작 부른

대주스님



"삭막한 마음자리 되찾아 주고싶어"

"경제 한파로 삭막해진 중생들의 마음자리를 대중가요로 되 찾아주고 싶습니다"

지난 9일 작고한 작곡가 손목인씨의 미발표 유작을 취입해 가수로 데뷔하는 대주스님(청량리 백선사 주지). 스님은 손씨로부터 96년에 곡을 받아 자신이 작사한 트로트곡 '그리운 을숙도' '염불하는 노승'을 4월 손씨 추모무대를 열어 발표할 계획이다.

손씨와의 인연은 신자들의 권유로 가요계 입문을 위해 스님이 96년 손씨를 찾아 간 것이 계기였다. 불자였던 손씨는 스님의 노래 실력을 테스트 한 뒤 바로 한국연예인협회 가수분과위원회 회원으로 추천했으며 6개월간 노래 지도를 했다.

평소 '염불은 가장 멋진 음악'이란 지론을 펴온 스님은 "흘러간 노래는 중생들의 지친 일상속에서 많은 위안이 된다"며 "가수 데뷔를 계기로 음성 포교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동광당 명진 대화상 100재 봉행안내

지난 98년 11월 1일 열반에 드신 제12교구 본사 혜인총림 해인사 전 주지이신
동광당 명진 대화상의 100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문중 문도 스님들과
사부대중께서는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동광당 명진 대화상의 49재는 종단의 원로 대덕스님들과 각계 인사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사 대웅전에서 엄숙히 봉행되었습니다.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 거듭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0재 안내

- 일시 : 불기 2543년(1999년) 2월 8일(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해인사 길상암
- 문의 : 길상암 (0599-932-7268)

※ 이날 참석하시는 모든 신도님들께
동광당 명진대화상께서 생전 염불하신 육성테잎을 보시합니다.

문중대표 : 천운 법인
은법상좌 : 덕운 보타 법륜 무학 일륜 길상 선해 석우 견불 혜원 혜관 길남 해일 덕해 해종 일라 선일 광해 석철 성묵 보운 덕진 석전 대일 원일 현지 해광 보일 지선 지밀 보문 지정 지광 해웅 양지 정진 동운 길장 법장 진우 상현
손 상 좌 : 선각 선지 선관 기철 지운
재가제자 : 혜인 보해 해진 길조

중앙승가대학교 '99학년도 신(편)입생 추가모집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 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 신입생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	학 과	주야구분	모집인원	비 고
인문	불 교 학 과	주 간	10	
	역 경 학 과	주 간	26	
사회	포교사회학과	주 간	26	
	사회복지학과	주 간	7	
합 계			69	

※특차모집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99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종단의 승려

◇전형방법

고교내신성적	필기(교리)고사	면접(인성)고사	합 계
40%(400점)	40%(400점)	20%(200점)	100%(1,000점)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 99. 1.25(월) ~ 99. 2.10(수)
◇ 접수기간 : 99. 2. 8(월) ~ 99. 2.10(수)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고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3)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99년 졸업예정자는 제외
4) 승적증명서 1부 : (타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5) 주민등록 등본 1부
6) 칼라사진(오조가사 수한 반명함판 3×4Cm) 5매 제출 (3매 원서부착 2매 별도)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2) 전 형 료 : 60,000원

■전형일정

'99.2.11(목) 09:00 ~ 17:00
(예비소집, 필기고사, 면접(인성)고사등을 하루에 실시)

◆ 편입생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구분	학 과	모집인원
2학년	불교학과,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32
3학년	불교학과, 포교사회학과	00명

- 조계종 승려로서 2학년은 승납 2년이상, 3학년의 경우 승납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전형방법은 전적대학성적 40%, 교리40%, 면접 및 인성 20%로 선발함
- 전형일정은 신입생 일정과 같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
☎ (02)925-5507 (교 202~5)

'차 한잔' 보시로 군장병 위로

연천 '향지모임' 군법당 지원…차·향·초 수집

'군부대에 차 향 초를 보냅시다.'

연천 향지모임(회장 양춘연)은 군부대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차한잔나누기' 캠페인과 군법당 지원운동을 1년동안 펼친다.

경기도지역 군부대 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온 향지모임은 20일 회의를 갖고 '차한잔나누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빵제조기까지 갖춰 조직과 재력으로 군부대를 전도하고 있는 기독교에 비해 교계의 포교현실은 초보적이라고 판단, 이런상황을 극복하기위한 조치라고 한 참석자는 밝혔다.

이와함께 일반사찰에서 쓰고 남은 향 초를 군법당에 보내고 일반신행단체에서 쌀 떡등 위문물품을 보시토록하는 군법당 지원운동도 전개키로 했다.

향지모임 총무 박미영보살은 "빵 한조각을 먹기위해 어배당으로 향하는 사병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따뜻한 차한잔의 보시로 군장병들에게 불연의 씨가 싹틀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부대에 보내온 차는 늦은밤 근무장병들에게 나눠주고 향 초는 군법당에 쓰인다.

군불교포교를 위한 '차한잔나누기'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사찰이나 불자는 연천 향지모임(0335-832-0719, 832-26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향지모임은 경기도 최북단 연천지역에 거주하는 40여명 불자들의 모임으로 회비전액과 수산물판매, 일일찻집 등으로 모은 기금을 군법당에 지원하고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매주 1회 1개 사단법당을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과 위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보성스님 부산교사불자회서 법문

부산교사불자회(회장 양원식)는 19일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1백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보성스님(송광사 방장) 제1회 큰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보성스님은 법어에서 "한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고사는 자신이 바로서도록 해야 한다"며 마음수행을 통한 정진을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부산 · 경주 운불

호출택시 운행

운전불자회 호출택시제도가 연이어 시행되고 있다.

부산불교운전기사회가 2월 1일부터 공식개통하고, 경주운전자불자회는 새해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는 17일 부산 혜원정사에서 4백여명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법회를 갖고 호출택시인 자비콜(051-622-8282)을 2월1일부터 공식 운영키로 하고 시험가동 중 이다.

이날법회에서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회봉사와 불교포교에 이바지하는 운전불자회가 돼달라"며 "정법을 따르는 불자들은 가정의 화목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경주불교운전기사회(회장 안종대)도 1일부터 호출택시(0561-741-8282)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시비 금기이나 그칠새 없으니…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④



그림 · 이준석

젊은 스님들 개울 얼음 깨고 세탁·목욕
病氣있고 구변좋은 구참이 뒷방 조실

■10월30일 삭발 · 세탁

그믐이다. 삭발하고 목욕하고 세탁하는 날이다. 보름과 그믐에는 불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세탁을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내복을 입어야 하고 내복에는 이 따위가 있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살생을 하는 결과가 된다.

날카롭게 번쩍이는 삭도가 두개골을 종횡으로 누비는 것을 바라볼 때는 섬뜩하기도 하지만 내 머리카락이 쓱쓱 밀려내릴 때는 시원하고 상쾌하다. 바라보는 것과 느끼는 것의 차이 때문이다.

겨울철 목욕탕과 세탁장 시설이 협소하니 노스님들에게 양보하고 젊은 스님들은 개울로 나가 얼음을 깨고 세탁을 하고 목욕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손질하는 것으로 끝낸다. 오후에는 유나(維那)스님의 포살이 행해진다.

삼장(경 율 론)중에서 율장을 다룬다. 〈사분율의〉에 의해 사미 10계, 비구 250계가 나열되고 설명된다.

선은 원칙적으로 교외별전(敎外別傳; 교설밖에 따로 전함),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 곧바로 자신의 마음을 통해 자기의 본성을 보아 깨달음), 혹은 불립문자 견성성불(不立文字 見性成佛; 문자를 세우지 않고 자기의 본성을 보아 깨달음)을 외치면서 자성의 오득(悟得)을 주장한다. 인위적인 일체의 잡다한 형식을 무시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심지어는 불경까지를 외면한 채 오직 화두에 의한 선리참구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선객은 괴팍하게 보이고 비정하게 느껴진다. 그런 선객들에게 계율을 말하고 보살행을 설파함은 도로(徒勞)일 뿐이라는 걸 유나스님은 잘 알면서도 노파심 때문에 행하고 있고 또 대중들은 듣고 있다. 중생의 모순성 때문인지 모순의 이율성(二律性) 때문인지.

몇몇 스님들은 포살에 참석하기는 하나 유나스님의 개구성(開口聲)을 마이동풍격으로 처리하면서 자신의 화두에 정진하는가 하면 몇몇 스님들은 아예 밖으로 나가 보행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포살을 폐지하자는 혁신론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은 필연성과 당위성 그리고 우연성까지 곁들인 역사성임에 틀림없으니 내가 견성하지 못하는 한 진부(眞否)나 가부가(可否可)를 판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고 보자는 극히 보수적이면서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다.

불교의 제법종본래(諸法從本來) 때문일까. 실존철학의 존재는 존재를 존재시키기 위한 존재라는 것 때문일까.

중생세계에서 보면 필요성을 주장하면 이유가 되고 타당성을 주장하면 독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방관자가 된 채 그대로 보고 느끼면서 오직 견성에 매달려 중생계를 탈피하려 한다. 자신이 중생에 머물러 있는 한 모든 판단의 척도가 중생심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불가에서는 시비는 터부로 여기지만 그러나 시비가 그칠 때가 없으니 역시 중생인지라 어쩔 수 없을 뿐이다.

■11월3일 지대방 생리

선방의 역사는 뒷방에서 이루어진다. 뒷방의 생리를 살펴보자. 큰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다랗게 놓인 방이 뒷방(혹은 지대방)이다. 일종의 휴게실이다. 개인 장구가 들어 있는 바랑이 선반 위에 줄줄이 담을 쌓고 있어서 누구나가 드나든다. 휴게시간이면 끼리끼리 모여앉아 법담을 주고 받기도 하고 잡담도 한다. 길게 드러누워 결가부좌에서 오는 하체의 피로를 풀기도 하고 요가도 한다. 간병실과 겸하고 있어 병기가 있으면 치료도 한다. 옷을 꿰매는가 하면 불서를 보기도 한다.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일기도 쓴다.

어느 선방이거나 큰방 조실이 있음과 동시에 뒷방 조실이 있다. 큰방 조실은 법력으로 결정되지만 뒷방 조실은 병기(病氣)와 구변(口辯)이 결정짓는다. 큰방에서 선방의 정사가 이루어진다면 뒷방에서는 야사가 이루어진다.

선방에서는 뒷방을 차지하는 시간에 의해 우세가 결정되기도 한다. 뒷방을 차지하는 시간이 많은 스님은 큰방을 차지하는 시간이 적고 큰방을 차지하는 시간이 적은 스님은 점차로 선객의 옷이 벗겨지게 마련이다.

상원사의 뒷방 조실은 화대(火臺)스님이 당당히 차지했다. 위궤양과 10년을 벗하고 해인사와 범어사에서도 뒷방 조실을 차지했다는 경력의 소유자이고 보니 만장일치의 추대다.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불가에서는 사교까지 이수했고 절밥도 십년을 넘게 먹었고, 남북의 대소 선방을 두루 편력했으니 뒷방조실로서의 구비요건은 충분하다. 금상첨화격으로 달변에다 다혈질에다 쇼맨십까지 훌륭하다. 경상도 출신 이어서 그 독특한 방언이 구수하다. 낙동강 물이 마르면 말랐지 이 뒷방 조실스님의 화제가 고갈되지는 않았다. 때로는 과라독스하고 때로는 페이소스하다. 때로는 도인의 경계에서 노는 것 같고 때로는 마구니의 경계에서 노는 것 같다. 제불조사가 그의 입에서 사활을 거듭하는가 하면 현재 큰 스님이라고 추앙되는 대덕스님들의 서열을 뒤바꾸다가 때로는 캄캄한 밤중이나 먹통으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무불통지요 무소부지인체 하면서 거들먹거리지만 그의 천성이 선량하고 희극적인 얼굴모습과 배우적인 소질때문에 대중들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지만 추앙받지도 못했다. 천부적인 뒷방 조실감이라는 명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이 뒷방 조실이 가끔 치명적으로 자존심에 난도질을 당하고 뒷방 조실의 지위를 위협당하는 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원주스님 때문이다. 선방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원주스님은 대중들의 생필품 구입때문에 강릉 출입이 잦았다. 강릉에 가면 주거가 포교당인데 포교당은 각처의 여러 스님들이 들렀다가 가는 곳이어서 전국 사찰과 스님들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더구나 요즈음처럼 교통이 발달되고 보면 신문보다도 훨씬 빨리 그리고 자세히 알 수 있다.

원주스님도 꽤 달변이어서 며칠동안 들어모은 뉴스를 갖고 돌아오면 뒷방은 뒷방 조실을 외면하고 원주스님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그때 뒷방의 모든 헤게모니를 빼앗기고 같이 경청하고 있는 뒷방 조실의 표정은 우거지상이어서 초라하다 못해 처량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뉴스가 한토막씩 끝날 때는 막간을 재빨리 이용하여 뉴스에 대한 촌평을, 코믹한 사족을 붙이거나 독설을 질타하는 것으로 체면유지를 하다가 원주스님의 뉴스원이 고갈되자 마자 맹호출림의 기상으로 좌중을 석권하기 위해 독특한 제스쳐로 해묵은 뉴스들을 끄집어 내어 재평가를 하면서 일보통(뉴스통)의 권위자임을 재인식시키기에 급급하다. 면역이 된 대중 스님들은 맞장구를 치지도 않지만 피에로의 후신인 양 지껄여댄다.

불교언론인회 사업심의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는 2월 11일 오후 6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99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한다.

이날 운영위원회의는 △98년 주요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결산 △99년 예산과 주요추진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제주교불회 사업확대

제주교원불자회(회장 김광조)는 13일 임시총회를 갖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원까지 포괄하는 조직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청소년, 청년 포교에 전념키로 했다.

이날 제주교원불자회는 99년 사업계획으로 정기법회 개최, 불자교사연수회, 불교학생회임원연수 및 우리문화 자강운동 실시, 하계청소년 캠프, 방학시 교사교양대학 개설, 연2회 불교강좌 및 회지발간, 청소년 유해감시단 개설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석불문화硏 사랑방모임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2월 10일 오후6시 삼청동 가족아카데미아에서 2월 사랑방모임을 갖는다.

이번 사랑방모임에는 배연파회원이 '전각의 불상배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02)760-5138

제주 운불회장 임기현씨

제주운전기사불자회는 6일 제주시 홍법정사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임기현(49세)씨를 선출했다.

임기현회장은 "하루찻집운영과 벚꽃잔치 참여등 수익사업을 통해 회원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하고 "6월경 전국운불대회를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임원에는 부회장 조주훈, 감사 이춘선, 기획실장 박대운, 총무부장 이성종, 동원부장 곽평제, 홍보부장 김수호, 의전부장 원동림씨가 선임됐다.

보현가족 신병 위문법회

고양시 재가불자 봉사단체인 보현가족(회장 이일심명)은 31일 제9보병사단 신병교육대 늘푸른 법당에서 신병들과 함께 1월 정기 위문법회를 가진다.

보현가족은 올해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내 독거노인 돕기 봉사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0344)966-1101

우리 모임에선

1999학년도 제8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및 출강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법사(法師)란

* 법사의 칭호는 대승경전에 의거하며 불교 3보의 이상적 가치를 생활속에 구현하려고 마하연의 정법을 섭수정법하는 대승의 보살로서 불교 종교인의 신앙요건과 법사법위 품수 의례의 과정을 거쳐 법사의 자격을 여법히 받은 대승행자인 불교지도자임을 말합니다.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법위품수와 소정의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불교 기본의식 포함)
   대법사과정 = 2년 (불교 상용의식 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년 1월 5일~2월 2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3층)
☎ (02) 720-1836 · 733-1959
737-5305 · Fax : (02) 737-5305

'99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972년 9월에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대중화를 위한 대중불교의 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불교전문교육의 요람지로서 2년제 야간 전문과정임.
(27년간 38개기 졸업 · 현재 39기생 모집중)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불교학과 통신과정
2. 지원자격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신심있는 불자 ○대중불교 운동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불자 ○포교사 자격고시대비생 (교리 및 의식교육) 불자
3. 강의시간 주4일 수업 (오후 7시부터 ~ 8시 30분까지) 4. 교육과목 20개 과목 년간 총 28주 교육

학 년		교 육 과 목		
1 학 년	1 학 기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2 학 기	◇대승불교의 이해	◇중국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2 학 년	1 학 기	◇불교문화의 이해	◇비교종교	◇부파불교
		◇초기대승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2 학 기	◇기신론 사상	◇천태사상	◇화엄사상
		◇선사상	◇정토사상	◇불교교리 발달사

※ 매학기 : 의식이론 및 실습교육 / 동 · 하계스쿨링교육(특강 및 의식실습 실시)
※ 교수진 :
권기종교수(동국대) 강건기교수(전북대) 권탄준교수(동국대) 장희옥교수(동국대) 최종석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 김사업교수(동국대) 김종명교수(동국대) 김응기교수(동국대)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2월 28일 18:00까지(본대학 서무과)
6.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7.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8. 특전사항 ◇소정의 법사고시를 통하여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부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서무과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이렇게 들었다

깨달음

"불법 구하는 이 빨리 깨닫는다"

음력 12월 8일은 성도일이다. 성도일은 석존이 범부의 굴레를 벗고 부처님이 되신 날이요, 구속과 얽매임에서 해탈과 열반의 문을 활짝 연 날이다. 불자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이 다니는 절을 찾아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행사보다는 각자 나름대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승가는 승가대로 재가자는 재가자대로 욕심으로 가득찬 마음을 비우고 자기 속의 부처를 발견하기 위한 작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성도일의 참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법을 통해 깨달음의 문을 여는 것이 최상의 공양"이라고 말씀하셨다. 깨달음에 대한 경전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늘 지성으로 행동하며 꾸밈이 없으면 그 원이 채워져 결여됨이 없을 것이며, 온갖 바른 덕을 늘려 그릇된 행위가 없고 불법을 사랑해 구하는 사람은 빨리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반야삼매경〉

▨모든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과 보살은 꽃과 열매가 된다.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 지혜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므로 보리(菩提)는 중생에게 딸린 것이다. 중생이 없다면 보살은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화엄경〉

▨거룩한 가르침의 비는 처한 곳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린다. 이 비를 맞는 자는 그것을 작은 무리로 모아 조직과 생활공동체로 모아들이고 마침내 자신이 깨달음의 대양에 들어있음을 발견한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물과 젖처럼 융합해서 마침내 화목한 형제애로 뭉친다. 이래서 바른 가르침은 완벽한 조직의 기본 조건이고, 사람들이 서로 인내하고 적응하면서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펴주는 빛이다. 〈팔리 증지부〉

▨첫 발심할 때 정각을 얻는다. 이때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지혜의 몸을 갖춰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화엄경〉

▨즐거움을 깨닫고 괴로움을 깨달으며,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것을 깨달으면, 그는 이 깨달음으로써 덧없음을 관찰하고 흥하고 쇠함을 관찰하며, 말함을 관찰하고, 버림을 관찰한다. 그런 뒤에는 이 세상에 끄달리지 않는다. 세사에 끄달리지 않은 뒤에는 곧 피로하지 않고, 피로하지 않은 뒤에는 곧 열반에 들어 생이 다하고 범행(梵行)이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 〈중아함경〉

▨약이 있어도 잘못임을 알아서 과실을 고쳐 선을 행한다면, 죄가 절로 스러져, 후일에 가서는 꼭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십이장경〉

▨삼보를 공양 예배하며 찬탄 수희(隨喜)하여 부처님들께 권청(勸請)하면, 삼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후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해서 능히 무상의 깨달음을 구하게 된다. 또 불·법·승의 가호를 받는 탓으로 업장을 없애고 선근이 퇴전(退轉)치 않는다. 〈기신론〉

▨보살은 응당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고 항상 마음을 집중하여, 불을 염하고 법을 염하고 승을 염해야 하느니라. 어째서 그런가? 이 귀명(歸命)의 공덕의 힘으로 무량한 선근을 성취하게 되며, 또 유정(有情)으로 하여금 모두 불을 염하고 법을 염하고 승을 염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건 이것을 염할 때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일 뿐, 내가 어느 유정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도로 끌어들이고, 어느 유정에게는 박하게 대해 이를 배척하는 일이 있겠는가. 불·법·승 삼보를 염치 않는다면, 늘 노여움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보살장정법경〉

▨온갖 중생을 관찰하건대, 보시를 염두에 두지 않는 까닭에 도로 악도에 떨어져 윤회를 받게 된다. 만약 익히 깨달아 길이 보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필코 불환과(不還果; 뒷걸음질 치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지)를 얻어 이 세상에 다시 와 태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본사경〉

독자의 소리

관람료관리위 구성해야 승려 노후복지 우선 활용

불교발전에 쓰여져야 할 사찰관람료가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만큼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가칭 '관람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관람료는 불교발전을 위한 포교와 복지사업에 쓰여져야 한다. 무엇보다 스님들이 걱정없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복지대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교종합병원과 종합대학 설립, 일간신문 창간, 해외포교에 쓰여져야 한다.

관람료가 건설적으로 사용된다면 한국불교는 계율이 살아나는 청정불교, 수행에 전념하는 불교, 사회에 봉사하는 불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최광호〈경북 경주〉

무창포에 '모세의 기적' 중앙일보 표현 신중해야

1월 8일자 중앙일보는 바닷물이 갈라지는 무창포에 철도청이 관광열차를 운행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무창포 모세의 기적 관광열차'라는 제목을 붙였다.

바닷물이 빠지면서 갯벌을 드러내는 자연현상을 기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눈에 거슬린다. 더욱이 특정종교의 인물과 신화를 갖다 붙였다. 최고의 권위지임을 자처하는 신문의 이같은 처사에 아쉬움을 전하며 신중한 기사쓰기와 편집을 당부한다. 아울러 불자들의 언론감시 활동이 요구된다.

춘일〈스님, 서울 양재동〉

화장은 사회적인 요구 불자들 솔선수범 해야

많은 사람들이 묘지 부족과 호화묘지 조성 등의 이유를 들어 매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본인과 가족의 화장(火葬)에 대해서는 머뭇거린다. 최근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5.2%가 화장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불교인의 화장 찬성률이 기신교인이나 천주교인보다 낮았다.

불교에서는 다비하는 장묘풍습이 있다. 그런데도 다른 종교인에 비해 화장을 덜 선호한다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화장은 사회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불교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강영구〈서울 목동〉

조계종 대참회법회로 상처치유-화합 다지길

조계종사태는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었다. 그러나 대다수 스님들과 불자들은 여전히 수행과 포교에 열중하고 있다. 사태의 파장과 충격은 컸지만 치유하고 화합하는 힘이 더 크다고 믿는다. 불교는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 총무원장이 뽑히면 참회대법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어찌 됐는지 소식이 없다. 참회연비의식을 했다는 기사를 봤지만, 그것으로 국민들의 실망을 씻어주지는 못한다. 조계종의 모든 사찰에서 동시에 참회법회를 봉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불교 건설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어떨까.

김영우〈서울 흥제동〉

목탁소리

조계종 추가경정예산 11억

임 연 태
〈취재1부 차장〉

'종단수호 및 호법활동 경비 11억원.' 21일 개회된 조계종 제138회 임시종회에 제출된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항목이다. 종단수호 및 호법활동 경비로 정리된 이 항목의 내역은 종단사태로 인해 소요된 지출금이다.

총무원은 종단사태로 1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썼던 것이고 중앙종회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승인했다.

분규 와중에 총무원측이 11억원을 썼다면 정화개혁회의도 그만큼은 썼거나 더 많이 썼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시말해 두달남짓 진행된 분규에 20억이 넘는 정재가 쓰였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쓰여질 것이란 얘기다. 총무원은 금년예산에 청사 보수비 9천만원을 편성했고 정화회의측도 조직 운영비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분규 자체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불자들의 시주돈이 탕진됐다는 사실은 적잖은 충격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정화개혁회의측이 조계사 주변에 깔아 놓고 지급하지 않은 외상값도 상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돈의 액수보다 신심있는 불자의 가슴에 맺힌 한탄의 무게가 더 안쓰럽지 않을 수 없다. 조계사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 철공소, 목욕탕 등의 업주들의 받지 못한 의상값을 합하면 모두 5천만원을 넘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들은 업주들끼리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마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돈 때문에 재가신도인 업주가 승가를 법에 고발해야 하는 불경스런 일도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조계종 분규는 많은 교훈과 상처를 남겨 주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바로 귀한 삼보정재의 탕진이다.

"차라리 그 돈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혹은 종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승가 교육기관의 지원금 등으로 쓰였다면 얼마나 큰 효과를 얻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ytlim@buddhapia.com)

제언



의연스님
부여 무량사 주지

"문중-재정 일원화 하자"

'선교육 후득도'로 수계방식도 전환

한국불교의 뛰어난 장점으로써 하나는 출가의식이 크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오래된 수행의 전통과 실질적인 수행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결제기간에는 매일 10시간 이상을 참선 정진하고, 또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수행하는 대다수의 스님들은 출가의식이 매우 큰 원력출가자들이다. 이처럼 한국불교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한국불교의 파행과 질곡의 역사는 주지하다시피 54년 이후 여섯 차례의 이승만정권의 정화유시에서 비롯되었다. 역대 독재권력은 자기 모순 때문에 각종 문화정책과 행정적 소외, 여타의 불교관계악법 등으로 불교의 자주권을 말살했다. 또 불교내에 끝없이 분열책동을 조장하고, 이에 이해관계에 따라 뇌화부동하던 권승들은 불교의 사회적인 위상보다는 개인이기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분란을 야기했고, 종단내에 불신과 반목, 갈등을 가중시켜왔다.

그러다보니 은사와 상좌가, 같이 공부하던 도반끼리, 문중간에 담합과 반목이, 문중내에서도 각종 알력이 배태되고 어제는 뜻을 같이 했지만 내일은 서로 반대파가 되어 싸워야만 하는 현실이다.

조계종단의 모든 문제는 문중제도와 사찰재정, 득도교육체계 부재에서 파생되고 있다.

작금의 종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가. 정말 살맛나는 종단을 건설할 수 있는 대안을 우선 거론해보자. 첫째, 문중 일원화, 둘째, 사찰재정 일원화, 셋째, 득도과정 체계화.

첫째, 현재의 문중제도, 문중관념은 소아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 문중이기주의일 뿐이다.

문중을 하나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수계자는 그대로 두되 지금부터 새로 득도하는 모든 출가자를 한 분의 은사로, 즉 종정스님 한 분으로 국한한다. 은사와 상좌로서의 여러 관행을 종단이 대신한다.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지나면 문중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고, 문중제도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찰재정 문제인데, 모든 사찰의 재정을 중앙으로 일원화하면 소위 말하는 잿밥싸움은 끝날 수 있다. 사찰의 재정을 일원화하여 그 자본으로 수익사업과 교육사업, 나아가 사회복지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또 모든 스님들께 일정액의 보시를-곧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인사인력관리를 기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사찰에도 형편에 맞게 수용비를 재분배한다. 스님들의 현실생활이 보장되면 노후보장도 자연히 해결되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단위 사찰운영도 그 사찰의 사정에 따라서 주지뿐만 아니라 총무나 포교사, 또는 사무장 등의 소임자도 중앙종무기관에서 임명하고 관리해서 주지의 전횡이나 독단을 없애고 공정한 종무행정을 기한다.

셋째, 득도과정의 체계화인데, '선득도 후교육'의 수계방식을 바꿔 먼저 교육을 이수케 하고 수계를 한다.

출가하는 사람들을 최소 4년간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케 하여 학문과 수행과 실천에 있어서의 자질과 역량 등 기본 소양을 함양케 하고, 그런 후 재차 출가의지를 확인하고서 사미계를 수지케 한다.

만약 기본교육과정을 마쳤으나 출가의지가 퇴색하고 수계득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단내에 포교부분(포교사)와 종무 행정부분(사무장)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역자 제도'를 두어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교역자들도 종단에서 대기업 수준의 급료를 주면서 인사인력관리를 기한다. 그리고 사미계를 수지하면 예를 들어 대략 세분야의 전문과정, 곧 선학전공, 경학전공, 포교행정전공 등으로 구분하여 최소 2년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케 한 뒤 비구계를 수지케 한다.

선방에 다니려면 선학을 전공한 자만이, 만약 행정 소임을 보다가 선방에 가고자 할때는 선학부분의 재교육과정을, 선방을 다니다가 행정소임을 보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포교행정부분의 재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소임을 맡게 한다.

그 누구도 질곡에 빠진 종단현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어느 때보다도 의식의 각성과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종단의 어른스님들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스님들, 종무행정을 관장하는 주지들이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중들은 냉소적인 태도를 지양하며, 출가자들 모두가 서로 배려하는 운명공동체로서 승가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99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통신40명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40명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60명 ■통신4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중국어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40명 ■통신20명		

2.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 18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예정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 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률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률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9년 2월 25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 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졸업 후 중앙승가대학 입학 가능 방송대학 입학 가능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2월 22일까지
■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8, FAX : 02)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중국최고국립한의과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의 예 과	5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양생강복학과	5년	◇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약 학 과	4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제약학과	4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약리학과	5년	◇ 건강진단서 1통
침구학과	5년	◇보증서 1통
추나학과	3년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간호학과	2년	◇ 여권용사진 3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의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2, 제약공장, 교육병원10, 제약연구소등 완비
◆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 25-6798171 팩스 : 25-6798168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02-511-2026~8

학예사 국가자격제 내년부터 실시

문화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개정 "성보 관리-전시 효율화 기대"

문화관광부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을 개정, 학예사 자격제를 내년부터 실시함에 따라 올해 대부분 개관하는 성보박물관들도 전문 학예사 채용을 통한 전시기획 및 유물관리에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계 최초로 국가공인 자격을 주는 학예사 자격제는 박물관 미술관 관련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정학예사(1급~3급)와 준학예사로 구분해 자격증도 교부된다. 자격제의 시행으로 학예사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어, 권리 강화와 대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박물관에서 믿고 채용할 수 있는 풍토가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계 성보박물관의 경우 4월 개관 예정인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학예사 3명, 역시 4월 개관 예정인 수덕사 성보박물관, 송광사 성보박물관, 목아불교박물관 등은 1명의 학예사를 두고 있다. 올 가을 개관을 앞둔 월정사 성보박물관도 1명의 학예사를 채용할 계획인데 비해 지난해 11월 개관한 대흥사 박물관이나 봄 개관 예정인 금산사 성보박물관은 학예사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박물관이 단순히 성보의 나열이 아닌 각 사찰의 특성에 맞는 전시기획을 통해 불자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불교문화 체험 및 교육의 장이 되려면 유물 전시·관리와 보수, 사찰역사에 따른 고증 및 발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예사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전시 기획 및 유물 관리·보존이 필수적이다. 전국 60여 관광사찰의 연간 관광객 수는 3천만명. 이들에게 불교문화재를 박제된 전시물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지닌 살아있는 문화재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도 필요하며 이 또한 학예사를 중심으로 각종 문화포교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성보박물관 관계자들은 학예사의 전문성과 함께 불교에 대한 이해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안목이 불교유물을 효율적으로 전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의 한성욱학예사는 "사찰의 특징적인 면을 전시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학예사를 성보박물관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야 한다"며 "학예연구실 자료실 유물정리실 등을 수장고에서 분리해 전문적인 공간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등 종립학교에서 배출되는 문화재 전문인력은 대학원까지 포함해 한해 50명 정도지만 일반 박물관에서의 채용기회는 극히 적은 형편이다. 따라서 불교인력을 불교계에서 흡수한다는 전제하에 각 사찰 성보박물관에서 이들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점차 늘어날 사찰 성보박물관의 기능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찰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학예사의 기용과 효율적인 활용이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사찰 전통음식 맛과 영양 비결

아리랑TV 30일 '사찰음식' 방영 위성 통해 아시아 전역에 송출

스님들은 사찰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수행 정진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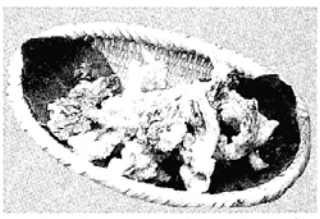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케이블채널 아리랑TV(ch50)는 구도자들의 지혜가 빚어낸 고유한 맛의 세계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More Than Kimchi-사찰음식'을 30일 오후 4시30분부터 30분간 방영한다.

된장의 구수한 맛과 호박을 갈아 넣은 된장 국수, 홍시를 넣어 만든 매콤달콤한 홍시 김치를 비롯 갓·무우김치, 국 무침 등에 이용되는 고소나물 요리 등이 불교음식연구회 선재스님의 실습과 설명을 통해 소개된다. 또 채식위주인 사찰 식단에서 부족해 지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해 각광받는 전각 요리도 선보인다.

이 프로에서 적문스님(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은 "사찰에서의 음식 섭취는 육체를 튼튼하게 하기 보다는 수행을 위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사찰음식에는 파, 마늘, 부추 등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사찰 음식의 특징을 밝힌다.

통도사, 송광사, 해인사 등 국내 유명 사찰의 음식 문화를 살펴본 이 프로에서는 또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정신 수행의 한 과정으로 여기는 발우공양과 선(禪) 수행의 연장으로 일컬어 지는 다도생활 등도 다뤄진다. 특히 발우에 나눠진 음식을 먹기 전에 수행자들이 합송하는 '오관게' 의식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사찰 식사 예법의 경건함을 느끼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사찰음식중 하나인 '싸리버섯 튀김'.

"회원 대부분 불자 권익향상에 역점"

문화재기능인협 6대회장 신응수씨



"무엇보다도 협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협회의 위상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전·관리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기능인들에게 있는 만큼 자부심과 신심, 긍지를 가지고 부단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어 주겠습니다."

지난 15일 제11차 정기총회를 통해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제6대 회장에 선출된 신응수씨(59)는 강력한 협회를 만들겠다는 운영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창립 11주년을 맞은 문화재기능인협회는 새 회장 선출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나가겠다고 마음을 모았다.

"협회 이름을 종전까지 쓰던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에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로 바꾼 이유도 거듭 태어나겠다는 의지에서입니다.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회원들의 불이익에 과감히 대처함은 물론 불심 함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회장은 회원들의 기능 향상과 함께 대 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협회차원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도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올 가을쯤 교계 최초로 〈기능인 인명록〉을 펴내 각각의 작품에 대한 조성자 및 스승 등 계보를 밝히는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능별 연수교육과 문화재 답사 등의 프로그램도 이사회를 통해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신응수 회장은 지난 9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대목장)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강릉에서 우림목재를 운영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불조전 53불 삼신불…' 탱화 전시

송광사 성보각, 5월 9일까지

승보종찰 송광사 성보각에서는 5월 9일까지 '불조전 53불 삼신불 오방여래탱' 특별전시회를 갖고 있다.

희귀 성보의 진품을 직접 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에 출품된 '53불 삼신불 오방여래탱'은 원래 불조전에 봉안된 것으로, 마 바탕에 53불과 3신불, 5방여래 등 모두 61불이 7폭에 그려져 있다. 주존불은 3신불과 오방불의 7부탱으로 중앙칸에, 53불은 6폭에 나누어 그렸다. 이 탱화는 영조 원년(1725년)에 그려진 것으로 전체 색상은 붉은 색을 주색으로 하여 청색과 감청을 곁들여 짙은 채색이 선명한 가운데 얼굴은 밝은 살색으로 그렸으며 옷은 같은 색의 짙고 옅음과 금니로 선을 그어 묘사하였다.

한편 송광사는 봄과 가을 두 차례씩 탱화 특별전을 열어 신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가치있는 진품탱화를 일반에 공개한다.

(0661)755-0407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송광사 불조전 탱화중 동쪽벽의 13佛탱(부분).

'99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 29일 출범 선포식

건축문화엑스포 등 사업 전개

'99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광노)는 29일 오후 2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축문화의 해의 닻을 올린다.

'삶의 터전, 문화의 바탕'이라는 공식 슬로건 아래 펼쳐질 중점 사업은 △건축문화엑스포 △한국현대건축100년 특별기획전 △밀레니엄 기념조형물 조성 △동서양 건축문화 비교 국제심포지엄 △아카시아(ARCASIA) 국제포럼 △내가 가꾼 우리 마을 콘테스트 △전국 건축문화자산 조사 체계화 등이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펼쳐지는 건축문화엑스포. 주제관인 '한국건축문화 5000년전'을 비롯한 '동서양 건축 미래의 건축' 등 건축의 종합문화적 성격을 부각시킨다.

또한 밀레니엄 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비전 2000위원회'와 연계해 기념조형물 건립단을 마련하고, 모든 건축문화 자료의 중심이 될 자료관 건립을 위한 각 자료 등을 수집한다. 또한 건축이 가장 큰 관광 자산이라는 인식아래 전국의 건축문화 자산을 조사해 이를 정보화하고 외국인과 일반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별, 지역별 건축문화기행도 연중 실시한다. 이경숙 기자

동국 국악예술단 日공연

나라시 초청, 2월2~6일

동국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동국국악예술단이 일본 나라시 초청으로 '나라 100년 회관' 준공 기념 축하음악회를 갖는다.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나라 100년 회관에서 공연되는 이번 음악회는 민요 아리랑, 해금 협주곡 '공수받이',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박범훈 작곡)' 등의 곡들이 연주된다. 박상진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악과)가 지휘하며 국악관현악단 50명, 창극단 30명, 무용단 40명이 참가한다.

백제 금동대향로 제작과정 민속박물관 재현 상설전시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이종철)은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사진)를 제작하는 공방을 재현, 1월초부터 상설전시에 들어갔다.

이번에 박물관이 재현한 공방은 △밀랍으로 향로를 조각하는 모습 △완성된 밀랍에 진흙을 씌워 거푸집을 만드는 모습 △거푸집을 불에 달궈 안에 있는 밀랍을 제거하는 모습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넣는 모습 △거푸집을 깨고 향로를 꺼내는 모습 △향로에 세부 조각을 하는 모습 △완성된 향로에 도금하는 모습 등 금동향로의 조형성과 제작 과정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신라 유리·금속공방'과 '가야 야철공방'도 전시되어 있어 고대 국가들의 공방과 공예술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6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금동대향로는 93년 부여 능산리 건물터에서 발굴됐다. 향로에는 불로장생하는 신선들과 용·봉황 등이 어우러진 이상향인 봉래산을 용이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 백제인의 탁월한 예술 감각과 독창성이 느껴지는 걸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강지연 기자

중앙불교합창단 단원 모집

중앙불교합창단(이사장 박범훈 중앙대 교수)이 창립 5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엘토 등 각 파트 30명씩, 음악전공자 및 성악에 소질이 있는 여성으로 접수는 2월 28일까지이다.

오디션은 3월 3일 오후 1시. 중앙불교합창단은 새 단원을 보강해 보다 활발하게 불교음악 활동에 참가하며 향상된 음악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02)896-2091~2

募 緣 文



서기 817년 이차돈 성사 추모비 〈경주박물관소장〉

서기 527년 신라땅 경주에서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성스러운 종교적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순교자이신 이차돈 성사님의 진리를 찾으시며, 진리를 지키시며, 진리가 되는 생활을 보여주신 이 역사적인 순교가 밑받침이 되지 못하였다면 어찌 세계의 자랑거리인 신라불교가 태어날 수 있었으며 신라 불교가 찬란한 빛을 발하지 못하였던들, 어찌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런 역사가 있었으리오!

이러한 거룩한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기 817년 신라시대에 추모비가 건립되어 현재 경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차돈 성사님께서 순교하신지 어언 1470년이 흘러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 경내에 이제 다시 그 순교정신을 이어 받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부대중들이 뜻을 모아 기념 추모비를 건립하고자 하오니 인연(因緣)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정성을 보내주실 곳 (동참금은 각자 정성으로)

우체국 700047-0333069 박 성 일(흥륜사 주지)

농 협 721015-52-239100 박 성 일(흥륜사 주지)

■ 비문 : 일타큰스님 찬 ■ 글 : 덕봉선생

흥륜사 이차돈 성사 추모비 건립위원회

경주시 사정동 281번지 흥륜사내

TEL 0561)772-4834, 43-3776

대한불교조계종 흥륜사 주지 혜해 합장

종교(불교) 심학교사 초빙

진취적이고 시대적 감각이 앞선 이념으로 이 땅에 찬란한 생활불교 문화를 꽃피워온 대한불교진각종이 21세기를 준비하며 사학명문 종립 심인중·고등학교(대구)와 진선여자중·고등학교(서울)에서 인재 양성에 주력할 심학교사 약간명을 초빙합니다. 유능하고 젊은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전공 및 인원

과목	전공분야	근 무 지	초빙인원
심학	종교학(불교)	심인중·고등학교(대구) 진선여자중·고등학교(서울)	약간명

2. 자 격 요 건

① 대한불교진각종의 교법을 준수하며 종지를 세울수 있는 자.
②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종교학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3. 제 출 서 류

① 자필이력서 1 부(명함판사진부착)
②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1 부
③ 정교사 자격증 사본 1 부 ④ 주민등록등본 1 부 ⑤ 건강진단서 1 부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제출기간 : 1999년 1월 30일까지 (우편또는 방문접수)
나. 제 출 처 :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 총무부 (우 136-132) 서울 성북구 월곡2동 22번지 ☎ 02) 913-0751~4

5. 전 형 방 법

서류전형후 면접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전원 정사(사택) 제공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리원 총무부로 문의바람.

대 한 불 교 진 각 종

새로나온 책



▲동중공부=정중선(靜中禪)과 동중선(動中禪)의 참선방법 중 동중선 수행법에 관해 설명한 책. 참자기를 찾는 방법과 공부의 선결요건, 좌선의 방법 등이 제시돼 있다. 부제는 '재가자를 위한 마음공부법'. 허운스님의 참선법문도 실려있다. 저자는 천강스님(길상선원 선원장)이며, 책을 원하는 불자들에게는 법보시한다. (02)3672-5945



▲마음에 내리는 꽃비=93년 등단 이후 불교적 이미지와 소재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드러내 보였던 시인이자 다인(茶人)인 한지혜씨의 신작 시집. 이번 시집에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불교적 자기구원과 구도정신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차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깨우쳐 가는 모습을 그린 연작시 '상천재에 뜨는 달'은 시인의 불심이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한누리 미디어, 5천원〉



▲조선왕조 충의열전=사육신과 김종서, 유성원 등 충직한 성품으로 절개를 지킨 조선시대 충신들의 기록을 더듬은 역사서.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과정과 단종복위운동을 둘러싼 조선 초기 정치사의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며, 이들의 충의(忠義)를 그렸다. 저자 최완수씨(간송미술관 역사실장)의 역사의 이면 추적이 돋보인다. 〈돌베게, 1만원〉



▲신 토정비결=한자문화의 영향으로 어렵게 구성돼 있는 토정비결을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 하지만 토정비결은 운명의 노예가 아닌 미래에 대비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한국 역술인협회 중앙회장 백 광씨. 〈관음출판사, 7천원〉

승병활동은 나라사랑 보살행

노경식 소설 '사명대사' 상·중·하

이야기 전개과정
스님의 인간미 '물씬'
주제는 국난극복 의지

조선불교의 큰 별로, 나라의 평안과 무명중생의 제도를 위해 한 몸을 살랐던 사명당 유정스님을 소설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노경식씨(61)가 펴낸 〈사명대사〉(전3권, 문원북 刊)는 사명스님의 기록과 행적들을 정리해 소설화 한 작품이다. 특히 서산대사를 비롯해 영규 처영 의암 경언 인오 해안 등 사명대사와 함께 임진왜란 당시 국난극복에 앞장섰던 스님들의 세세한 행적까지도 추적함으로써 승병활동을 총정리했다는 의미도 지닌다. 또 임진왜란이 당쟁에 의해 발발했다는 식민지사관에서 탈피,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 의지를 스님들을 통해 투영시키면서 민족주의적 사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 소설의 특징이다.

상·중·하 세 권으로 구성된 〈사명대사〉의 이야기는 지리산 화엄사의 한 승방 안에서 해안 노스님과 혜구스님이 마주 앉아 30년전 열반에 든 사명대사를 회상하면서 시작된다. 선조 25년 금강산 유점사에 왜군이 쳐들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명스님은 먹물장삼에 주장자만 든 채 왜장을 만나 글로써 담판을 짓고 피로 얼룩질 뻔했던 절과 스님들을 구해낸다. 이 일로 국난이 터진 사실을 알게 된 스님은 서산대사의 격려문 아래 승군을 모집하고 봉기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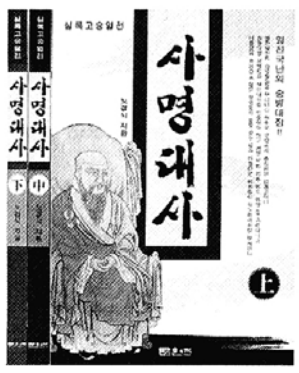
세 차례나 적진으로 간 스님은 대담함과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보였으며, 정유재란을 맞아서도 다시 한 번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며 왜군이 인질로 잡아간 3천5백여 명의 포로를 데리고 귀환하는 공적을 세운다.

이야기는 사건 위주로 빠르게 진행돼 읽는 지루함을 잊게 한다. 승병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동심처럼 맑았던 스님의 진면목도 그대로 드러난다. 스님이 남겼던 많은 선시들이 소설 곳곳에 등장하는가 하면, 선승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고뇌와 갈등은 스님의 따뜻한 인간미와 깊은 불심을 읽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이야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스님의 인간미와 불심은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심성과 불성을 깨우며 '이심전심'의 경지로 몰아간다.

한편 저자는 이야기 내내 사명대사 등 승병들의 활동이 보살사상의 구현이요 우국충정의 발로임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오늘날에 그와 같은 민족적 기개와 호연지기가 없음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뽕나무 열매를 먹는 새는 그 소리가 고와진다. 그렇지만 향을 훔치면서 콧구멍을 막고, 머리에 난 부스럼을 가리켜서 뿔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았는가…"

처음 사명대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스님의 '행적'을 적었던 혜안 노스님의 이 글이 이야기의 끝을 장식한다. 저자는 자신이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긴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3년간이나 각종 사료를 뒤지며, 사명대사의 흔적을 좇았다. "역사는 살아 있는 교훈이다. 사명대사는 바로 그 사실을 입증해주는 훌륭한 스님이었음을 이 책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며 발간의미를 말했다. 각 권 8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축역 한국대장경' 12권 완간

한국적인 언어와 습성에 맞춰 정리함으로써 경전을 쉽게 접하고 이해하도록 한 〈축역 한국대장경〉이 완간됐다. 〈161호 8면 참조〉

사단법인 한국불교금강선원(이사장 한정섭) 부설 불교정신문화원은 지난 17일 〈아함부1〉〈반야부1〉〈반야부2〉〈논집부2〉 등 〈축역 한국대장경〉 4권을 펴냈다. 이로써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 4권씩 출간된 〈축역 한국대장경〉은 모두 12권으로 발간이 마무리됐다.

경·율·논·선·밀교 등으로 분류된 〈축역 한국대장경〉은 〈아함부〉〈방등부〉〈반야부1〉〈반야부2〉〈법화·열반부〉〈화엄부〉 등 6권으로 경부를 정리하고, 율부는 〈계율부〉 1권으로 축약했다. 논부와 선부는 〈논집부1〉〈논집부2〉〈조사어록1〉〈조사어록2〉 등 각 2권으로, 밀교부는 〈밀교부〉로 발간됐다.

이번에 나온 〈아함부1〉은 〈장아함경〉〈중아함경〉〈증일아함경〉〈잡아함경〉 등에 수록된 1천4백81개 경전을 축약해 놓았다. 〈반야부1〉은 현장법사가 번역한 〈대반야경〉으로도 불리는 〈600부 반야경〉 가운데 제1권부터 574권까지를, 〈반야부2〉는 574권부터 600권까지를 정리했다. 또 〈논집부2〉는 '아비달마대비바사론' '유가사지론' '인명입정리론' '보왕삼매론' '마하지관' '천태사교의' 등 불교논리학의 핵심과 불교학의 기초가 되는 논서들을 실었다.



한정섭 이사장은 "〈축역 한국대장경〉은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됨은 물론 경전 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 권 5만원. 한명우 기자

'마음의 새옷' 입는 구도열

영운스님 시집 '헌옷을 벗다'



'산촌의 새벽을 일으키고 새들의 잠을 깨우며/흙이나 뒤적이고 살아가는 산골 중이 되었답니다'('서시'의 일부)

깊은 산골 청량한 물과 공기를 마신듯한 상쾌함과 소박함. 영운스님(경주 복원사 주지)의 시집 〈헌 옷을 벗다〉(뿌리 刊)는 바로 그런 느낌이다. 고뇌와 방황하던 삶의 순간 순간들. 그것들은 한 편 한 편의 시에 담기면서 염화미소 속에 녹아 내린다. 아! 옷을 벗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시 '헌옷을 벗다'에서 스님은 바보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다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생들의 헌 옷을 벗길 수 없으리라. 부처님과 불법을 받드는 일은 그렇게 '마음의 새 옷'을 입는 일이란다.

시적 기교가 다소 설익은 듯한 느낌은 스님의 천성적인 소박함으로 메워진다. 풍부한 체험과 시에 대한 열정, 그리고 불법을 향한 끝없는 구도열이 1백쪽 시집에 넘쳐난다.

스님은 한국불교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값 5천원.

20년 포교경험 '책으로'

이동성법사 '현장포교의 방법과 실제'



〈현장포교의 방법과 실제〉(정우서적 刊)는 다양한 현장 포교방법과 경험사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포교 지침서다. 20년간 포교일선에서 활동해 온 이동성법사(제천 장엄사 포교원장)가 현장에 임하는 스님과 포교사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책.

현장포교는 이론이나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포교원력과 수행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이 전하는 핵심내용. 세부적으로는 법사의 원력과 자세, 법사의 장애극복, 포교원 개원과 운영, 포교대상에 대한 이해 등이 1장에서 4장에 걸쳐 자세히 설명돼 있다. 특히 심성계발전문지도자인 저자가 개발한 불성개발훈련법을 비롯해 실질적인 포교방법이론, 실제방법과 실습, 의식포교 등 다양한 포교방법과 실제사례가 5장에서 제시돼 있으며, 6장에서는 저자의 20년 현장포교경험사례가 소개돼 있다.

체계적인 포교방법을 원하는 법사들에게 유용한 안내서다. 값 7천원.

삶이란 뭐꼬 — 만용스님 지음

지혜와 용기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



변화가 있고 희망이 존재하는 저마다의 오솔길. 삶은 바로 그런 길. 그렇지만 망상과 번뇌, 절망과 죽음도 그 길 위에 서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한다. '삶이란 뭐꼬'.

삶은 지혜와 용기와 진실이 필요한 것. 만용스님은 답한다. 그것들을 찾아나서라고. 누군가가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찾을 수밖에. 이 책은 삶과 사람을 말한 수필집이다. 경전 이야기는 물론 갖가지 일화 등을 인용하며 삶의 근원과 불법의 깊이를 들여다 본다. 그리고 스님은 말한다. "버리는 방법만을 찾지 말라. 인간은 뽕잎을 먹고 크는 누에와 같은 존재. 신선한 뽕잎이 고갈되지 않는 삶의 법칙을 배우라"고. 만용스님은 서울 삼봉정사 주지. 〈빛샘, 7천원〉

화제의 책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 — 후동 지음

자기 바로 보려하면 그것이 선이다



경봉스님은 "무릇 선이란 마음 가운데 망상을 쉬지 않고 진성(眞性)을 나타내는 공부다"라고 말했다. 자기를 바로 보려 한다면 그것이 곧 선이다. 선은 일상의 어디에나 있다.

한국 문인협회 회원인 후동 시인이 쓴 〈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는 선의 향기를 담아낸 책이다. 달마 경봉 진제 성철스님 등 선사들의 선문답과 경전, 선서는 물론 장자 등의 고전과 〈어린왕자〉 등 외서(外書) 등에서 선향(禪香)이 가득 밴 103편의 짧은 글들을 뽑아 실었다.

선문(禪門)을 노크하는 초심자나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본래면목을 찾아 나선 신심깊은 불자들 모두에게 도반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여래,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2	불자의 기본예절	일 타	효 림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화두 짓는 법	토방 편집부	토 방
5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6	산은 산 물은 물	정 찬 주	민 음 사
7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 현 종	대원미디어
8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9	참선교육	현 담	조계종수선회
10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홍 사 성	장 승

구입문의:(02)737-0695

중앙불교합창단 단원모집

지난 1994년 3월에 창단된 사단법인 중앙불교합창단에서
21세기 불교음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단원을 모집합니다.
중앙불교합창단은 뿌리 깊은 불교음악 연구와
새로운 불교음악 창달 및 보급이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불심으로 하나가 되어 그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불교합창단에서는 그 동안 끊어졌던 불교음악의
시대적 공백을 이어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불교음악의
발전과 더불어 민족음악의 터전을 일구어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불교음악뿐만 아니라 국악과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강습을 통해 개개인의 음악적 소양을 제고하고
종단 행사 참여는 물론 국립국악관현악단, 중앙국악관현악단 등과의
협연을 통해 각종 무대에서 보다 향상된 음악을 선보일 것입니다.

● ● ●

■ 분 야 :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엘토 (각 파트 30명씩)
■ 자 격 : 음악 전공자 및 성악에 소질이 있는 여성
■ 서 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사진(반명함) 2매
■ 접 수 처 :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산 24-17 중앙국악관현악단 (등기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접수마감 : 1999년 2월 28일 도착(우편) 및 접수분까지
■ 오 디 션 : 1999년 3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 사공의 노래(지정곡), 자유곡(1곡)
■ 발 표 : 1999년 3월 10일까지 개별통보
■ 문의전화 : (02)896-2091/2 (중앙국악관현악단)

사단법인 중앙불교합창단
이사장 박 범 훈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 일요일 아침7시)

와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테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말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모르는 용맹정진시 용이한 수행법
● 염불 수행시 혀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난의 괴로움이 번개치듯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간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들숨과 날숨과 숫자를 절 동작에 대입하면 자동단전호흡되고 또렷하게 숫자가 헤아려지며 삼천배를 하여도 절대 숨차거나 헐떡대지 않고 몸살나지 않으며 힘들지 않는 가장 진보된 수행법이며 최고의 건강법이다.

● 시중의 단전호흡은 부처님 호흡법이 아니며 수련을 잘못하거나 몸에 맞지 않으면 명치 아프고, 옆구리 결리고, 협압 오르며, 머리 무겁고, 위장 병 생기며 얼굴 노래지다 검어지며 병이 되니 돈낭비, 시간낭비 하지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저절로 단전호흡되고 기도되는 염불禪으로 불자답게 수행하십시오.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와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7회
● 예약수련 30명, 넉넉한 복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7시~8시)
● 불자기업 오스테이빙테크(주)에서 수련회비 일체를 후원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 안내
▶사참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999년도 겨울 선 수련회
♣ 기간 : 1999년 1월 1일(日) - 20일(水), 3박 4일, 수련비 5만원
♣ 장소 : 성북동 길상사설법전 ♣ 대상 : 일반인, 직장인
♣ 내용 : 선(禪) 초심자의 실참실수(室參實修)와 단기 출가자로서 필요한 발우공양, 108배, 삼귀의 · 오계 수계 등 불자예법.
◐ 1999년도 1박 2일 주말 수련회 계획
(수련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차수	기 간	대 상	회비
제1차	1월23일(토)~24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2차	1월30일(토)~31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3차	2월 6일(토)~ 7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4차	2월13일(토)~14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5차	2월20일(토)~21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6차	2월27일(토)~28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 입재 : 토요일 오후 2시 30분 · 회향 : 일요일 오후 8시

♣ 접수방법
1. 직접 방문시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2. 팩스 이용시 : ①이름②생년월일, 성별③주소④연락처 전화번호⑤직업⑥수련회 경험유무⑦수련회 동참 소견(꼭 쓰세요)을 적어서 팩스로 접수, 이 경우 수련회비는 외환은행 계좌 301-22-00206-0, 예금주 〈길상사〉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 자원봉사자 동정 :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등 봉사자의 활용 시간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시전준비, 공양간 천상 정리, 사무실 보조, 뒷 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우)136-020
전화 (02)3672-5945~6 / 팩스(02)3672-5947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해탈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는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 011)882-1149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한국 종교계 불합리한 전통성 짙고 근대화 성과 아직 미흡

'21세기 한국사회와 종교문화' 세미나

"한국 종교계는 21세기가 가져올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전근대적 요소를 먼저 정리하고, 환경보존운동 등 새로운 세기가 요구할 각종 실천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21세기 한국 사회와 종교문화'를 주제로 21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원장 김몽은) 제2차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세기와 천년을 눈앞에 둔 한국 종교계에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화두(話頭)'가 던져졌다.

> "21세기 한국불교 선풍진작 노력 대사회 자비실천 둘다 화두 삼아야"



◇21일 열린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정병조교수는 "21세기 한국불교는 중생을 향한 자비실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길희성 교수(서강대 종교학과)는 '21세기 한국 종교문화의 전망과 과제'에서 "한국 종교계는 그 자신 속에 내재하는 전근대적 요소부터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길교수는 "아직도 불합리한 전통성이 매우 짙고, 근대화의 기획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못한 사회에서 섣불리 탈근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스스로 앞에서 깨어나 근대화하지 못한다면 한국 종교계는 지금까지 누렸던 프리미엄을 앞으로는 결코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를 이룬 서구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야 한다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서구에서 근대화는 곧 종교적 독선이나 편견에 대한 합리주의의 승리를 의미했고 맹목적 권위와 전통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며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계몽적 해방의 담론과 실천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길교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종교 다원사회를 연출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종교계의 사명은 다양성 가운데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 종교계의 전근대적 요소 청산을 위한 공동과제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성숙한 시민사회의 건설과 책임있는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도덕적 기반을 조성하고, △체제에서 소외되고 탈락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존운동, 생명운동, 평화운동, 그리고 의미상실의 극복 등 사회적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분과 주제발표에 나선 정병조 교수(동국대 국민윤리)는 '21세기 한국불교 무엇을 해야하나'에서 "출가자들은 청정승가를 확립함으로써 불자들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하며 재가불자들은 포교·조직·불사(佛事) 등 모든 분야에서 불교사상의 '현실적 응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를 문화의 세기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질적 문화와의 '만남'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한 정교수는 "범세계적인 안목과 함께 스스로의 내면을 닦아 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조계종 사태를 "선종이념의 상실에서 비롯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발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한국불교는 선풍의 진작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세계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밖에 정교수는 "자신만의 믿음을 절대화하는 사고방식은 전근대적일 뿐 아니라 제국주의적 발상"이라며 21세기 한국불교가 담당해야할 대사회적 역할로 "종교적 경건성이나 진리성을 고수하기 보다는 중생들을 향한 자비실천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The Potala is the largest Buddhist building of the world and the winter palace the Dalai Lamas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티벳 성지순례

조캉사원 · 포탈라궁 등 샅샅이 구경 카일라스산의 만년설도 눈길 잡아

인터넷에서 가장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티벳 관련 사이트다. 티벳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티벳인들은 전통종교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티벳의 독립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공간에서의 티벳 성지순례는 이들 사이트를 선별, 방문하면 된다.

△라사(Lhasa)

이 곳에서는 라사의 전경 사진과 불교 조형물들을 열람할 수 있다. 라사는 해발 3,700미터 고지대에 위치한 성지. 호흡장애와 두통을 일으키기 쉬운 고원 도시이지만 포탈라궁과 조캉사원을 비롯해 큰 사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례객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다.

라사의 중앙에 있는 조캉사원 담장, '바코르' 사진도 제공된다. '바코르'에는 부처님 성도를 뜻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순례자들은 '바코르'를 따라서 '오체투지'를 한다.

티벳순례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포탈라궁이다. 13층 높이에 3백미터의 폭을 자랑하는 포탈라궁은 역대 달라이라마들의 수행과 숙소였다. 7세기경부터 짓기 시작해 15세기에 완성된 이 궁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카일라스(Kailas)

티벳인은 카일라스를 지구에너지의 중심축, 수미산으로 여긴다. 이 사이트에서는 해발 6,714미터에 이르는 성산(聖山) 카일라스의 풍광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진들을 열람할 수 있다.

카일라스의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계곡을 따라 순례자들, 순례도중 간이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 구름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카일라스 등 20여점의 풍광 사진을 열람할 수 있다.

△구게왕국(Guge Kingdom)

티벳의 역사에도 불교를 탄압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 시절 티벳인들은 해발 4천미터 고지대로 피해 새로운 왕국, 구게왕국을 세웠다. 이 사이트에서는 '황폐해진 구게왕국의 불탑군' '초르텔 주변의 기도문이 새겨진 마니석' '볼링사원' '자다마을 사람들' '토굴' 등을 담은 사진들을 그래픽 파일로 제공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라사
http://mayer-carpets.org/travel/potala_in_lhasa.htm
http://travel.epicurious.com/travel/g_cnt/06_gallery/asia/tibet/photo1.html
http://www.mg-soft.si/tsunami/barkhor1.html
△카일라스
http://iias.leidenuniv.nl/iiasn/iiasn7/central/mckay.html
http://www.bena.com/nepaltrek/nckphoto.html
http://www.keadventure.com/
△구게왕국
http://www.umma.lsa.umich.edu/orient/koelz/tankas/tanka-styles.html
http://www.khazana.com/newari/newhist.html

동국대 불교관련 박사논문 3편

제선스님 '김동화의 불교사상 연구'
박영기씨 '허응당 보우 연구'
정성준씨 '딴뜨라의 수행체계 연구'


◇제선스님


◇박영기씨


◇정성준씨

동국대 '98 후반기 불교학 박사논문으로 제선스님의 '뇌허 김동화의 불교사상 연구'와 박영기씨의 '허응당 보우 연구', 정성준씨의 '비밀집회딴뜨라의 수행체계 연구' 등 세 편이 발표됐다.

교학(敎學) 중심의 연구가 교계 학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근대 불교연구의 '거장(巨匠)' 뇌허 김동화(雷虛 金東華·1902~1980) 박사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제선스님은 "뇌허 김동화 선생은 근대 한국사회 대격변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법화, 사회화, 대중화 하는 등 한국불교 발전에 큰 자취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제선스님은 김동화 선생의 불교사상을 첫째, 민족사상의 근간이었던 불교사상을 망각한 정치·사회계층에 대해 불교사상을 체계적이고 현대적으로 정립하여 제시했으며 둘째, 분열상을 보이며 기복화와 정징(政爭)을 벌이던 불교종단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으로 회귀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셋째, 현대적인 사회체제 속에서 대중포교의 기치를 세워 앞장 선 것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했다. 제선스님은 "이러한 점에서 김동화 선생은 새학문을 연구한 유학승으로서, 또 포교전법사이자 교육행정가로서 근대 한국불교의 발전을 이룬 선각자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박영기씨는 '허응당 보우(虛應堂 普雨) 연구'에서 조선중기 보우스님(1515~1565)의 생애를 조명하며 〈허응당집〉〈나암잡지〉〈권념요록〉 등 4권의 저서를 통해 그 사상을 재조명했다. 박씨는 "선과 화엄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유교의 중용과 주역, 그리고 노장사상이 원융무애하게 융해된 '삼교회통(三敎會通)' 사상에서 미혹함과 이기심의 두견해를 떠난 보우스님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며 "이러한 보우스님의 사상은 조선 척불의 상황에서도 불교를 중흥시켜 승단의 체제를 정비하는 등 스러져가는 불교에 새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준씨는 '비밀집회딴뜨라'가 후기밀교 수행체계에 기여한 부분을 밝히며 "비밀집회딴뜨라는 후기밀교를 탄생하게 한 교리적·실천적 배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비밀집회딴뜨라'의 성립 이후 인도의 후기밀교는 육신에 대해 더욱 세밀한 생리적 해석과 수법을 더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비밀집회딴뜨라를 통해 본 후기밀교는 인도라는 특수한 종교와 문화토양 아래 대승불교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 발전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화엄경소초과도집' 발간

80화엄 전편 科圖로 첫 완성

〈화엄경〉의 방대한 분량과 핵심교의를 집약하여 도표로 나타낸 〈화엄경소초과도집(華嚴經疏鈔科圖集)〉이 발간됐다. 80화엄 전편의 내용을 도표로 그려 전개하고 있는 책이 나온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조계종 교육원이 봉선사 능엄학림(강주 월운)에서 1996년 2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청량국사(淸凉國師·?~839)의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를 공부하며 그 과목(科目)을 그림으로 정리한 것. 방대한 분량과 내용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화엄경〉을 문단으로 정리한 것이 '과목'이라면, 과목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시 도표화한 것이 '과도'다.

월운스님은 "〈화엄경소초과도집〉의 발간으로 방대한 〈화엄경〉이 더 이상 비밀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과 포교의 일선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학불교학회 인터넷서비스 제공

http://indra.indranet.net/forum

일본 한국유학생 모임 '인도학불교학연구회'의 학술지 게재논문이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비백교학연구소(소장 혜묵스님)는 단행본으로 출판된 '인도학불교학연구회' 학술지 제6호 〈일본의 인도철학과 불교학 연구-그 역사와 현황〉(아세아출판사 刊)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글 파일로 된 다운로드(download)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되는 논문은 △일본의 인도철학 연구현황(심봉섭) △일본의 초기불교 및 남방상좌부불교 연구의 역사와 현황(정원스님) △일본의 구사학·유식학 연구현황 개관(이종철) △일본의 초·중기 중관파 연구사-나가르주나의 저서, 이해방식 그리고 해석(이혜경) △일본의 후기 중관파 연구(이태승) 등이다.

아봐타 코스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고 깨달음과 평화를 얻으십시오.

아봐타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 및 사건들을 창조하거나 끌어 당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토대로한 매우 강력하며 빠른 효과를 가져오는 코-스(프로그램)이다.

3부로 나누어진 아봐타 코-스의 목표는 자신의 신념체계를 탐구하도록 안내하며 스스로 바꾸기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아봐타 코-스는** 자신의 개의식의 속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을 여는 것이다.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자성이 본래 모든 만물을 낳고 자성이 본래 오고감이 없음을 아봐타 코스에서 당신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아봐타 코스는 7일~9일이 걸리며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에게는 무료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지하철 양재역 5번출구~마을버스(구룡사행) 심호물산 하차

慧元 아봐타 센터

주소: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0-3 은혜빌딩 2층
전화: (02)579-9379 FAX: (02)572-5514

법사신년하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하여 불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불교인 모두가 새롭게 느낄 때 입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기묘년 새해를 맞아 법사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모임을 갖고저 하오니 일선 현장에서 포교하시는 법사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1999년 2월 9일 (화) 14:00
■ 장 소 : **동산교육회관** (서울 안국동로터리)
■ 대 상 : 1. 불교대학 및 포교원 은영법사
2. 일선현장을 포교하는 법사
■ 문 의 : 사무국
☎ 02-732-1218 F. 732-1207

한국불교 전국법사연합회

공동대표: 선진규 한정섭 정병조

(사무총장 - 김 재 일)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현종 지음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의 저자

생생하고 감동적인 신행의 현장, 방방곡곡 영험도량에서 부처님의 은력(恩力)을 체험한다!

10년 지병을 3일만에 낫게 하고, 30년 어두웠던 세상에 빛을 보내주시며, 죽을 고비마다 나타나 삶으로 이끌어주신 부처님. 참회와 발원이 바탕을 이룬 청정한 마음, 그 속에 희망이 있다. 간곡한 기도로 운명까지 바꿔버린 우리들의 영험담!



신국판/값 5,000원



대원미디어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우:140-190)
대표전화(02)757-6717 팩시밀리(02)775-8043

"부처님 일생은 선정의 삶"

경전 속의 禪 사상 4

중 · 장아함경〈상〉

내 나이 스물 아홉
집을 나와 선정(禪定)의 길을 걸었다.
그 길에 이른 지금
어언 쉰 해가 지났다.
삼매(三昧)의 행동을 갖추고
언제나 법과 양심에 따랐다.
조금이라도 그 길을 벗어났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잡아함경 제 979경〉

글쓴이

돈연
〈두타초암〉

호흡 · 자세등 육체적 훈련 도입
본래모습 확인…고통치유 가르쳐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고 다시 길로 돌아간 성자 부처님께도 육신의 죽음은 있었다. 석양의 장엄한 낙조처럼 성스러운 삶을, 부처님은 고향 가는 길,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에서 마치셨다.

고요한 선정을 통해 늘 삼매의 행동을 갖춘 부처님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듯, 어두운 사람에게 등불을 비춰주듯, 온화한 음성과 자비 가득한 연민으로 삶의 고통과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법을 가르치셨다.

부처님의 정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 가르침은 철두철미 모든 경전의 공통된 뜻이다.

자기 자신의 수행인 선정을 통해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그 힘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이겨내는 사회공동체는 불교가 희망하는 이상의 세계다.

부처님은 왜 선정을 죽는 날까지 버리지 않으셨을까. 선정은 부처님에게 무엇이었으며, 어떤 것이었을까.

아함부의 여러 말씀들은, 부처님은 매일같이 선정에 드셨고 선정을 말씀했으며 돌아가시는 마지막 해의 안거에도 변함없이 선정의 수행을 늦추지 않으셨다 라고 전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부처님의 일생 가운데서 선정은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과다. 실제로 대승과 소승, 또는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모든 경전이 다 한결같이 선정에서 시작되고 선정에서 끝난다.

부처님이 스물 아홉에 집을 나와 출가의 길을 걸어 깨달음을 얻으신 행위 자체가 선정의 의문에서 시작되고 선정의 용기에서 나아가고 선정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신 것이다. 이렇듯 부처의 길은 선정과 떠나서 말해질 수 없다. 앞에서 말한 잡아함 979경의 소박한 시는 부처의 삶이 선정의 삶이었음을 간단하게 드러내고 있다. 달리 말하면, 부처의 업적은 선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삶의 내용은 선정이었고, 선정으로 인해 모든 고통은 잠재워졌던 것이다.

잡아함은 물론이고 장아함과 중아함도 모두 선정이 중심이다. 잡아함이 짧은 얘기들로 구성되고, 장아함은 긴 얘기들이 중심이고, 중아함은 중간길이의 얘기들이라 내용이 다를 것 같지만, 그 얘기들의 중심선을 따라가면 어떻게 선정에 들어가고 어떻게 선정을 이룰 것이냐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대장경을 형성하고 있는 매우 방대한 불교문헌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선정의 수행을 도식화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 이점 모호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완성된 인간이 완성된 인간의 본래모습을 확인하는 검증절차로 선정을 택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선정을 지속하기 위해 추상적 개념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 즉 호흡과 자세라는 육체적 훈련을 먼저 도입했다. 방법적으로는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 자신이 일생을 통해 그렇게 실천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따랐던 많은 제자를 포함해서, 그를 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도, 그가 보여준 호흡과 자세라는 지극히 간단한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의 황홀한 내부를 볼 수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의 내부를 본 것이다. 그리하여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생산했던 것이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자신의 고통을 자기자신의 내부에서 치유하고 벗어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이 선정의 길이다. 이것이 선정의 위대함이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3

믿음 ②

감정적으로 믿음은 평화스럽고 평정한 태도이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근심 혹은 많은 일로 인해 고통받는 상태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섯 가지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 그 두려움은 생활의 궁핍, 명성을 잃음, 죽음, 불행한 운회, 남에게 끼칠 영향 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알고 나면 삶의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업을 분명히 믿고 안다는 것의 이점이다. 불행한 운명일지라도 그것을 정의로운 분배라고 생각하고 괴로움은 불가피한 인과응보라고 설명하고 맹목적인 우연이 아니라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명백하게 손실로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 진실한 소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삶은 더욱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아(自我)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심하고 누구를 걱정할 것인가? 또는 우리가 만일 하나의 거대한 공(空)만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를 어지럽힐 것이 무엇이겠는가?

사회적으로 믿음은 부처님과 승가에 대한 확신이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사회적 압력이나 고립으로 인해서 사회적 환경에 대한 걱정에 빠지는 상태이다. 물론 사회환경, 즉 세속과의 단절은 믿음을 위해서 가정까지 버리는 스님의 경우에만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재가불자는 실제적으로는 못한다지만 정신적으로는 사회환경으로부터 가능한 '떨어져 살아야' 한다.

부처님과 승가에게 귀의하려고 애쓰는 것은 눈으로 확인

"보이지 않는 세계 믿으면 다섯가지 두려움 극복"

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계를 떠나서 볼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정신적인 힘에 의존하면 공공의 견해와 사회적인 실망에 초연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세계를 바르게 보는 방법은 정신적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정신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이 이방인임을 느끼고 알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것은 자연환경을 대신해서 부처님을 아버지로, 반야바라밀다(Prajnaparamita)를 어머니로, 동료 구도자를 형제자매, 친척, 친구로 삼는다. 많은 것을 포기할 능력이 없는 믿음은 이러한 과제를 완수하기 어렵다. 그런데 믿음에는 다소 역설적인 속성이 있다. 그것은 단지 노력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는 선물일 수도 있고, 수양될 수 있는 미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붓다고사는 "불건전한 수준에서는 탐욕이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상태에서는 믿음이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탐욕이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찾는 것처럼 믿음은 도덕의 미덕을 찾는다. 탐욕이 해로운 것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은 이로운 것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믿음에 대한 수용력은 우리의 성향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변화된다. 우리의 사회는 전통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사회는 지성적인 영리함을 장려할 뿐 믿음은 지성과 대립된 우둔한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의 고요함에 도달하기가 극히 어려운 믿음의 세계는 감각적 세계관으로 혼란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사회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수많은 모순을 담고 있는 과학에만 특권을 부여할 뿐 직관력을 불신하기 때문에 믿음의 덕들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 우주는 왜 무에서 탄생했나 ③

■ 우주탄생의 최신 시나리오

우리는 어떤 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주 발생의 경우, 발생의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므로 그보다 과거의 일은 있을 수 없다. 결국 우주의 시작 방식을 결정하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각 시각의 우주 공간을 1차원의 고리로 생각해 보자. 그 고리를 시간의 순서로 쌓아간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므로 고리는 퍼져 나간다. 반대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리는 작아지고 결국에 가서는 짜부라져 우주 발생의 시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아래 끝이 뾰족한 원뿔이 생기게 된다. 원뿔의 가장 아래쪽 뾰족한 끝에서는 우주의 역사가 끊어지고 있다. 이 끝 문제를 과학에 의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

1983년, 호킹과 하틀은 우주의 발생과 끝의 문제에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우주의 시작 시간이 보통의 수, 즉 실수가 아닌 '허수(虛數)'이면 우주의 시작이 끝(특이점)에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까지 뾰족했던 끝이 사발처럼 둥글게 되어 끝이 어딘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우주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부드러워지면 '시작을 포함하여 모든 점에서 우주의 상태가 부드럽다'는 조건을 달 수가 있다. 이 조건에 의해 우주의 상태가 한정된다면, 탄생한 우주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호킹이


◇허블


◇가모프


◇호킹

우주 인플레이션 거쳐 다양한 우주로 변화
호킹 '허수 시간설' 無에서 우주탄생 이론화

제안한 요점이다. 호킹 등이 제시한 모델에서는 산 반대쪽에 오른쪽 아래로 급한 비탈길(고개)이 있다. 이 급한 비탈길을 구르는 것처럼 우주는 급팽창을 한다. 이 급한 비탈길은 우주 공간에 내재하는 에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내재하는 에너지는 우주 공간을 급격히 팽창시키는 힘이 된다. 이 에너지는 '진공의 에너지(우주항 또는 우주 상수)'라고도 불리고 있다. 우주가 갓 태어났을 무렵, 그리고 아직 초고온 · 초고밀도의 빅 뱅 시대가 되기 이전에 아주 짧은 이러한 급격한 팽창 시대가 있었다는 설을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 부른다.

우주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0점 진동이 확대되어 우주에 무수한 입자가 자연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된다. 무수한 입자가 발생하는 우주, 그 정도도 아닌 우주, 거의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우주 등 다양한 우주가 공존한다는 것을 계산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당한 입자가 발생하는 우주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으므로 우리가 현재 무수한 천체가 존재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양자론의 '다세계 해석'이라고 한다.

최근 10년 동안에 우주론 측면에서 이루어진 최대 발견이라고 하면 우주 배경 복사의 요동(fluctuation)일 것이다. 빅뱅시대에는 우주의 여기저기서 가스가 응축하고 은하가 형성된다. 따라서 같은 밀도의 스프상태라고 해도 약간의 요동이 있었고, 그것이 그 후 은하 탄생을 위한 응축의 씨가 되었을 것이다. 이 미세한 요동이 1992년 'COBE(우주 배경 복사 탐사기)'라는 인공 위성에 탑재된 관측 기기에 의하여 검출되었다.

빅 뱅 시대 이후의 은하 형성에 대해서도 아직 수수께끼가 많이 남아 있다. COBE가 발견한 우주 배경 복사의 요동을 통해서도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 뉴트리노(neutrino) 또는 미지의 입자가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문제도 21세기 초에 차례로 가동하기 시작할 몇몇 대형 관측기(광학 망원경, 전파 망원경, 중력파 검출기, 뉴트리노 검출기 등)에 의하여 연구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빛의 파장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얻은 우주의 나이는 약 120억년이다. 우주는 그 안의 물질 그리고 우주 공간 자체도 포함하여 진화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우주론의 출발점이 된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유도된 팽창 우주론(프리드만, 허블)이었다. 그리고 양자론을 사용함으로써 공간의 팽창에 따라 그 안의 물질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빅 뱅 이론(가모프)이 등장하였다.

1983년이 되어 양자론을 시공에 적용한 허수 시간설(호킹, 하틀)이 제창되고,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렌킨에 의하여 제창된 '터널 효과에 의한 무로부터의 우주 탄생'이라는 설을 더욱 이론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시공의 양자론이 완전히 확립돼 있지 않으므로 우주탄생 이론은 여전히 가설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현재 초끈 이론 등 시공의 완전한 양자론을 목표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들의 연구를 통해 이제부터의 우주 탄생의 이미지는 크게 달라질지도 모른다. 〈끝〉

월간 〈과학 Newton〉서 발췌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인터넷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지구촌 '디지털 경전' 정보호환 눈앞에

대만 '전자불전회의' 20 여국 학자 70 여명 참석





◇사진 위는 보물 972호로 지정된 해인사 대장경 유가사지론. 사진 아래는 11세기 네팔에서 기록된 산스크리트어 경전. 디지털경전은 대장경을 컴퓨터에 입력, 인터넷에서 읽고 출력할 수 있는 21세기 경전이다.



◇EBTI 회의 전경. 이종찬교수(정신문화연구원)가 산스크리트어 전자사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교수의 산스크리트어 전자사전은 올 하반기 미국 UC 버클리에서 CD 타이틀로 발간된다.

'한문경전 전산화' 놓고 열띤 토론
韓 '고려워드'-日 '문자경' 주목
英·泰 경전 이미지 DB '수준급'
경전연구 신수대장경에 편중
"고려대장경 세계홍보 관심을"

가상공간에서 불법을 펴고,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방법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18일부터 22일까지 대만의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요람이 중앙연구원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바로 전자불전회의(이하 'EBTI', Electronic Buddhist Text Initiative), '전자 경전을 만드는 것을 발의(發意)한다'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20여개국에서 70여명의 학자들이 5박6일 동안 경전과 문헌 그리고 예술 등을 주제로 10여차례 회의를 갖고, 각국에서 진행하는 불교정보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불교정보화와 관련 유일한 국제회의인 EBTI 회의는 인터넷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불교정보를 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호환성을 키우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불교학계의 연구환경이 획기적인 정보기술인 인터넷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의 4바이트체계의 '고려워드'와 손바닥 크기의 빨리어경전의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피터 스킬링박사(태국 빨리어경전협회)의 연구가 관심을 모았다. 인터넷상에서 한문·빨리어경전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디지털 불교의 세계'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한문·빨리어·산스크리트어·티벳어경전에 관한 △전산화 △사전 △문헌정보 등이 논의되고 △불교문화를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소개된 이번 회의에서는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스님)와 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시리얼 캐니)에서 각각 참여해 〈한국불교전서〉와 원효전서 전산화 계획을 소개했다. 코세이시교수(일본 코마자와 주니어대)와 수잔 위트필드(영국 국립도서관)는 돈황본 경전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을 발표했다. 미빈 므서박사(미국 루센트기술 연구소)는 티벳어 문헌을 윈도우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로버트 칼톤박사(고전입력프로젝트)는 중국·인도의 고전을 입력하는 작업을 각각 소개했다. 민 바하두르 샤키야박사(드럽링사원)는 〈티벳어 예해사전〉의 전자본(本)의 시험판을 시연했다.



◇대만 중앙연구원에서 열린 '99 EBTI 회의에는 역대 회의보다 많은 한국인 학자들이 참여했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EBTI 한국지부로 선정됐다.

한문경전 전산화 분야에서 한국·중국·일본 등은 '컴퓨터에서 읽혀지지 않는 한자', 즉 미싱(missing) 한자를 구현하는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제시했다.

한국의 고려대장경연구소는 4바이트체계의 워드프로세서 '고려워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성형 한자를, 일본의 모직쿄센터는 문자경(文字境)이라는 이미지형 한자를, 대만의 중국불교전자경전협의회는 2바이트체계의 조합형 한자를 각각 개발해 '미싱' 한자를 처리하는 방법을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싱' 한자는 지금까지 EBTI에서 가장 큰 잇슈였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는 이미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2만여자의 한자는 한문대장경의 한자를 포괄하지 못한다. 한자 음(音) 혹은 한자의 형태를 조금씩 변형시킨 '이체자' 때문이다.

그러나 한문경전 전산화에서 한국에서만 고려대장경이 연구될 뿐 일본·대만·중국·미국에서는 대장신수대장경에 대한 정보화만을 활발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불교학계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고려대장경'의 운명을 디지털 고려대장경은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인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상의 언어적 문제를 뛰어넘은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빨리어장경 전산화는 인터넷에서 범어장경, 티벳어장경 등 서로 다른 대장경에 실린 동일한 경전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사전 개발 및 원전(原典) 보존계획도 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EBTI는 18일 운영위원회를 소집, 종림스님을 EBTI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를 한국지부로 결정했다. 또 2000년 회의는 1월경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2001년 회의는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에서 8월경 각각 개최할 것을 계획했다.

보광스님(전자불전연구소장)은 "연구진과 참단장비 등 인력과 장비가 풍부한 대학교의 장점을 이용해 2001년 EBTI 회의를 준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만 중앙연구원에서 열린 EBTI는 미래사회가 멀티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구축과 이용이 가능한 시대이며, 불교계도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회의였다.

대만=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EBTI 새회장 선출 종림스님

"2001년 서울회의 준비에 만전"



"한국불교 경전전산화 인력·기술 우수확인"

"2001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EBTI(전자불전회의) 준비에 최선을 당부하는 회원국들의 기대가 모여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죠."

대만 중앙연구소에서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99년 EBTI 운영위원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종림스님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결정'보다는 '제안(提案)' 성격을 갖는 기구인 전자불전회의 회장직은 결코 감투가 아니라는 것이다.

종림스님은 "2001년 대회는 연구성과를 나누고, 최선의 경전 전산화 길을 찾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시기에, 지식과 정보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불교경전 및 문헌 정보화를 추진하는 국제단체의 새 회장에 종림스님이 선출된 것은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축적해 온 정보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EBTI 참석 주요 학자들



◇수잔 위트필드



◇토키오 푸루야



◇반치코바



◇존 헌팅턴



◇토마스 던컨



◇양상발

6일간 30여개의 발표들이 잇달았던 EBTI 회의에서 가장 돋보인 학자들은 단연 새롭게 발견된 문헌정보를 구축하고, 경전전산화의 신기술을 소개한 학자들과 불교 교세가 미약한 곳에서 수년동안 고대 경전을 찾고 있는 학자들이다.

▲수잔 위트필드(영국, 국립도서관 연구원)=그녀는 영국의 국립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돈황본 경전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다. 10여년간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돈황본 경전을 색인·분류하고 이미지 그래픽을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것.

▲토키오 푸루야박사(일본, 모직교 포트센터 원장)=그는 '문자경(文字境) 폰트' 개발자. 이 폰트는 대정신수대장경 데이터베이스의 '미싱' 한자(Missing Character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트시미지트 반치코바(러시아, 부랴트과학·불교학술원, 원장)=그는 70년대부터 티벳 장경을 발굴·조사해 온 러시아와 부랴트공화국의 디지털 불교의 선구자. 지금까지 모아온 티벳장경 1500여종과, 2000여종의 문헌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존 헌팅턴(미국, 오하이오대 교수)=그는 20여년간 인도·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직접 찍은 불교문화 및 예술품 사진을 모아 인터넷에서 모아 제공하고 있다. 헌팅턴교수는 내년 상반기에 방한해 한국불교예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토마스 던컨(미국, UC버클리대 교수)=그는 인터넷 상에서 소외되기 쉬운 개인과 소규모 단체서 추진하는 불교정보 전산화를 서로 연결, 대단위 '불교정보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양상발(대만, 중앙연구원장)=그는 중국불교전자경전협의회에서 신수대장경을 입력한 전자경전에 음성 데이터를 합치는 프로젝트와 부다달마학회에서 대만 고승들의 CD 타이틀 제작을 후원하고 있다.

생명수 채워 중생구제에 사용

불화와 성화비고 33장면 25

병



◇ '보병수를 든 백의 관음상'(부분). 조선시대 작. 인천시.

천수관음의 40수(手) 중에 병을 든 오른쪽 한 손을 군지수(軍持手)라 하는데 그 손에 든 정병에는 생명수가 들어 있어 이 병에 든 물로 중생구제를 한다. 또 관음보살이 든 정병에는 연꽃이 꽂혀있기도 하는데 연꽃은 봉오리가 맺힌 모습, 반개한 모습, 활짝 핀 모습 등으로 깨달음의 정도를 나타낸다. 보현보살은 불타의 이(理) 정(定) 행(行)의 덕을 맡아보는 보살로 머리에 쓴 관의 앞쪽 중앙에 보병(寶甁)을 입으로써 중생교화를 나타낸다.

서양에서도 병속에 든 물은 생명의 원천, 풍요, 성장을 나타내며 성배와도 관련이 있다. 병속에 든 물은 의식을 치르거나 기도전, 또는 비를 빌 때, 손을 씻는데에 사용한다. 기독교에서 백합이 꽂힌 병은 수태고지(受胎告知)를 나타내는 동시에 순결한 영혼의 육체를 상징한다.

왼쪽 그림은 '보병수를 든 백의 관음'이다. 감로수로써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려는 관음보살의 자비를 볼수 있는 그림이다.

오른쪽 그림은 하일리겐크로이쯔의 화가가 그린 '성녀 카리아의 죽음' 부분도이다. 금색 옷을 입은 천사들이 병을 들고 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 하일리겐크로이쯔 作 '서이녀 카리아의 죽음'(부분). 1410년. 워싱턴국립미술관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⑤

圭峰云 心也者 沖虛妙粹
규봉운 심야자 충허묘수
炳煥靈明 無去無來 冥通三際
병환영명 무거무래 명통삼제
非中非外 洞澈十方 不生不滅
비중비외 통철시방 불생불멸
豈四山之可害 離性離相
기사산지가해 이성이상
奚五色之能盲
해오색지능맹
故永明唯心訣云 夫此心者
고영명유심결운 부차심자
衆妙群靈而普會 爲萬法之王
중묘군령이보회 위만법지왕
三乘五性而冥歸 作千聖之母
삼승오성이명귀 작천성지모
獨尊獨貴 無比無儔 實大道源
독존독귀 무비무주 실대도원
是眞法要 信之則三世菩薩同學
시진법요 신지즉삼세보살동학
蓋學此心也 三世諸佛同證
개학차심야 삼세제불동증
蓋證此心也 一大藏教詮顯
개증차심야 일대장교전현
一切衆生迷妄 蓋迷此心也

마음은 도의 근원이며 법의 핵심
납자들이 참구하는 것도 이 마음

일체중생미망 개미차심야
一切行人發悟 蓋悟此心也
일체행인발오 개오차심야
一切諸祖相傳 蓋傳此心也
일체제조상전 개전차심야
天下納僧參訪 蓋參此心也
천하납승참방 개참차심야
達此心則頭頭皆是 物物全彰
달차심즉두두개시 물물전창
迷此心則處處顚倒 念念痴狂
미차심즉처처전도 염념치광
此體 是一切衆生 本有之佛性
차체 시일체중생 본유지불성
乃一切世界生發根源
내일체세계생발근원
故世尊靈峰良久 善現巖下忘言
고세존취봉양구 선현암하망언
達摩少室壁觀 居士毘耶杜口
달마소실벽관 거사비야두구
悉皆發明此心妙體也
실개발명차심묘체야
故初入祖門庭者 要先識此心體也
고초입조문정자 요선식차심체야

럽게 환하게 밝으며, 또 가고 옴도 없으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다. 또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시방의 공간을 환하게 비추면서 생멸함이 없으니 어찌 사산(四山: 生, 老, 病, 死)이 해칠 수 있겠으며, 본질과 형상을 떠났으니 어찌 오색(五色)이 눈멀게 하겠는가"하였다.

그러므로 영명스님은 〈유심결〉에서 "무릇 이 마음이란 온갖 묘하고 신령스러운 것이 모여서 만법(萬法)의 왕이 되고, 삼승(三乘: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과 오성(五性: 무종성천제〈無種性闡提〉, 정성성문〈定性聲聞〉, 정성연각〈定性緣覺〉, 부정성〈不定性〉, 보살성〈菩薩性〉)이 다 그리로 돌아가서 모든 성현의 어머니가 된다.

마음은 홀로 존귀하여 견줄데도 없고 짝할 데도 없으니, 실로 큰 도의 근원이며 진실한 법의 핵심이다"하였다.

이렇게 믿는다면 삼세의 보살이 다 함께 공부한 것도 이 마음을 배운 것이요, 삼세의 부처님이 다 함께 깨친 것도 이 마음을 깨친 것이요, 팔만대장경이 가르치고 드러낸 것도 이 마음을 드러낸 것이며, 일체중생이 어리석은 것도 이 마음이 어리석은 것이요, 모든 수행인이 깨달은 것도 이 마음을 깨달은 것이며, 모든 조사가 전한 것도 이 마음을 전한 것이며, 천하의 납자들이 참구(參究)하며 찾아다닌 것도 이 마음을 공부하기 위함인 것을 알 것이다.

이 마음을 통달하면 온갖 것이 다 옳고 대하는 물건마다 온전히 그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음을 모르면 가는 곳마다 잘못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잘못된다.

이 진심의 알맹이는 일체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이요, 또 일체 세계가 발생하는 근원이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영취산에서 침묵하셨고, 선현 존자는 바위 아래서 말을 잊었고, 달마스님은 소림사(少林寺)에서 벽을 향해 앉았고, 유마거사는 비야리성(城)에서 입을 다물었던 것은 다 이 진심의 묘체(妙體)를 밝혀 드러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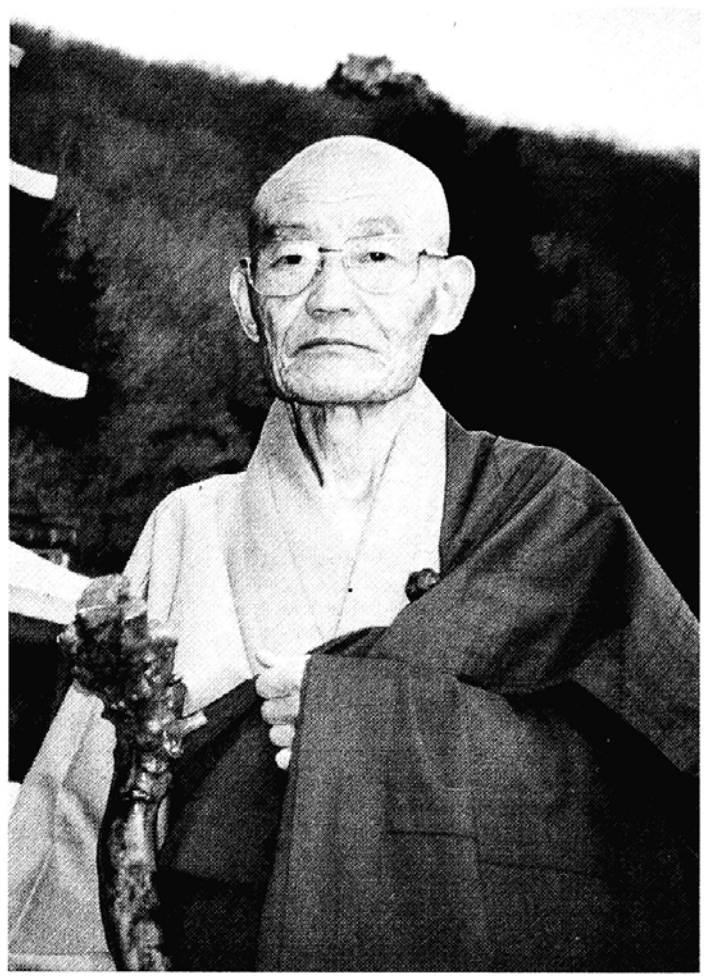
김원각〈시인〉

또 규봉스님은 "마음은 깊고 텅 비었으면서도 묘하고 순수하며, 신령스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자리 잊고 살면

담월스님 〈제천 백련사 조실〉



處世間如虛空 如蓮華不着水
(처세간여허공 여연화불착수)
心淸靜超於彼 稽首禮無上尊
(심청정초어피 계수예무상존)

세간생활하되 허공같이 비워서 걸림없게 하고, 연꽃이 더럽고 깨끗한 물에 젖지 않는 것 같이 하라.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장애되거나 구애받지 않으니, 자기의 부처에게 의지하라.

불자들은 항상 마음의 근본을 밝히고 성품의 근원을 찾는 '명심견성(明心見性)'의 주장자를 불잡고 있어야 합니다. 천지만물은 모두가 마음으로 좇아 건립되고 소탕되는 것이니 청정본연한 마음만 깨닫게 되면 우주와 인생의 근본진리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류의 지상과제도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바로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서삼경을 무불통달하고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울수 있는 천재라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마음이란 넓히려면 허공을 삼키고도 남지만, 좁히면 바늘끝도 꽂기가 모자랍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물질문명만 숭상한 나머지 현실생활에 직면하여 번민과 모순을 느끼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필연적으로 이 세계는 극도의 혼미가 거듭될 수밖에 없고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게 되지요.

요즘은 결제기간인데 왜 이리도 돌아다니는 승려가 많은지요. 조계종단의 문제도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질서가 잡힙니다. 옛날에는 결제기간에 무단으로 돌아 다니는 스님은 때려죽여도 살인죄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안거수행을 중요시한 거지요. 결제기간은 신심을 결속하고 절제하는 금족기간이예요.

불자들은 항상 나의 본심을 잃으면 안됩니다. 마음을 뺏겨 무리에 휩쓸리고 인과를 지으면 아무리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보았자 헛 일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스스로 등져버리고 누구 위해 전전하며 종노릇하고 있는 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상(相)에만 집착하고 진리를 모르면 얼굴을 마주 대해도 천리같이 막히고, 마음을 비우고 도를 알면 천지가 한 집처럼 훤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남들을 탓할 것도 없어요. 모두가 자기들의 과보이고 자기들이 지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백천겁을 지날지라도 지은 죄업은 없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과보를 어김없이 받게되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금생에 자기의 본성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 깨달을 것입니까. 우주의 대도와 진리가 다 마음에 있습니다. 열심히 마음공부 해야 해요.

부처님의 45년 설법이 구름조각같이 많고 빗줄기처럼 많아서 수많은 경전을 이루었고, 여러 고승들의 경전해석이 수없이 많지만 다 옛사람들이 씹다가 뱉어놓은 찌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과 글을 의지해서 마음과 힘을 허비하지만 깨닫고자 하는 주체적인 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깨달음이란 언어밖에 따로 전하며 마음으로 마음에 전하여 곧바로 사람마음을 가르쳐 스스로의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비결은 자기의 마음으로 스스로 닦아 저절로 깨닫는 것밖에는 별 도리가 없어요.

나는 불연(佛緣)을 맺기위해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어릴적에 청양 정혜사를 다녀왔어요. 난생처음 절에 가서 부처님을 뵈었는데 너무나 환희심이 나서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 스님이 돼야겠다는 일념으로 길을 나섰지요. 서울까지 와서 어떤 장돌뱅이가 '스님' 시켜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땡초생활이었습니다. 이성환이라는 분을 양아버지로 삼고 살았는데 저녁에는 다행히 글공부를 시켜줬어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구한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 운명에 속박되어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용기와 인내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단히 노력하면 삶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내마음을 읽고 있던 양아버지의 소개로 함경도 문천 청련사에 들어갔다가 평양 영천암으로 공부하라고 보내서 갔는데 부전생활을 면치 못해요. 영천암에서 4~5개월 겨울을 혼자보내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지스님에게 불공 시식소리를 배웠는데 〈석문의범〉을 한달만에 암송하고 무상계를 10여분만에 다 외우니 주지스님께서 감탄하며 강원에 보내야겠다고 해요. 16세에 영명사에 가서 문풍호스님을 은사로 양청우스님을 계사로 수계를 받았습니다.

강원으로 가기위해 다시 양아버지의 도움으로 평남 중화 고봉사를 찾았습니다. 주지는 김만성스님인데 묘향산 금선대 무영스님의 상좌였습니다. 만성스님은 심한 지체장애가 있는데 보살과 함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냉천에 놀러온 사람들을 상대로 식당까지 운영했어요. 만성스님께 공부하고 싶다며 찾아온 목적을 얘기하니 첫마디에 허락하는 겁니다. 만성스님은 매달 학비로 넉넉하게 10원을 주기로 하고 약천암의 비구니 안경옥스님을 불러 나를 강원졸업시까지 의복과 침구를 대라는 응답까지 받아줬습니다.

강원에 가기전에 영명사 법무스님에게

약력
- 1924년 충남 청양 生
- 1936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월봉화상을 은사로 득도
- 1943년 보현사강원 대교과 졸업
- 1945년 서울 대원강원 수의과 졸업
- 1950년 가야총림 해인사강원 부산 범어사강원 강사
- 1961년 속초 신흥사주지
- 1966년 간성 건봉사주지
- 1970년 서울 칠보사주지
- 現 제천 백련사에 주석
- 저서〈불자요람〉〈불법의 양식〉〈담월스님 수상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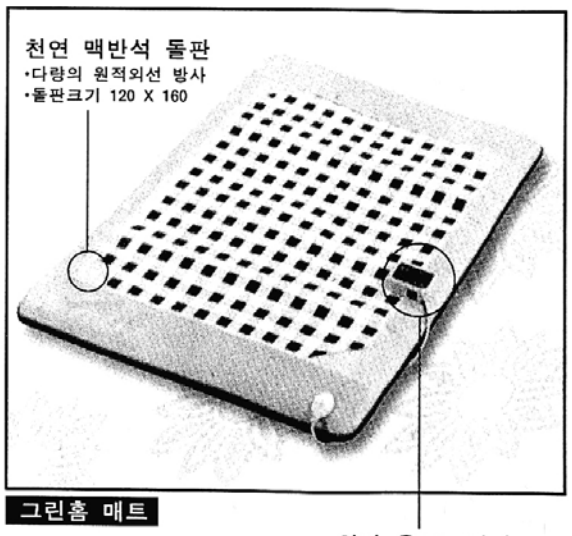
"길어야 백년사는 인생살이 아웅다웅 싸울 시간없어요 언제 깨달을 것입니까"

해·태·상·사·(주)
그린홈 매트
신년맞이 큰 세일 40%

국내 굴지의 수출 선도기업 해태상사(주)가 불자님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건강제품.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돌침대의 건강효과와 침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첨단 맥반석 코팅 방법으로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 다섯가지 장점
♣ 온화한 온열감
- 34M 특수 카본열선에서 제공하는 찜질효과는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 양질의 원적외선 방사
- 원적외선 방사율이 가장 우수한 천연 맥반석만 사용합니다.
- 천연 맥반석을 무공해 돌침대 형태의 특수 코팅 공법으로 제조하여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하십시요.
- 원적외선은 생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 유해 전자파 차단
- 100% 동성분의 동직물로 전자파를 차단하고 조절기로 전자파를 뽑아내 유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합니다.
- 부모님, 임산부, 아기까지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편안한 건강매트
- 국내에서 가장 크고 두텁게 제작하여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합니다.(200×140×50, 2인용)
- 전문 디자이너가 제작해 제품이 산뜻합니다.
♣ 경제성
-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신비의 약돌 맥반석을 사용하여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료가 매우적게 드는 경제적인 건강매트입니다.

사찰을 통한 단체구입 주문 (5장이상)을 받습니다.
- 단체 구입시 샘플을 원하시면 샘플을 보내 드립니다.
- 건강매트 수익금 중 일부는 불교 포교기금(노숙자 지원, 결식아동지원 등)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구입문의: 몰.부다피아 쇼핑몰 02)732-1522
◐ 특판가격: ~~₩660,000~~ ₩398,000
· 사용중 제품에 불만이 있으시면 1개월 이내 반품이 가능합니다.
· A/S기간:1년 TEL. 02)613-8098
해태상사(주) 그린홈매트
제조원 : (주) MCI



큰스님 수행한담

종노릇 못 벗어나요"



◇ 1976년 제천 백련사 주지로 취임하며 사제인 경산·혜소 스님 상좌 법인스님과 자리를 함께했다. 사제스님들은 모두 입적했다. 맨 가운데가 담월스님.

"相에 집착 진리를 모르면 얼굴 맞대도 천리같이 멀고 마음비워 도를 알면 천지가 한집입니다"

"마음은 넓히면 허공도 삼키지만 좁히면 바늘끝 꽂기에도 모자라요"

가서 불교초등과정인 초발심자경문과 대심경을 3개월간 공부하라고 했는데 3일만에 다 외워버렸지요. 그래서 평양에서 1백70리나 되는 묘향산 월림역까지 기차를 타고오며 수많은 다짐을 했습니다. '불구의 몸으로 식당운영하여 학비를 주시는 만성스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자'

묘향산은 이름 그대로 웅장하면서도 묘하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산이었었습니다. 당시 묘향산 보현사는 31개 본산사찰 중 사찰림이 가장 넓었습니다. 주지는 김법룡스님이었는데 조선불교 선교양종 총본산 서무부장 겸직을 맡고 있었지요.

불교강원에 입학했는데 사미 사집 사교 대교과가 있었고 외전으로 사회학을 배우는 외과(外科)도 수학했어요. 강사는 일본 구택대학을 졸업하고 신구학문을 통달한 이문육스님과 박동산스님 김용담스님 양수암스님이었지요. 만성스님은 재적사가 영명사였는데 나의 공부를 위해 보현사 재적승 월봉스님에게 전거하여 제자로 삼도록 했지요. 보현사는 유학승 제도가 있어 공비로 일본유학까지 갈 수 있었지요. 월봉스님은 나에게 "스님은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지요. 은사스님은 원래 기독교 전도사였어요. 하루는 계룡산 동학사의 대강사였던 김만우스님을 전도하러 찾아갔다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발심하여 출가하신 분이지요. 스님은 포교사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후에 신의주와 중국의 연변등지까지 가셔서 포교에 전념하다 해방후 한국으로 돌아와 제주교무원장과 본사인 관음사주지를 역임했습니다. 계행이 청정한 대율사로 사부대중의 추앙을 받으며 열반에 드셨습니다.

대교과를 졸업하고 극락선원에 가서 참선수행을 했습니다. 2년간의 수행은 부실한 몸을 추스리며 보낸 뼈를 깎는 아픔이었지요. 참선수행은 인간자신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확인하여 자립할 수 있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굳건한 터전을 스스로 쌓아올리는 일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먼저 마음과 몸을 고요히 하여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마음을 찾는 참선공부는 종교적 신앙이나 학술적인 논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의심하고 궁구하며 체험해서 깨닫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마음은 형체가 없어서 찾아보려면 새가 허공을 날아간 자리와 같아서 보려고 하여도 볼 수 없고 찾으려하여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후 일본유학대신 보현사에서 서울 안암동에 위치한 중앙고등강원이었던 대원강원 수의과에 보내줬어요. 당시 그곳에는 국내에서 첫째가는 강백이었던 박한영스님이 계셨지요. 스님은 불교학 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학문과 지식에도 능통하였지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당시 최고의 엘리트로 자타가 공인하던 육당 최남선선생이 자기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것이 없는데 박한영스님께는 물어볼 것이 있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형님이 찾아와 10년만에 고향에 갔다가 징병1기로 일본 탄광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탄광은 사람살 곳이 아니예요. 그러다 해방돼서 귀국했는데 대마도 근처에서 배가 암초이 부딪쳐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당시 70여명이 급한마음에 바다에 뛰어들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살고죽는 것은 별 것 아닙니다. 인생 100년은 무상하기 짝이 없지요. 또 이세상이 아무리 넓다해도 달팽이 뿔사이만도 못하지요. 그것을 안다면 더 잘살겠다고 아웅다웅 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산스님은 '만국의 도성은 개미의 집이요, 천가의 호걸은 하루살이와 같다'고 말했지요. 달관과 잡념이 없는 텅 빈 마음으로 우주의 영원함을 생각하면 인생 백년의 생활중에서 옳고 그름을 서로 다투는 것은 얼마나 구구합니까. 세월은 한없이 길어서 끝이 없는데 번거롭고 바빠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일생을 부질없이 지내버리고 맙니다. 천지는 한없이 넓어서 자유로운데 잔약한 인간들은 하루는 방장스님이 오라고 해 갔더니 나보고 강원에서 강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이도 28세에 불과하고 실력이 못된다고 사양의 말씀을 올렸으나 스님은 대중들의 요청이라며 강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됐습니다.

6·25사변이 터지고 수행자들이 부산 범어사에 찾아들었지요. 선찰대본산이며 수계산림 금강계단이었던 범어사에는 동산스님이 주석했는데 누구든지 수좌가 걸망지고 오면 무조건 반가워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거둬들이고 걸망지고 떠나면 몹시 섭섭해 하셨습니다. 1백30여명이 결제를 했는데 운허스님이 〈능엄경〉을 강설하시고 나는 증강을 했습니다.

동산스님의 예불은 백미였지요. 아침이면 대중을 이끌고 부처님이 모셔진 상단에서부터 산신각의 하단까지 참배를 합니다. 저녁이면 하단인 산신각부터 상단의 부처님까지 각 단을 돌아가며 절을 했어요. 아침이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며 저녁이면 해가 있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각 단을 도는 것이 체용의 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미혹에 싸여있기에 눈앞의 오만 상에만 집착하여 도에는 천리만리 멀어지고 탐진치 번뇌가 끊이지 않아서 도에 가깝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중생의 미한 소견으로 볼 때는 우리의 현실생활이 옳게 또는 그르게, 착하고 또는 악하게 보입니다. 아름답고 추함의 경계를 갖고 노여움 즐거움 두려움을 가지며 스스로 천당 지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에서 보면 얻음과 잃음, 모양이 없고 능소와 대대가 끊어져서 너와 내가 따로없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닙니다. 분별심이 끊어져서 누구나 부처의 본성을 보고 언제나 깨끗하고 평등한 불국정토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고 바람은 서늘해서 산색과 물빛이 서로 영롱한 것은 깨달은 자의 경계이며, 안개끼고 구름이 일어 위는 밝고 밑은 어두워 산천의 그림자가 막힌 것은 미혹한 자의 경계입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현덕 〈전자신문 뉴미디어 국장〉

천수경·금강경등 읽으며 하루 시작
'인연을 소중히…베풀며 살자' 다짐

스님은 26년의 기도끝에 지난 95년 부처님진신사리 34과를 길상암에 모셨다. 미얀마 종정 꿈에 동방의 한 스님에게 사리를 주라는 계시가 있었는데 그 분이 바로 명진스님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지성으로 기도를 하였다.

스님은 사람을 만날 때도 누구나 하심(下心)으로 대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았다. 분별심없이 사람들을 대한다는게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스님은 절의 주인은 불자들 이라고 하셨다. 주지(住持)의 주는 주인 주(主)자가 아닌 살 주(住)인 것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다. 스님의 음식솜씨는 일품이었다. 종가집 맏며느리 못지 않았다. 된장 고추장 담그는 일을 비롯해 공양간에서 보살들과 함께 배추도 절이고 설겆이도 했다. 옆에 서 있던 나도 배추를 다듬기도 했고, 설겆이도 거들었다. 절 생활이란게 일을 할려면 끝이 없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자신의 일이었다.



하루 3번 예불하고 때 맞춰 공양하고 피곤하면 한 숨 자고 그러다보면 하루가 금새 지나갔다. 여름 한 철을 그렇게 보냈다. 나는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길상암을 떠나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다.

스님과의 선연(善緣)은 1년 6개월로 끝났다. 지난해 11월 느닷없이 열반에 드신 것이다. 전화연락을 받고 안개짙은 새벽길을 달려 이튿날 아침 길상암에 도착했으나 스님은 어서 오라고 예전처럼 반겨주지 않았다. 그대신 노랗고 하얀 국화 향기속에 묻혀 인자한 눈길만 주셨다. 길상암에 머물때 다음번 불교성지순례를 같이 가자고 하신 약속 불이행에 대한 해명도 없으셨다. 스님육신은 사라지고 이제 사리 61과만이 남아 지난 시절 인연을 말하고 있다.

나는 삶을 한 번 더 사는 것이다. 쓰러지기 전과 그 이후의 두번이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면 불교와 인연은 맺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도 생각도 바뀌었다. 좌우명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로 정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극락과 지옥이 어디 있는가. 바로 내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 마음 한번 달리 하면 기쁨도 슬픔도 사라진다. 인연따라 이 세상에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우리 삶이다.

나는 최근 들어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만남은 얼마나 고귀한 인연에 속하는가. 그리고 가능한 베풀며 살려고 한다. 과거에는 남한테 받을 것만 생각했다.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삶의 여정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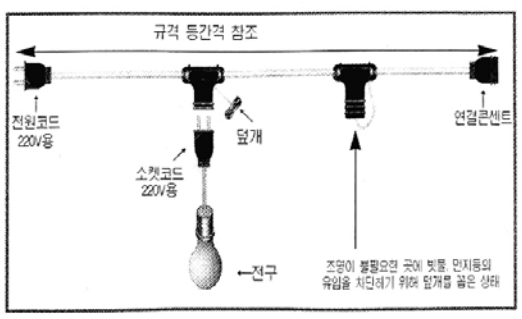
명진스님은 불교는 마음을 닦고 깨우치는 종교라고 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스님한테 〈불자독송집〉을 한권 받았다. 길상암 생활 첫날아침 스님이 요사채 방문앞에 살며시 놓고 간 책이다. 나는 하루를 〈천수경〉과 〈금강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내 마음속에 버티고 있는 탐진치를 쓸어내기 위함이다. 〈금강경〉 중에서도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일체 생명계의 생멸법은 꿈이며 환상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같이 볼지어다)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인데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집착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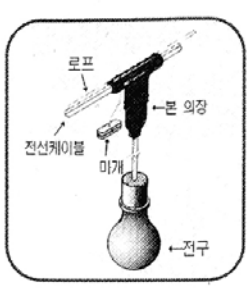
불경을 독송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다. 승용차안에서도 불경 테이프를 자주 듣는다. 이런 일이 잦자 아이들이 우리 차는 '이동하는 절'이라고 농담을 해 그때마다 폭소가 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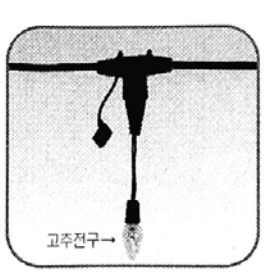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1월이다. 새해 스님이 덕담을 하셨다면 염불일념(念佛一念)이면 재멸복생(財滅福生)이라며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다. 〈끝〉

봉축행사 가로등·법당 기도등용 전기배선

귀의 삼보하옵고, 전법 도생에 여념 없으신 스님의
고귀하신 뜻에 합장 향배 올립니다.







▶ 규격 등간격
· 등간격 30cm, 50cm → 전체길이 25m
· 등간격 1m, 2m, 3m, 5m → 전체길이 50m
· 규격외 : 주문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 등 종 류
· 외부용 : 후로킹
· 내부용 : 팔각등 실크 후로킹

▶ 기 타 주 문
· 본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약속일에 맞춰 제작 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성기획 TEL: 02)3141-3789 / 02)332-3786 H.P: 019)380-3786 FAX:02)322-3785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당뇨 뚱뚱한 사람은 15개월만 복용하면 20kg 이상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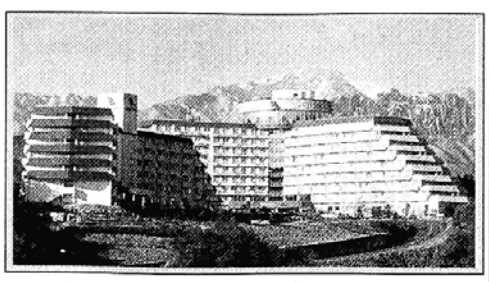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본사 생산제품 -
솔 선 식 (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신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현·대·훼·미·리·리·조·트
290만원대 콘도 이용권 한정 판매



소유개념 보단 이용개념 더 선호 연 30박 15년 회원자격 부여, 7년 6개월 후 전액반환

(주)현대훼미리에서 15년간 사용하고 7년 6개월후 보증금전액(290만원)을 반환하는 IMF식 콘도이용권을 한정판매하고 있다. 년간 3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설악에서 한라(설악, 제주, 해운대, 지리산, 도고, 가평, 승봉도, 부곡, 양평, 경주, 평창, 충주) 그리고 싸이판까지 17개 체인콘도를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며 이번 기회엔 입회비, 연회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

일반콘도회원권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 20년 사용하고 나면 보증금에서 시설관리비 손괴보상비등을 제외하고 절반정도를 반환받는데 비해 이 상품은 구입후 7년 6개월후 보증금 전액을 환불 받고도 향후 7년 6개월간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다. 사계절 휴양지로 이미 각광을 받고있는 현대훼미리리조트 콘도 이용권은 경제성, 안전성, 가족을 위한 생활 레저로 한층 품격을 더해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주)현대 훼미리 리조트
문의 : 02)547-5571

가람의 장면들 ①

이 시리즈는 우리의 불교사원에 대한 건축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흔히 불교건축이라 하면 수덕사 대웅전이나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은 목조기와집 건물을 연상하게 된다. 물론 이들도 불교건축의 소중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들 건물만이 건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건축이란 오히려 건물과 건물들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공간적 관계다. 부석사가 아름다운 것은 무량수전 건물 한 동 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건물들과 잘 조화된 관계, 더 나아가 웅대한 자연과 일체화된 석축과 건물들의 관계에서 오는 감동 때문이다.

이처럼 건축은 전체적이며 집합적이다. 건물은 건축의 부분일 뿐, 건축의 전체가 아니다. 특히 한국의 가람들에서 건물은 하나의 방에 불과하다. 대웅전은 석가모니부처님을 모신 불당이며, 산신각은 산신탱을 모신 작은 방이자 건물이다. 방을 보고 건축이라 하지 않듯이, 대웅전이나 산신각 건물을 건축이라고 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건축은 공간적이며 입체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오로지 감흥과 분위기로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공간적 환경의 감동이 바로 건축의 힘임을 알게될 때, 우리 가람건축의 가치는 더욱 승화될 것이다.

때로는 대자연과 건축의 호흡법을, 때로는 창살 하나에 담겨진 장인들의 숨결을 읽어야 한다.



김봉렬

- 1955년 서울 生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학위 취득
- 영국 AA 건축학교 박사후 과정
-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역임
- 문화재 전문위원 역임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한국건축역사학회 상임이사
- 〈한국의 건축〉 (법주사) (사원건축) 등의 저서와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고문사 건축의 집합구조 연구〉 등 불교건축 관련 논문 30여편



◇안동 봉정사 건축의 백미는 영선암이다. 영선암에는 아래 큰 마당과 위 작은 마당의 연결점에 한그루 소나무가 있어 그 그늘에 의해 두 마당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선적인 분위기를 주고 있다.

소나무 그늘에 담긴 미학

봉정사 영선암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에 있는 봉정사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조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극락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추정하기로는 고려 중기인 12세기경에 건설된 것으로 학계의 인정을 받으니 벌써 900년의 세월이다.

기적적으로 보존된 이 건물의 구조미와 역사적 가치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지만, 순수하게 건축적으로 본다면, 그다지 완성도가 높은 건물이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집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기둥들과 구조부재들은 매우 비경제적으로 보인다.

봉정사에는 극락전 외에도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대웅전, 조선중기의 승방인 고금당, 조선후기의 대방인 화엄강당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건물들이 있어서 '살아있는 아외 목조건물 박물관'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 그러나 각 건물들의 시대적 차이는 전문가가 아니면 감지하기 어렵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주심포계-다포계-익공계의 전형적인 구조형식을 가진 건물들로 학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지만,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저 나무 기둥 위에 기와지붕을 얹은 고만고만한 건물들로 보일 것이다.

법당과 마당 조화
분리-통합의 구조
禪이미지 물씬
영화 '달마가…' 현장

건물들의 구조적, 건축사적 중요성보다 더 큰 봉정사의 매력은 천등산 줄기와 기막히게 얽혀있는 가람의 전체구조일 것이다. 옆으로 길게 펼쳐진 능선에 기대어 앉은 가람은 좌우로 두 개의 마당을 만들며 역시 옆으로 길게 펼쳐진다. 가람은 산 중턱의 높은 곳에 경지를 만들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입구 누각까지는 흠흠한 수많은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계단의 폭 역시 옆으로 길게 펼쳐지기 때문에 급하다거나 위험스러운 느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시 봉정사 건축의 백미는 동쪽 능선 위에 자리잡은 작은 암자인 영선암이다. ㄷ자 모양의 승방건물로 감싼 마당에 작고 초라한 법당 두동이 놓여있을 뿐이다. 건물의 질도 본 절인 봉정사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엉성하고 빈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선암은 한국건축이 이룩한 최고의 공간이며 건축임에 분명하다. 이제는 건축을 보는 눈을 분에 보이는 건물이나 화려한 색상에 주지말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만들어지는 비어있는 공간에 둘 때다. 영선암의 경우 구체적으로 마당이다.

영선암의 마당은 아래 큰 마당과 위단의 작은 마당으로 이루어진다. 두 마당은 세단 정도의 계단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워낙 작은 규모여서 한 눈에 잡힐만큼 붙어있기도 하다. 자칫하면 붙은 것도 분리된 것도 아닌, 어정쩡하고 애매한 마당이 되었을 것을 영선암에서는 분리와 통합을 동시에 획득하고 있다. 두 마당 사이에는 바위가 하나 놓여있고 바위사이에 자란 잘 생긴 소나무 한그루가 있다. 얼핏보면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물인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인공적으로 그 자리에 심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소나무의 형태를 감상하기 보다는 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에 주목해야 한다.

이 그림자는 아래 큰마당과 위 작은 마당의 연결점에 절묘한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에 의해 두 마당은 서로 분리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허상이다. 따라서 두 마당은 관념적으로만 분리되며 실제로는 항상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이처럼 분리와 통합, 실상과 허상을 동시에 획득하는 장치가 작은 소나무 한 그루라니 놀랍지 않은가?

영선암은 90년대초 전세계 영화계의 각광을 받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의 로케 장소로서도 유명하다. 선(禪)적인 모티브를 주제로 삼은 이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배용균 감독은 전국의 사찰을 누볐다고 한다. 감독의 눈에도 영선암은 선적인 이미지와 명상의 분위기로 가득한 곳으로 보였을 것이다.

선사가 손을 들어 달을 가리킬 때, 미망의 제자들은 달을 쳐다보지 못하고 선사의 손가락만 본다고 했다. 봉정사 극락전의 건물에만 몰두하거나 영선암 건물의 초라함을 비웃는 것은 흡사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며 손가락이 길네 짧으네 평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영선암 마당의 한 그루 소나무 그림자를 보는 것은 바로 달의 위대함과 감동을 보는 것이다.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나말여초 조성…안정감 뛰어나

임실 중기사 비로자나불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임실 신평면 삼산동 북창마을에는 천년만에 처음 모습을 나타낸 돌부처가 있다.

중기사는 허름한 시골 집 한채로 구성돼 있는데도 보물(제267호)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 최대 규모의 석등과 파손된 석탑이 남아있어 옛날의 사격을 말해준다.

중기사 비로자나좌상은 1924년 법당 서쪽의 광명저수지 근처에서 발견됐으며 불상전체에 발라진 호분과 채색을 최근에 걷어내 불상의 원형이 드러났다. 이 비로자나불은 전체적으로 가슴이 넓고 허리가 길고 무릎이 두툼하여 안정감있게 조성돼 있다.

가슴 넓고 허리 길어
눈 마멸 왼쪽손 소실
도난우려 골방 보관

머리는 나발이고 눈은 인위적으로 마멸시켰으나 원래는 반개한 것으로 보인다. 귀는 작게 표현되어 있으며 얼굴엔 자비로움이 가득하다.

다시 붙인 흔적이 있는 목에는 삼도가 얇게 나타나 있고 어깨는 둥글고 당당한 편이다. 오른손은 가슴까지 들어올려 주먹을 쥐고 있으며 왼손 역시 가슴까지 들었는데 왼손아래 부분과 왼쪽 팔꿈치가 약간 결실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잘 보존돼 있다.

법의는 양 어깨에 세가닥으로 굵직하게 흘러내리며 양팔과 결가부좌한 두다리 아래로 흘러내린 통견양식이다.

노출된 가슴부분에는 띠주름이 가로지르고 있으며 지권인을 하고 있어 분명한 비로자나부처님이다.

석불문화연구회 고재두회원은 "중기사는 원래 통일신라시대 사찰이었던 진구사로 추정된다"며 "불상도 최소한 1천년전인 통일신라나 고려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리=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돌부처 찾기' 올해도 계속됩니다

불교조각원 협찬…스님 · 지자체 · 답사팀 제보 바라

올해에도 돌부처 찾기운동이 계속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이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 이대의대교수)와 지난해에 이어 펼치는 돌부처 찾기운동은 전국에 산재한 돌부처를 찾아내 역사상을 복원하는 성보지키기 캠페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이 캠페인은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대표 이진형)이 협찬하여 진행 됩니다. 이진형씨는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운 조상들의 땀과 슬기로 조성된 민족문화재를 복원하는 돌부처찾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간절한 불심과 기원이 빚어낸 돌부처는 천년세월동안 민심을 어루만지며 생활속의 귀의처로 자리해 왔습니다.

주위에서 무심코 지나쳤거나 사찰 ·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돌부처가 있다면 본사로 제보(필히 사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국 각 사암의 스님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답사팀,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제보: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22-4162, (02)732-1523

돌부처찾기 어떻게 진행되나

석불제보 접수(내용 및 사진첨부) →
제보내용 자료정리 → 석불연구회선정 답사
→ 정영호박사팀 고증 →
현대불교 월1회 지면보도 → 제보자 통보

불사의 전당

▶유최권음보살상
부처님조성 천불 만불
협찬 불교조각원
서울사무소: (02)738-8447~8
대전사무소: (042)483-8466

2천만의 깨달음을
참 행복 이끄는 신행회 길잡이.
현 대 불 교
지사 · 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안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cm×55cm』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전화: 921~8434 관음출판사 팩스: 929~3470

쉽기 쉬운 분당식
사주학 강의
철학박사 조성우 지음/ 값 12,000원
만물의 생멸성쇠가 지역법칙에 지배되지 않을이 없듯이 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타고난 숙명 그대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보겠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를 회상해 보면 자신이 행해온 모든 것들이 운명이었느냐 할 말못에 의한 인과 였느냐를 가름하기 어렵다.

토정식 백갑비결
新 토정비결
白 民 지음/ 값 7,000원
사람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지난 일년을 되돌아보고 후회없던 일 나빴던 일 각양각색의 삶을 영위하면서 지난 한 해를 결산해 보게 된다. 하지만 같은 일년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 삶는 모두가 남다른 것이다.

비전 원본
고전 唐四柱大典
당사주란 중국에서 유래한 그림으로 사람의 일생을 초·중·말년으로 나누어 십계 개개인의 사주를 보는 법의 하나이다.
아선입 · 전호일 공저 85/296면/ 값 18,000원

사주학 핵심비결
지금 이때 당당하고 힘가 졸리지 않을 때 이력을 점적 보십시오. 당신의 미래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특출.
송월스님 著/신국판/값2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정신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리고 하는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 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김백만 편저/A5신/양장본/값20,000원

古典
풍수학 설심부
우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器)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러지는 것이니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였다.
申 坪 지음/값 18,000원

·근간 예단 명리진평, 명리학과 오운육기론은 곧 출간됩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우리들 법과 부처님법 따로있지 않아

우주법계 줄과 인간근본 줄 직결돼 있어
마음 배우려면 모든것을 마음으로 봐야

여러분한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울땐 따뜻하게 앉아서 법담을 서로 나누는 게 원칙인데 내가 부족한 탓으로 여러분을 춥게해 드려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얼마나 안됐는지 몰라요.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자에 내가 아홉 살부터 떠돌던 그런 생각, 예전에 어떻게 셔츠도 없이 홑것만 입고 돌아다녔는가, 그래도 춥다는 생각도 없었던가, 무엇에 미쳐서 그런 것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추운 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춥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죄송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어떠한 고비도 없이 공부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4일은 입춘이라고 하죠. 입춘이라고 하는 뜻은 어디다가 붙여도 말이 됩니다. 뜻이 되구요. 우리는 형체적인 문을 여는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수에는 입을 연다고 하죠. 우리가 문을 열고 나오면 말을 하고, 말을 하면 음죽거리게 되는 것이 우수·경칩이죠. 그러한 뜻이라고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봄이 오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날이고, 입이 떼이는 날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경칩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껏 뛸 수 있는 그날인 거고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름은 있되, 이름없는 이름이기에 함이 없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름도 그냥 거저 얻어낸 게 아닙니다. 알고 본다면 이름도 참 천차만별의 이름이 많지만, 그 이름대로의 자기의 차원과 자기의 모습이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의 도리를 꼭 공부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즐과 인간의 근본의 즐이 직결이 돼 있거든요. 항상 직결이 돼 있는 마음이, 자기가 마음을 쓰고 행동하고 하는 도리가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주법계에서 다 알게끔 돼 있고 거기서 차원이 정해지죠. 근본에서 차원이 정해지고 근본에서 알고 근본에서 아는 것을 우주법계에서 알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서 미래를 돌아서 현재를 돌아서 오면 현재 땅덩어리에 우리가 있기는 한데, 마음의 근본이 영원히 그렇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돌아오고 돌아가고 돌아오고 돌아가고, 그러니 우리가 사는대로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차원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나온단 얘기죠. 짐승같이 살면 짐승의 모습이 될 것이고, 사람같이 산다면 사람의 모습을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짐승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을 다 놓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에는, 우주간 법계에서 모든 게 자동적으로 인도가 돼서 차원이 높게 모습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고 먹여살리고 이

"이쁘든지 밉든지 죄가 많든 적든 둘로 보지 않고 자기 가족처럼 베풀수 있어야 海印 받아요"

러는 사람으로서 또 형성되죠. 그러니까 팔자운명이라는 것을 누가 준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지고 팔자운명을 겪고, 팔자운명이 없이 자유스럽게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도 내가 만든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광대하고 무변한지 여러분은 마음 공부를 진짜 해야 이 도리를 완전히 터득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하고, 먹고 싶어 해보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라면 몰라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해결을 못하고 맙니다.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융통성 있고 지혜가 있으면, 누가 책에 가르쳐주고 말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요런건 요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조런건 조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이게 다 나옵니다. 마음의 물리가 터지면 그렇게 다 활용, 활용이 아니라 용무를 할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서 보이는 데로, 용무라는 건 보이지 않는데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여는 날이니까 여러분이 되는 거든지, 안되는 거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날이 따로 있고 질문 안하는 날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름이 있는 날이니 우리가 좋은 것만 어떻게 질문하리까. 작고 크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여기에서요, 앞을 내다보는 거나, 우주를 보는 거나 그 거리는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리를 알아야 하며, 또 우리가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도리를 알아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부처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건만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간다는 걸 몰라서 여여한 걸 모르는 거죠. 사람이 마음을 배울려면 모든 것을 이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일새 하나까지도, 그 나무의 가지에 털 하나 난 것까지도 뿌리에 붙어있는 것이지 딴데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일거수 일투족 여러분이 마음을 내고 들이고 가정에서 서로 토론하고, 나가서 토론하고 만나보고 듣고 하는 그 도리가 전체 뿌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저것 아리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척을 보니까 안됐다 잘됐다 또는 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리다, 이건 참 말이 옳아, 말을 하는 게 아주 옳은 일이야, 그렇게 일일이 따져서 생각마시고 처음에 배우실 때는 무조건 잘 된 거든 잘 안된 거든, 밉든 곱든, 길든 짧든, 못났든 잘났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모든 것은 거기에다 놓고 그저 무조건 입력을 하세요, '너만이 헌 물이 새 물로 되게 할 수 있어'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형체가 아니고 정신계이기 때문에 무한량 바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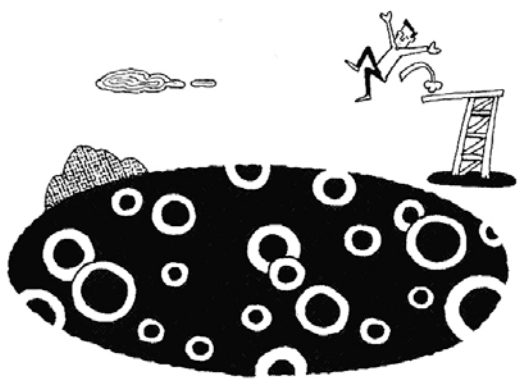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느 집에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 마음공부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값에 싸게 사가지고 들어가게 됐다 하면서 "이런 집을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저 있는 것들은 모조리 만개도 좋고 천개도 좋고 허허허… 십만개도 좋으니 까 몽땅 한 도량에 있는 거, 한 바다에 집어넣듯 그냥, 헤아릴 수 없는 물방울을 한군데다 집어넣어 보라고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물방울이 바다에 들어가면 그냥 바다이지 따로 물방울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 집어 넣어봐라. 그랬더니 이사를 가서 살면서 너무나 좋아하더라구요. 금방 산 사람이 돼서, 또 사람은 되 사람이 돼서, 수레바퀴에 돌려져 가지고 재생이 돼서 나갔으니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착한 사람의 마음 속을 돌아서 한 번 그렇게 본 받아가지고 나갔으니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이 다 녹아져서 좋아지고, 인간의 두려움이 없이 인간의 나쁜 마음 기운이 없어졌죠. 그저 자비하고 인정많고 권위있게 세상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다스릴 줄 알고 이러는 사람이 돼서 나가게 됐으니, 꿈에 고맙다고 백배사례를 하고, '저는 이제 이 의인을 만나서 좋은길을 걷게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잘 사시라고 그러면서 이만한 구슬 하나를 주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이 죽기는 커녕 잘 되니까 집을 판 사람이 배가 아플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값을 더 준대도 안팔고 오히려 집이 낡았으니까 헐구선 다시 집을 짓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물방울이 수 백개라도 수 만개라도 한 물에 넣으면 한 물의 그릇이지 딴 물의 그릇이 없습니다. 또 여기 앉아 있는 분이 다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일불입니다. 일불(一佛)!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법당에 부처님 만불을 모셔놓거나 천불을 모셔놓거나, 이부처님 저 부처님 많이 해 놓으면 머리가 산란해서 공부를 못하죠.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는 신중, 독성, 칠성, 지장, 관세음, 만불이니 천불이니 할 것도 없고, 마구니들도 불 아니게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걱정도 없죠. 산 사람은 모습이 있고 죽은 사람은 모습이 없거든요. 죽은 사람은 모습이 없는 까닭에 모습이 있는 사람한테 와서 몽둥이로 쳐도 보이질 않으니 누가 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치는 사이 없이 치고 매를 맞는 사이 없이 맞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깨우친 사람만 열쇠를 받고, 인정을 받고 해인(海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열쇠를 받는 것도 그런 것을 다 알아서 능통하고 마구니도 둘 아니게 볼 줄 알고, 자기 아님이 없이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게 돼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툭 때려서 못 쓰게 만들고, 또 자기한테 맞지 않고 밉다고 툭 때려서 파산을 시키고 이런다면 어떻게 그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이쁘든지 밉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없든지 둘로 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와 둘 아니게 보고 자기 아픔과 둘 아니게 보고, 자기 부모 아님이 없고 자기 자식 아님이 없고 자기 형제 아님이 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한바다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문을 열고 사시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한 철 사는 것이 오늘 하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공부할 적에 허기가 져서 땅을 엉금엉금 기어가서 흐르는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그 한 모금 마시고 나서는 딱 두 모금을 마시지 못하게 됐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 모금 마셨는데 왜 두 모금을 마시지 못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비호같이 부처님의 채찍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 '한 모금도 아홉 모금이 되고 한 모금이 천년에 천 모금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도 천년이 일초가 될 수 있고 천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천년이 사흘이 될 수도 있고 삼개월이 될 수도 있으니 그대로 없다 있다가 없고 또 모두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없게 된다는 뜻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한 것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엎드려서 물 한 모금 마시고는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다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냥 물 먹기가 아주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정이 나야지, 억지로 의정을 내려고 해도 안되고 억지로 아니내려고 해도 안되고, 그냥 스스로 생활 자체가 그대로 평등공법을 배우는 도량처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는 바빠서 이 공부를 못해요"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한마음이다' 이런 노래를 여러분 잘 부르시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스님이 그런 말을 해서 노래를 하게 했나 하구요. 우리들의 법이 부처님의 법이지 우리들의 법을 빼놓고 부처님의 법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무효예요.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는 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악이 있으니까 선이라는 이름이 나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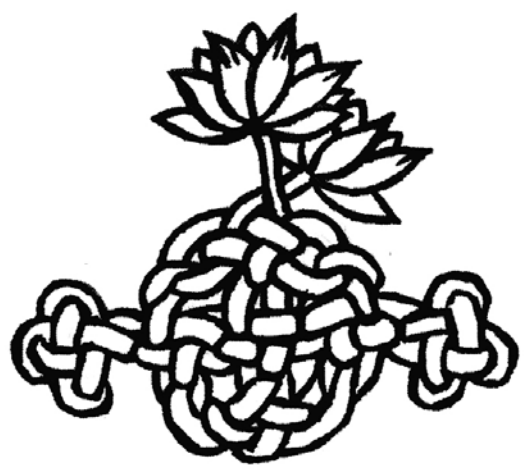
생활 속의 불교 (202)

모두는 나를 위해, 나는 모두를 위해

개별적으로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절대적인 나는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 일체 만물 만생이 도반인 것이다. 한방 식구인 것이다. 천리를 간들 가깝고 멀고가 없이 한 방 식구이다. 나의 한생각이 일체 중생의 생각이고 일체 제불의 생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라고 하는 아집에서 벗어나 한 마음 원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

우주 법계가 돌아갈 때는 항상 너와 내가 없이 돌아가게 되어있다. 일체가 하나의 법망 속에 있어서 상대성 원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했다 해서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와 함께한 것이다. 가령 내가 돈 한푼을 벌었다고 할 때 혼자 번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와 함께 번 것이다. 만약 남이 없다면 어찌 한푼인들 벌었겠는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살리게 되어 있다. 혼자 살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여럿이 더불어 살고 더불어 먹으며 우주와 함께 살고 우주와 함께 먹는 것이다.

이 세상 일 중에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가령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아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으니 스승이 있고, 스승이 있으니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살리니 모두가 함께한 것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지만 그것이 또 월급 주는 상대를 위한 것이고, 그 상대가 없다면 내가 나를 위해 일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하는 말은 내 속에 상대가 포함되어 있고 상대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줄을 모르는 소치이다.〉



미생물이나 식물이 우리에게 마실 공기를 공급해 주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제공한다.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데에 벌써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주고 받으며 먹고 사는 이치가 있으니 어찌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고 있음을 모른다 할 것인가. 나는 남을 위해, 남은 나를 위해 상대와 상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만 보아도 따로따로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입는 것, 먹는 것, 돈 버는 일 어느 것 하나 혼자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생이 다 거들어야 이뤄지는 것이니 모두가 한마음이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주인공에 감사할 일이다〉

만약 지·수·화·풍 이런 것을 다 제각기 구해서 살라고 한다면 한시인들 어떻게 살겠는가. 본래로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사생의 마음이 다 한데 합쳐기에 태양도, 지구도, 우리 몸도 형성된 것이다. 갖가지로 정원 꾸미듯 형성된 것이다.

밥 한 그릇 지어 놓고 고맙다 할 때 어디에 감사하는 것인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씨 뿌리고 들에 나가 일하고 또 거둬다가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많은 일손을 거쳐 내게 이른 것이니 전체가 같이하고 같이 먹는 것이라 전체가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한마음이 아니겠는가. 〈밥 한 그릇 놓고 먹을 때 내가 예를 갖추면 전체가 다 감사를 받는 것이다.〉

모두는 나를 위해 나는 모두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혼자 갈고 혼자 먹고 혼자 입고 혼자 했다고 할 수 없다. 공전·공생이 있을 뿐이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고, 그 없는 것을 갖기 위해 또 있는 것을 주어야 하니 그러기에 이 공부는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며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려나 나 하나만 배우면 된다고 하겠지만 내가 배우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나만 배울 수 있겠는가. 함께 돌아가고 있으니 독불장군은 없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잘살고 못사는 것도 다 자기가 만든일

☞ 15면에서 계속

온거지 악이 없다면 선이라는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악이 있으니 선이라는 이름을 빛나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선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악도 같이 둘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아야죠. 모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남을 위해서 사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되는 것도 질문하시고 아니되는 것도 질문하세요. 한 전깃줄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전깃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오신 것이 줄이라면, 여기 본래 있는 줄하고 맞붙어서 불이 들어왔을 뿐이지 내가 해 준것도 없고 여러분이 한 것도 없이 불이 들어올 뿐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름을 짓되 내가 한 것도 없고 네가 한 것도 없느니라. 그 반면에 내 마음 네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다.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생각을 잘 해서 나쁜 이미지를 한 번 굴려서 바꾼다면 헌물이 새물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내가'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생입니다. 공생(共生)! 여러분 공생 아닙니까? 공한 공생의 개체, 그리고 공심의 개체 말입니다. 개체는 하나인데 공생·공심·공용·공체·공식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고 공덕이라고 하죠. 공양은 우리가 한마음이신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으신다 이런 겁니다. 한마음으로서 둘이 아니게 반야즐을 쥔다면 그게 바로 공덕이 되느니라. 안에도 더불어 같이 한가음이요, 밖에도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니 자리마저도 한자리이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말로만 그렇게 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한 지구 아래 서로 하나가 빠져도 아니되리만큼 전부 서로 도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하는 사람이 있고, 저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하는 사람이 있고, 지게꾼이 있으면 또 짐을 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입니다. 요즘은 이사해주는 차가 생겼다는데 이사 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사차가 생긴 거죠. 이사차가 있으니까 이사할 사람이 생기고요. 일체만물이, 아니 미생물에서 부터 다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겁니다.

난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산에서 말입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가랑잎을 웅덩이에다 넣고는 그 속에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야! 참 희한하구나! 우리같이 못나고 못생긴 사람은 다 없애고 좀 잘 생기고 잘살고 복많은 사람이나 태어나서 잘 살게 하지, 보기만 해도 흉칙한 벌레들, 뱀들, 짐승들은 왜 보게끔 이렇게 나와서 세상천지에 돌고 있나' 하고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추운줄도 모르겠고 밤을 꼬박 새고서 나오니깐 아침에 웃음이 나요. 내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며 남들이 미쳤다고 하겠지 하는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성한 사람도 아니고 허허허… 자기가 자기를 알기 위해 그렇게 수난을 겪지 않으면 길을 모르죠. 그 수난을 겪은 게 양식이 되고, 재산이 되고, 공덕이 되고 그런 거죠.

이런 얘기 그전에 내가 한번 했죠. 지금 광명사 마당이 그전엔 밭이었거든요. 그 땅 사기전에 밭을 일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밭에다가 깨를 그냥 담뿍 심었는데 참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깨를 심어 놨는데 그냥 진딧물이 온통 생겨서 깨농사를 망치게 생겼어요. 농사 지은 게 다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벼도 시원치 않고 이러니 일곱식구가 다 굶어 죽겠다고 노인네가 그래요. 그래서 관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 깨 자리의 진딧물도 전부 주인공 너만이 없애게 할 수 있어' 하라고 가르쳐 줬더니 맨날 그걸 믿구요. 왠만한 사람 같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거. 그런 걸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순박하기가 한량없지, 그걸 믿구선 그렇게 했더란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빨간 점이 있고 풍뎅이 같이 생긴 게 그냥 함빡 앉아서 진딧물을 다 빨아 먹더니 그냥 훌쩍 날아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깻조 자리가 되 살아나게 되니까 '야! 이거 참 희한하구나!' 그래 가지구선 다른 것도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해에 농사가 잘 돼서 참 오막살이라도 우리가 조금 보태준 거 하고 겸해 집을 사가지고 나갔죠.

그러한 문제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해 드리죠. 이 몸속에 의식들이 지금 말로 따진다면 입자라고 본다. 입자가 나가서 어떠한 고통을 받는다해도 다 그 속에 자기로 들어가서 조절하고,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마음을 그렇게 내면 그렇게 따라주고, 마음을 그렇게 안 내면 안 따라주고, 즉 마음을 내는 대로 따라준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묘한 법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식구를 이끌어가고 내 조상을 이끌어가고 내 자식을 이끌어가고, 세세생생에 돌에다 세워놔도 살 수 있게끔 이끌어 가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으니까 앞서의 수 억겁을 거쳐나오면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게 현실에 또 잘 생각을 해서 주인공에다 다 맡기니까 그게 새로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 된다면 바로 팔자운명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다 흩어져 없어지는 거죠. 새로 입력 들어간 것만이 현실에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형편이 좀 펴나가고 그렇게 싸우던 것이 싸워지지 않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처음에는 그걸로 자꾸 자꾸 체험을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모두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리를 알고 있어야만 급할때 쓸 수 있겠죠. 들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했다면 급한데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잘 안하고 그러다가도 급하면 하게 됩니다. 생각나게 되거든요. 사람이 내 모습없는 나의 마음에 즉 체없는 '나'가 정 급하면 그 속으로 투입이 됩니다. 내가 그랬죠? 다른 혹성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될 때에는 언제라도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머리가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대로 거기다가 집어넣어야만 고쳐지는데 본인이 정신이 없어서 못할 때에는 주변에서라도 자꾸 집어 넣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앞서 혼란되게 입력된 자체가 없어지고 새 입력이 들어감으로써 새 물로 바뀌죠. 마음으로 고장난 건 마음으로 고쳐야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북을 두들기고 목탁을 치고 굿을 해도 그건 아마도 점점 그 쪽에선 못방귀 뀌고 그 쪽에선 더 할겁니다. 그러니 이 공부가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악한 귀신이다 할지라도 그 착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얼싸 껴안고 "야! 너는 본래부터 나쁜 게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서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써 싸안아 준다면, 그 마음이 일순간에 녹아져서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읽어보니까 너무도 잘못한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가 되죠. 진짜 자비는 그런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사랑 사랑하지 진짜 사람을 한다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보기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끼리끼리 만난 인연들이거든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도 살아보시지만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를 하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모여서 논의하고 이러죠.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어떻게 우연이 있습니까? 한 가족이 도이는 것도 사과는 사과대로 모이고, 금은 금대로 모이고 은은 은대로 모여서 살고, 구리는 구리대로 모이게끔 돼 있거든요, 넝마는 넝마대로 모이고. 그러서 세계가 지역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계에다 넣고 큰 것 작은 것 고르고, 썩은 것 성한 것 고르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전부 따로따로 끼리끼리 놓고 팔고 사고 그러죠. 그러듯이 사람도 차원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서 그 차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골라져서 미국에 태어나는 사람있듯이 한국에 태어나는 사람있고 말입니다. 또 풍족하게 사는 나라, 굶어 죽는 나라 이런 것도 엉든요. 이렇게 한다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하늘이 무너진다는데 먹고 다 쓰자 이러는 사람앞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다 써버리지만 허허허… 소꼽장난을 하다가 날이 저물면 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좋은 일 하고 살면 그 값어치가 더 들어오면서 사람 살기가 유하고 또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겠죠.

기독교에서도 불바다가 된다 뭐 다 죽는다 하는데 제가 스물 몇살부터 그러던 건데 여지껏 그래요. 왜 그러냐? 그것이 모습이 그렇게 변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불바다가 되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네 마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들이 그래서 불바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본은 불(佛)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중심이 없어지면 그것이 정말 불바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심사숙고 한다면 어떤 거든지 내가 아니되는 게 없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지구나 인간이나 모두 수명이 있지만 사는데까지는 그냥 여여하게 살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살다가 간다는 표시를 몇 년씩 앓으면서 옆에 사람 고생시키고 소문을 내고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옷 벗기전에 자리를 마련 해 놓고 새 옷을 입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죠. 이렇게 좋은 법을 어찌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픈 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여러분도 경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죽지 않아도 항상 고통을 받고 지겹게 아픈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럭하고 살면 뭘 합니까? 이러고 살면 뭘하느냐고 입으로 몇번씩 외우면서도 그걸 겪어야 하지요. 그렇게 겪는 그 자체가 너무나 지겨워서 때로는 약을 먹고라도 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나 그럭하면 뭘 합니까? 이사갈려면 집 먼저 사놓고 이사를 가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옷을 훌훌 벗고 가면 아픈데서 고통받지도 않을거고, 이 세상에 자기가 마음대로 차원과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겠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善도 윤회의 원인되는 이유

문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작은 선이라고, 착함이라 그랬는데요. 그게 생사에 윤회하는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 우리 몸뚱이는 생명체가 공생으로 같이 더불어 사는 한 개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다, 선이 아니다 이런 것이 둘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없이 작용하는 것을 용무라고 그랬어요, 용무. 즉 말하자면 공법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둘 아닌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선심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선심으로서 둘 아니게 건질 수 있다는 거죠.

문 그러면 큰스님께서는 도를 이루시고는 이 세상에 나오셔서 모든 분을 위해서 포교활동을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런 것도 다 생사에 윤회하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어서…

답 만약에 '나'라고 하지 않아도 그러한 도리를 깨닫게 되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또 내가 깨달았다는 것도 없고 했다는 것도 없어요 지금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없다 이 소립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은 항상 둘이 아닌 까닭이죠. 이 한 지구덩어리 안에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쭉 있지만, 우주에도 별성과 더불어 블랙홀이랄까 이런 큰별이 하나가 되는 게, 적은 별을 낳고 큰 별이 생기고 이렇게 자꾸자꾸 껍데기를 갈아가면서 우리 인생살이 살듯이 그렇게 되거든요. 수명이 길고 짧고 이런 게 좀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렇게 깨달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예요.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당신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따로 따로 있지 않아요. 더불어 같이 그 생명들 때문에 자기가 움죽거리게 됐고, 보게 됐고, 듣게 됐고, 먹게 됐고, 만나게 되고, 가고 오게 되고 그런 거죠. 물 한모금을 마셔도 혼자 먹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 먹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음도 윤회도, 윤회라는 언어도 팔자라는 운명도 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뜨듯한 방에서 지금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할려고 나오는데 여러분은 추운데 섰으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몸둘 바가 없이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도 따로따로 본다면 그런데, 함께 본다면 나는 좀 먼저 추운데서 살았고 여러분은 좀 나중에 추운데서 섰을 뿐이예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모두 측은하고 친근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서, 한마음으로서 묶여져서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자비로서 마음의 향기를 뿜고 서로 응하고 돌아가는 거죠. 나 혼자만 내내 뜨듯한 방에서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속임수나 쓴다면, 그것은 이 온누리가 다 그냥 짓이겨져서 가루를 만든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그전에 했어요. 추운데 있으면서 뭐를 생각했느냐 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깐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악하고 선한 것도 없고 그렇게 되다보니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보니까 스님네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겪었던 그 숱한 고난들, 중국에서 인도로 가면서 죽어 넘어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면서 공부하는 스님네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길을 가다가 쓰러졌는지 나는 그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루를 만들어 뿌려서 그 분을 다 위로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 내가 죽어서 그렇게 할 수만… 고생하고 못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없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가루가 되리라'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죽어서 가루가 됐어요.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 하듯이, 가루가 돼서 일체를 다 두루 뿌려서 해도 그 자리에 떡하나는 되남듯이 그 뜻을 알겠어요? 그러니 스스로 알게 공부 열심히 해요.

하여튼 사람마다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겠지만 너무 극치적으로 안달박달을 하고 살지 마세요 모두. 좀 너그러우세요, 인생은 한 철이에요, 한 철. 우리는 인생 한철을 아주 급급하게 살죠.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살고, 또 망망대해에 배 띄워놓은 것과 같이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망망대해에 가다가 빠져죽든 살얼음판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엎어지든 그런 거 상관할 것 없이 몽땅, 자기는 그냥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 그냥 다 맡기고 편리하게 놓으세요, 그냥. 그저 라면 한 그릇을 먹으나 밥 한그릇을 먹으나 하루살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그래요. 밥을 한그릇 떠주나 또 누룽지를 반그릇 갖다주나 먹기는 마찬가지에요. 뭐 그거 별 다른거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거 해먹자, 더 좀 맛있는 거 해먹자 이러는 마음이 그게 파단을 일으켜요. 그냥 생기면 생긴대로 우리집에 들어왔으면 들어온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또 가면 가는 거 잡지도 말고 오는 것도 막지도 말고, 생긴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거죠.

물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만물만생이 다 물속에서 살아도 다 집이 돼주고 끝없이 흘러가면서 유유하게 흘러가는 날 보고 살아라, 나 같이만 살면 뭣이 걱정이냐 이래요. 산은 산대로 산 같이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요, 묵묵히. 그런다면 뭐 걱정이에요.

> "한철 사는 인생
> 물같이 유유하게
> 산같이 묵묵히
> 살아가면
> 걱정할 일 없어"

찬불가 부르면 눈물이 나요

문 제가 선원에 온지가 한 9개월정도 되는데요. 언제부턴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여기 와서 삼귀의나 청법가·산회가 이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옆에 처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은 엄숙한 자세로 노래 부르는데, 저만 이렇게 또 흐느끼고 울 수도 없고 참 민망합니다. 눈물흘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전자에 누구나가 다 사람같이 살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겠죠. 지금 이 몸을 가지고 나오기 이전에 말입니다. 그것을 정신계라고 하죠. 그래서 노래를 하다가 그 이치를 들으니까 예전에 내가 그렇게 공부하던 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처사님 자체는 몰라도 자기 주인공만은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면서도 속으로는 흥겨워서 흐느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댁에서 지금 찾고 있는 그 장본인이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주어진 거니까 그 주어진데다가 되입력을 하면 입력된 자체의 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걸 들으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무량해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저 마음이 편안하다면 우세요. 우는 건 댁에서 우는 게 아니라 눈만 빌려주고 마음만 빌려줬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외국에 가봐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막히면 경전을 찾더군요. 나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부처님이나 수많은 선지식들이 고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불법을 말씀해 주셨고, 경전이라는 것을 내서 우리들이 그래도 껍데기나마 보고 마음을 공부할려고 노력하니까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한 지구안에서 살면서 네 종교 내 종교 따지고는 있지만, 한 지구안에서 우리가 함께 산다 하더라도 차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각자의 차원은 각자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어떤 차원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집중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세요.

협찬 주인공

안달복달 하지말고 좀 너그럽게 사세요

마음중심 잃는게 바로 '불바다 종말' 의미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의단요법 · 무료시술

치료비 전액무료

TEL : 0552-585-8118 · 8128
H. P. : 011-559-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암, 중풍, 당뇨등

오랜세월 민초들의 삶속에 전해 오던 치료의 비방을 연구 집약하여 최단시일내에 체질을 전환시켜 완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저 합니다.

다솔 민방 연구원
0431)292-9090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틀심과 정성으로 보살펴드리는

간 병 인 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 환자 간병 - 산모 도우미
◇ 12시간 (주간, 야간)
◇ 24시간 (상주근무)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 강 좌 •

자미두수교실

신령스러운 자미경의 저자 김석훈 선생의 자미두수 수강생 모집.
★자미두수란★ 동양의 점성학 · 북극성(자미)을 중심한 남북두의 벌로 인간의 미래를 내다보는 학문

동서점성학 연구실
☎(02)3413-0232,1
※개인상담 문의도 전화 바랍니다.※

중국 정통 한방 입문 강좌 회원 모집

본 동우회는 원서 원문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가르침.
· 교재는 원문을 알기쉽게 풀이한 번역서 임
· 교재내용: 상한론(일명고방) 금괘요략(후세방)
· 기 간 : 상한론(6개월) 금괘요략(6개월)
· 대 상 : 1) 한방 기초를 터득하려는자
2) 한방을 체계있고 심도 있게 배우려는자
3) 정통 한방을 배우려는 자
· 자 격 : 1) 스님, 법사, 포교사 2) 불교 교양 대학 수료자
3) 일반불자' 지방에 게시분은 통신교재 강좌 후 월 1회 특강을 실시함.
· 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1매
· 수강일 : 매주 월, 수, 금(오전, 오후, 야간)
· 특강 : 난치성 질환 처방 공개
· 강사 : 한방 20여년 연구 정진중인 현오스님

한방고방동우회
02)980-2177/02)987-2176/011)772-2177

불교 수맥 강좌

1. 신비의 추 사용
2. 현장실습
3.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4. 수맥관련 상담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 · 불광사, 승가대학 교무처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39번지)

전통불교의식 확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습의>
반야심경, 금강경<10폭 병풍> 사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학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구 인 •

공양주 보살 구함

약 수 정 사
0543)954-6194~5
011)501-2219

작은 도시 변두리에 지대한 불심으로서 사찰불사를 합니다.

평생의 도반이 되어 수련탁마에 뜻이 있으시거나 물적이나 심적으로서 도움이 되어 주실 스님이나 불자님을 한분 모시고 싶습니다.

탄휴 합장
0563)335-0092

절 운영 맡겨 주실 분

기공치료 및 침술환자 치료에 아주 능통한 스님
MBC TV 에 기공시범이 방영된 스님
원각 011)871-9092

불자 보살님 한분 모시고 싶습니다.

절에서 수행 도반이 되어 마음공부 하면서 하와중생의 뜻이 있으신 보살님은 연락 주십시요.

충 북
011)776-4070
혜 명 합장

• 수련원 •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기 타 •

기적의 피라미트 파워

기공연구회
(代) 02)
455-6944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회향암
혜월당 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 달마보급 선양회
죽림사 0525)345-9494

벽지 ◑ 바닥재 버티칼 · 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출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201-1470
019)369-8000

황토 찜질선방 개방

모은사 주지 현공 스님이 직접 황토벽돌을 만들고 신비스런 향토찜질 선방을 지어 불치병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72-1
0593)854-8551
주지실 0593)854-8555



전화:
02) 446-2446~7
만사형통 신비의 달마상 선착순 접수
자녀 합격여부 및 사업계획 취업 승진 사주 궁합 작명등 육효로 100% 알 수 있음
(지하철 5호선 당나루역 1번 출구)
수석역학 원장 이수정

현대자동차 신차판매 안내

스님과 불자님들의 차량문제
"믿고 맡겨 주시면 불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 : 원응 곽영순
대표전화 : (053)627-6616
휴 대 폰 : 011-509-9456
호 출 : 012-494-6181

사주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진로선택등
▶ 강의기간: 주2회
▶ 강의시간:
오전반, 저녁반도 있음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02)713-4852~3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하고 그외도 조각 장여부연이며 40미터 이하는 거의 육송을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진관사 승가사 용화사 옹주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연사 보광암 비봉사 현재 은선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 사찰안내 •

사찰 운영안내

◇위치 : 노원구
◇범당 : 23평 ◇요사 : 26평
◇부지 : 52평
◇가액 : 2억 5천만원
◆지방사찰 교환가능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귀 달마사

◆사주 : 대운 · 행운 · 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예약 달마사 철학원(달마스님)
02)442-3545

포교당 임대

◆부산 최고요지: 약 50평
◆보증금: 1천만원(월40만원)
◆시설비: 2,300만원
◆방 3칸, 주방, 법당, 창고, 사무실, 금동삼존불, 에어컨
◆시설 A급
051) 441-6773
011)825-1662

사 찰 안 내

◆위치 : 공주시 신풍면 백용리
◆부지 : 2,030평(명당자리)
◆특징 : 병풍같은 산이 뒤에 둘러싸여 있으며, 전기, 전화선 가능, 도로인접, 공주 · 천안에서 승용차로 20분거리, 지하수 완비
◆수행정진하실 스님이나 불자님께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042)822-3864
011)494-2750(근암스님)

寺, 꼭 필요하신 분

◆ 울산 경주간 7번 국도변 분지형의 길상지
◆ 법당, 산신각, 요사3동(방사12),옥외 석조대불
◆ 경내지 350평, 매가 절충가능
◆ 향후 발전가능성 많음
0561)775-0545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창녕읍
◆대지: 430평
◆ 전 : 76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3동, 5층석탑
아왕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좋은 위치(잔디가 깔려 있음)
◆가액 :3억
0559)533-6321

사찰(급) 안내

◆위치: 서울 노원구
(전철역 2분거리 버스정류소 2분)
◆실평수: 대지 65평
(서울 APT내에 위치 건평 100평)
◆2층 -법당 / 1층 -요사채
◆가 액: 3억 5천(융자 1억 2천만원)
02)3391-4845
011)752-4842

사찰(급)안내

◇위치 : 장호원 시내에서 차편 5분
(서울 약1시간대)
◇대지 : 438평
◇총건평 : 83평
- 법당, 사무실
- 요사채 방13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5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
※ 직접면담(급매) ※
0336)643-9051
012)925-6118

인연 있는 스님이나 불자님 한분 모십니다.

큰 스님의 다리불편으로 인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경주 토함산을 마주보고 있으며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솔 송림에 둘러 싸여 있는 등 자연의 미를 볼바위가 조화된 도량, 약사도량, 기도도량 좌선등, 기운도량. 입주 즉시 법회 가능
■사찰명:경주 무학산 성불암 토굴
■대지 : 200여평(산신당+용왕당)합1개
■건물 : 대웅전 내 방2개, 주방 , 전체 기름 보일러 목욕 샤워시설, 주차장 완비 전세금 200만원, 답사후 절충
052)252-8377
011-543-4275/017-558-3450

사찰(급)안내

◇ 위치: 충주지역
◇ 산세수려, 지장기도도량
◇ 대지: 약 1천평 ◇전: 850평 (총 1,850평)
◇ 법당: 주산포 목조건물 24평 (단청된 법당), 산신각(목조건물) 8평(단청됨), 종각(단칭) : 1층 -스라브 10평 일주문. 2층 - 종각목조 4평
◇ 범종이 천관 ◇ 요사채-스라브건물 40평, 조립식 18평, ◇금액4억(상담후 조정가능)▶필요한 분만 전화요망
0561)746-3510/017)366-7905

좋은 위치, 최고 시설의

귀 포교원 양도 안내 귀

◇ 위치: 경기도 부천 신도시
◇ 평수: 약70평, 5층 (큰법당, 방3개, 큰주방)
◇ 가액: 6천3백(절충가능)
◇ 특징: 시설 A급, 옥상사용가
017)391-2826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법당 : 33평 ■ 요사 : 65평
■ 부지 : 5,00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전국의 사찰 포교당 다량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大불사 가능지)

■위치:팔당댐옆(경관수려) 올림픽대로 4차선 예정 도로접
■학교 폐교건물 1동 외 건물1동
■대지:400평 잡종지:530평
■임야:1000평(내 건축허가 1동 대지 200평 가능)
■가액 : 17억(절충가능)
※토지 확보후 임야 50,000평 상당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 가능한 위치임
011)244-0433/0347)794-1141

사 찰 안 내

승주 원각사
◇대지: 580평 ◇전: 240평
◇법당: 20평
◇요사채: 29평(방6개),식당방(4개)
◇매매가 : 약 5억 5천만원 (절충가능)
전남 순천시 서면 대구리 915번지
0661)755-5885

사 찰 안 내

◇ 평수: 답 900평
◇ 특징: 전기 전화 도로가 다 완성되어 있고 앞에는 강이 내려다 보이고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 가액: 평당 8만원
0527)353-2449

포교원 운영하실분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동
◆평수: 3층건물(3층) 50평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45만원,전세 5,000만원 가능함)
◆시설비: 3,500만원(절충가능)
◆특 징: 시설완벽함.
법및 행사 즉시 불수 있음. 전철역 3분거리 교통편리 주변 APT 주택 밀집지역, 대나무으로 수작업한 나한님 216분 모셔져 있음
02)939-3647 / 02)720-5876
012-341-3647

포교원 안내

◆위치:강동구 길동 시장통
◆19년 역사 포교원
◆방 · 법당 · 부엌 · 화장실
◆가격: 3천2백만원, 월 60만원 (가격절충가능)
◆스님의 개인사정으로 급매
011)201-2561
02)482-4550

◆ 토굴팝니다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방 3)
◇ 가액 : 3천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 전기 미설치
0594)862-6199
015)5962-696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2천 5백만원 (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사찰건축 및 목재 안내(전문)

· 사찰 건축 · 사찰조경 · 단청 · 목조주택(한옥,황토집)
사찰 목재 안내 ※한국에서 마지막 원시림(육송)다량확보
♣ 대웅전:12평, 20평, 24평, 34평, 54평, 108평을 지을 목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대웅전 기둥: 1자, 1자 3치, 1자 5치, 1자 7치, 1자 8치, 2자 2치까지
♣ 대원목: 말구 1자 이상:24자, 30자, 36자, 42자 까지
♣ 서까래: (연목)12자, 15자, 18자, 20자, 24자
◈ 대웅전 설계, 조감도 그려드립니다.
⊙ 불사하실 스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0371)762-3938
011)735-4168
(주)천운 나강민 합장

포교원(급) 안내

◆소재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774번지(시내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조건: 대지 98평 내 목조 기와 단독 주택(등기 있음)
◆방4칸, 방범창 설치, 법당(임법당)1칸, 삼존불 탱화4점, 보일러실 및 욕실 1칸, 현관 및 넓은 마루 있음. 창고 및 화장실 1동
◆급매특가:3천만원(법당시설 일체포함)
상기 동일 소재지내 775번지 대지 93평(법당부지) 등기 있음. 특별 매가 8백만원
-774,775, 2필지 총 3,800만원
0451) 641-7569/011)401-8529

포교원 안내

◇ 위 치: 부산 온천3동 수도포교원(최고위치)
◇ 건물: 30평
◇ 가액: 전세5천, 월세가능 (시설비 일체포함)
051)503-0177
011)320-9355/018)311-3744

포교원 안내

◆위치:총신대역 시장통 사거리
◆평수 : 15평
◆법당 : 지장보살님 1불, 약사여래불 1불,중합탱화, 산신1분, 살림가구 일체
◆가격 : 500만원(월 40만원 (전세도가능 - 2,500만원)
◆시설비 : 3백만원(절충가능)
02)592-8849/011)611-8849
(무속인 및 보살님 상담환영)

사찰 운영하실분

◆ 위치 : 경북 의성
◆ 부지 : 1,800평
◆ 법당 : 10평 (반목조) 단청 필
◆ 요사 : 25평(목조) 단청 필
◆ 시설 : 시설일체 무상 기증
◆ 가격 : 1억 8천만원
◆ 특징 : 수려한 경관과 청정유려한 강을 끼고 있는 훌륭한 기도 및 포교 도량으로 포장 도로에서 200m 접한 교통환경과 주차장 완비되고 미륵바위와 석간수 생수가 솟는 거북 바위 및 150m 지하수 시설을 갖추고 있음. 유구한 전통의 영험있는 정법도량으로 입주 즉시 법회를 할 수 있음.
※ 전국에 소재한 사찰, 사찰부지,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 즉시 연결하여 드립니다.
해 동 불 사 담당:이처사 합장
직통 전화 상담 : 02)351-4458 / 019)390-6110

불자 세상보기

인도 명상가 마하리시 '99년 지구촌 전망' 인터넷 발표

경제난 심화…전쟁 우려

불교의 눈 "준비된 미래는 불안하지 않다"

99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다가올 시간은 불안과 설레임이 교차한다. 세계적인 명상가 인도의 마하리쉬 마헤시는 19일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의 99년을 전망하며 "올 한해는 커다란 도전과 극적인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소치는 다니야는 말한다. "나는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일 비를 내리시려거든 비를 내리시옵소서."〈숫타니파타〉 다니야처럼 준비된 자의 미래는 불안의 그림자가 아니다.


◇마하리시

다음은 마하리쉬의 99년 전망 요지.

▲경제와 정치

경제는 5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확대되고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등 다소 양호한 상태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재정 분야는 금융시장이 붕괴되거나 세계은행이 곤란에 빠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5월부터 8월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강화돼 주식시장도 다시 침체에 빠지며 세계 경제는 5월부터 2000년 여름까지 거대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경제동맹이 깨지며 실업이 연말까지 증가하고 식량부족 사태도 전망된다.

여성들의 활동이 더욱 신장되어 고위직에 많이 진출하며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소한 한 명의 세계적 지도자와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여성이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다.

적대국들은 더욱 공격적이 돼 전쟁발발 상태까지 이르게 되며,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세계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후반기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유민하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할 것이다.

▲과학과 정신

교육분야와 젊은 세대층에서 영적 지식과 고급학문을 배우려는 욕구가 늘어나며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기술적 학문에 대해 관심을 보일 것이다.

유전공학 분야에선 올해 놀랄만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며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특히 파동현상·복사에너지·정교한 조직의 비교창조학 분야에서 발전이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의 일부 개념이 사라지며 의식과 물질 그리고 우주의 상관관계를 전체로서 이해하는 데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가운 변화들은 5월부터 2000년 여름에 걸쳐 집중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과 오락

컴퓨터·TV·위성과 같은 전자·통신 시장은 호황을 누릴 것이며 출판물·신문·잡지의 발행이 증가한다.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며 영화·테마공원·게임·음악과 같은 오락산업도 번영하게된다. 관광산업의 붐도 예상되나 비행기 충돌·열차사고·대형 충돌사고가 일부 있을 것이다.

▲건강·자연재해

이혼률이 증가하고 유아사망률이 늘어나 가족생활은 다소 나빠질 것이다. 전염병의 출현도 예상된다. 화산폭발·지진·기상이변·태풍·산사태·홍수 등이 일어날 것이며, 그 피해는 지난 해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7월 이후엔 운석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11월 중순과 12월 말 사이에는 또한 청소년 폭력범죄가 발생하는 시기이다. 11월 중순과 12월 말 사이가 올해 최악의 기간이 이며 이러한 상황의 개선은 2000년 중반까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어 3년간의 긍정적 기간이 시작될 것이다.

"보살은 보리도를 수행할 때 길을 잃은 중생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며, 길의 와석(瓦石)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건너야 할 물이나 험한 곳에 다리를 놓으며, 어두운 곳을 위해 등불을 단다." 〈대집경〉에서보듯 험난한 세상 중생들의 다리가 되고 등불이 돼주는 보살행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이다

번역=박래철 기자(rcpark@buddhapia.com)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꼴"

국회의원 25명 그린벨트 땅 소유

건교위 소속 의원 5명도 포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관련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국 각자 그린벨트내에 모두 2백91만m2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그린벨트살리기국민운동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백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인 25명이 그린벨트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4명, 국민회의 7명, 자민련 4명이며, 이중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이다.

한나라당의 정재문의원은 울산과 경기도 남양주에 1백29만m2, 같은 당의 권기술의원은 1백27만m2의 임야와 전답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모으면 의당히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다. "자신이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않고 남들에게 베풀되 법도를 잃지 않으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리라."〈잡아함경〉

청소년 첫 흡연 갈수록 연소화

청소년들의 첫 흡연연령이 낮아 지고 음주·흡연률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7일 펴낸 분석자료에 따르면 흡연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들의 첫 흡연 연령은 중학교 남학생이 평균 12.9세로 ▲인문고 남학생 15세 ▲상업고 남학생 15.7세 ▲공업고 남학생 14.5세 보다 약 두살 가량이 앞섰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와 흡연으로 징계를 받은 시내 중·고등학생은 모두 1만1천254명으로 지난 97년의 6천579명보다 무려 4천675명(71%)이나 늘어났고 특히 고등학생은 7천35명으로 97년(3천371명)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성희롱 예방 10계명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남녀직장인 10계명을 발표했다.

10계명은 △음담패설을 삼가 △평소 동료간에 존칭을 사용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회식 때 술 시중이나 블루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돕는다 등이다.

생활정보

납골당 신축 융자지원

장묘 연건평 2백30평 이상의 납골당을 새로 지을 경우 7억원까지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30기 이상의 납골묘를 설치하거나 종중·문중·가족묘지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때도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납골시설 융자지원 계획을 20일 발.

융자 조건은 연리 6.7%에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융자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0일.

설 선물 예약 30% 할인

생활 백화점에서 설날(2월16일) 선물을 미리 예약 구매하면 5~30% 할인된 값으로 원하는 날짜에 무료 배달해 준다.

△한신코아: 2월6일까지, 할인율 10%. 배달은 2월8일부터 원하는 날짜. (02)590-7284 △현대: 2월6일까지, 할인율 10~30%. 패션 잡화 완구류. (02)547-2233 △미도파: 27일까지, 할인율 10% 갈비, 토종꿀, 과일, 커피, 젓갈 등. (02)950-2274~7

국립중앙도서관 야간 운영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밤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도서관'이 개설돼 2월 1일부터 운영된다. 예약신청은 전화 02-537-9446, 팩스 02-596-9887, PC통신-천리안 go library, 하이텔 go lib, 인터넷 홈페이지-www.nl.go.kr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인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본부장 조영황 변호사)가 18일 출범했다. 26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지원본부는 언론보도피해 상담 전화(02-732-7319)도 개설.

라디오 독서 프로그램 다양

방송 청소년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비롯 각 방송사에는 출판 관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EBS FM 104.5㎒ '책과의 만남' 토요일 오후3시~3시40분 △KBS 제1라디오 AM 711㎑ '책마을산책' 일요일 낮 12시15분~오후2시 △KBS 제2라디오 AM 603㎑ '라디오독서실' 일요일 오전6~7시 △SBS FM 103.5㎒ '김영수의 책하고 놀자' 월~토요일 오후4~5시

목 통증예방 한국형 베개

건강 한림대학 강동성심병원 재활의학과 박동식교수팀이 최근 '한국형 베개'를 개발. 이 베개는 부채꼴 모양으로 부드럽고 탄력이 좋은 폴리우레탄을 사용. 또 잠자는 자세가 변하거나 뒤척일 때도 베개가 밀려나지 않도록 설계했고, 에어펌프로 높이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론

아잔타 석굴서 배울 점


홍사성
〈불교시대사 주간〉

아름다운 조각과 회화로 유명한 인도의 아잔타석굴이 발견된 것은 1819년 한 영국군 장교에 의해서였다. 서부데칸고원의 말발굽 모양의 석벽을 파고 지은 29개의 이 석굴사원군은 스투파를 안치한 차이티야와 비구들의 주거처인 비하라로 구성돼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1, 2, 9, 10, 16, 17굴의 벽화는 웅대한 스케일과 섬세한 터치로 부처님의 전기와 전생담을 묘사한 불교예술의 보고다. 그러나 이 석굴사원을 발견한 뒤 정작 사람들이 놀란 것은 무려 6백여년이나 계속된 석굴사원 조영불사 자체였다.

마우리야 왕조 말기인 기원전 1세기부터 시작해 굽타시대를 거쳐 바카타카왕조까지 계속된 이 불사는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역사였다. 이 기간동안 당시의 불자들은 수많은 난관을 이기며 대를 이어서 석굴을 파고, 아름다운 스투파를 봉헌했다. 이들의 긴 안목과 뜨거운 신앙적 열정을 생각하면 저절로 옷깃이 여며진다.

> 600년간의 불사
> 균형-조화 '극치'
> 오늘의 사찰불사
> 타산지석 삼아야

이 석굴에서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불사계획의 치밀함이다. 6백여 년에 걸쳐 계속 진행된 불사이고 보니 기술적 양식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전체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불균형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하나의 굴은 독립된 아름다움과 전체적 조화가 장관을 이룬다. 여기에 굴원을 지었던 사람들이 앞사람들이 계획한 종합적 설계와 균형감각을 매우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사방식은 중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의 옛날 절에서도 발견된다. 국내외의 손꼽히는 유명사찰들은 모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지어진 것들이다. 안동의 봉정사, 영주의 부석사와 같이 오래된 사찰의 건축은 건물 하나하나의 건축적 아름다움은 물론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아도 조화와 균형이 고려된 배치가 매우 돋보인다. 불국사나 해인사가 아름다운 것은 건물이 크고 많아서가 아니라 도량에 필요하고 어울리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옛날 사람들의 안목이었다.

이에 비해 요즘 우리 나라 사찰들의 불사행태를 보면 옛사람들이 가졌던 균형과 조화의 감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법당은 산신각 수준으로 초라한데 요사는 고래등같은 건물을 짓는가 하면, 주변 환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멘트 양옥이 올라가기도 한다. 어떤 절은 누각이 지나치게 화려하고, 어떤 절은 종각이 다락처럼 높다. 아무 곳에나 노천불상을 세우고 무조건 화강석재로 장엄을 해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심지어는 앞사람이 지은 것을 뒷사람이 뒤집는 식의 무분별한 불사도 있다. 이 같은 마구잡이 불사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보자는 현대사회의 물량주의와 관계가 깊다. 또 임기내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려는 관리책임자들의 공명심도 한몫하는 것 같다. 이로 인해 생기는 낭비도 무시못할 정도다. 이러다가는 전국의 모든 사찰이 균형과 조화를 상실한 불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올해를 '건축문화의 해'로 정하고 건축에 문화적 향기를 입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바라기로는 이를 계기로 불교계도 '불사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두고 각 사찰의 무분별한 불사추진을 조정하고 지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제 우리도 불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공간수요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뒤 차근차근 추진하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 독일의 쾰른성당은 750년, 이탈리아의 밀라노대성당은 250년, 파리의 노틀담대성당은 200년이 걸려 완성됐다고 한다. 우리나라 절에서도 대를 물려가며 건축사적으로 남을만한 기념비적인 불사를 하고 있다는 자랑을 들어보았으면 좋겠다.

'99 학년도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1989년 설립된 불교 전통 의식 교육대학에서는 범음·범패, 요잡 작법 및 예경의식 등 불교 전통의식을 보다 높이 계승 발전 시키고져 하오니 뜻 있는 스님, 포교사 및 불자님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 산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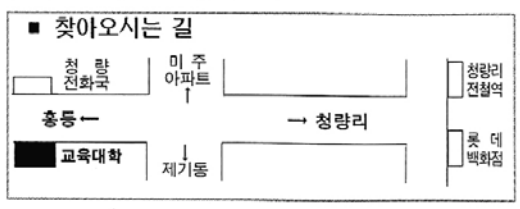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추천서
4)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5회(월~금)
▶ 접수일자 : 1999년 1월 27일~3월 7일
▶ 개 강 : 1999년 3월 8일

■ 찾아오시는 길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종립학교 청년단체

튀는 홈페이지 '눈길'

멀티미디어 시대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에 눈이 즐겁고 신속함도 돋보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교계 종립학교와 청년단체에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디자인과 색상이 톡톡 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이어 개설하고 있어 화제다. 지금까지 개설된 홈페이지는 은석초등학교, 동국대학교, 경기청년불교연합, 청년정토회 등 총 32개.〈도표 참조〉

이들 홈페이지는 소개, 게시판, 대화방 등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행, 교리 그리고 경전 정보도 얼람할 수 있다는게 특징.

영남대 불교철학동아리 '법륜학회'서는 교리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고, 봉원사 반야청년회와 조계사 대학생회에서는 신행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다. 또 금정중학교는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로 이용하고, 대불련 구경북지구와 부산지구는 대학생 MT와 북한동포돕기에 각각 활용하고 있다. 국민대 불교학생회는 대화방에 스님을 모시고 온라인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생불교연합회의 김정일 정보통신간사는 "컴퓨터와 모뎀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라며 "학생·회원들의 스속감과 신뢰감을 증대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청소년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멀티미디어 시대 새 포교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석초·불청회등 32곳 인터넷 서비스
디자인·색상 독특…법회·교리등 볼거리

불교학생회와 청년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학생과 회원들의 관심이 잘 나타나 있다. "인터넷을 통한 학교간 결연도 있었으면…"(은석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는 청소년들이 국제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금산중학교), "홈페이지에서 먼 곳의 법우와 편지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설했으면…"(부경대 불교학생회) 등이 그것.

정토회 김나영 정보자료간사는 "불자 어린이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인터넷 열풍'이 멀티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포교방법으로 정착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홈페이지 개설뿐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스스로 연구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접촉, 보충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종립학교 및 청년단체 홈페이지

학교·단체명	주소
은석초등학교	http://eunsuck.eunsuck-e.ed.seoul.kr/
금정중학교	http://www.kumjong-m.ed.pusan.kr/
해동중학교	http://www.pusan-o.ed.pusan.kr/htm/kor/
능인중학교	http://www.taegu-o.ed.taegu.kr/ed5/ed5-2-2.html
금산중학교	http://edunet.nmc.nm.kr/channel1/blkh/main.htm
청담고등학교	http://high.unitel.co.kr/high/seoul/chung-dam/
광동여자고등학교	http://high.unitel.co.kr/high/kkd/kwangdong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위덕대학교	http://www.uiduk.ac.kr/
불교문화대학	http://www.dongguk.ac.kr/DGUH/Kyungju/Bud/
충남대 불교학생회	http://hanbat.chungnam.ac.kr/~bud/
국민대 불교학생회	http://kmul.kookmin.ac.kr/~kbh/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생회	http://wwwk.dongguk.ac.kr/~buddhist/
성균관대 불교학생회	http://www3.shinbiro.com/~buddhism/home.htm
중앙대 불교학생회	http://cau.ac.kr/~neos.super/
아주대 불교학생회	http://madang.ajou.ac.kr/~little
부경대 불교학생회	http://blue.nownuri.net/~hyuri
대구교육대 불교학생회	http://www.shinbiro.com/~whim25
동국대 불교학생회	http://www.shinbiro.com/~dongbul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http://plaza1.snu.ac.kr/~panya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http://biho.taegu.ac.kr/~dbltk
서일대 불교동아리	http://mt.netian.com/~info106
영남대 불교철학동아리 법륜학회	http://chunma.yeungnam.ac.kr/~j8060177
봉원사 반야청년회	http://www.shinbiro.com/~bubkwang/
경기불교청년연합	http://myhome.netsgo.com/lhksyj/
조계사대학생회	http://www.cuniv.org/
청년정토회	http://rs.jts.or.kr/home/youth
한마음선원	http://myhome.netsgo.com/wontalee
전국청년연합회	
하심회	http://my.netian.com/~acs98/index.html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http://soback.kornet21.net/~kbuf-ps/
불교청년회	http://www.hitel.net/~hr623/
한양대 불교학생회	http://campus.hanyang.ac.kr/~hbc/menu/homeindex.html

명사들의 건강비결 ③



김 종 서 〈서울대 명예교수〉

교육학계의 원로 김종서박사(77세, 서울대 명예교수, 前교육개혁위원장)는 건강도 교육하듯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로 정평이 나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관리의 관건이라는 그는 20여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조깅을 해왔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조깅이 아니라, 독실한 불자답게 〈금강경〉을 암송하면서 뛰었다는 점이 바로 건강비법이라는 것.

김박사는 20여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반포동으로 막 이사와서 반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었고, 약 3~4년 후 고수부지가 생기고나서는 고수부지에서 뛰었다. 이때부터는 부인 정인상여사(68세)도 함께 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김박사 내외는 고수부지에서 〈금강경〉을 합창하며 뛰었다. 김박사는 외국 출장 때도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아침조깅을 위한 운동복일 정도.

20년간 금강경 외며 조깅
육체·정신건강 함께 얻어

"이젠 나이가 있고 해서 2년 전부터는 뛰는 것은 부담이 된다 싶어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어요."

97년부터는 부인과 함께 집 근처의 현충원 경내를 빨리 걷고 있다. 그래서 〈금강경〉 암송도 3독이나 할 수 있게 됐다고.

매일 아침 6시15분 대문을 나서면 6시30분에 정확히 현충원에 도착한다. 경내를 한바퀴 돌고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른다. 이렇게 걸린 시간이 약 1시간. 정상에서 약 10분간 체조를 한다.

"아침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보람은 네 가지나 됩니다. 우선 아침시작을 부처님과 같이 한다는 것이고, 둘째 〈금강경〉을 3독 하게 되니 현충원 안의 호국영령들을 위령하는 공덕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이 선한 행동으로 쌓여지니 정신적으로 더욱 좋고, 마지막으로 신체 건강해지니 결국 1석4조가 되지 않습니까."

김종서박사는 특유의 큰 웃음을 짓는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절에서 천자문 배워요"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주지 최월해)가 방학 동안 문을 연 한문서당에 2백여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해 성황. 한문서당은 3년 전부터 여름과 겨울방학 때마다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포교를 겸해 시작됐다.

구랍 28일~23일까지 매일 오전 9시~10시 초등학생반과 10시30분~11시 30분 중고생반을 지도해 온 정우스님은 "절에서 천자문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한층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 한문서당을 적극적인 포교방편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문화사업 전개

월요강좌·주부교실·연꽃캠프등 시행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송묵)가 불교레크리에애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18일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월요정기강좌와 주부문화교실, 방학중 청소년문화교실 등 사업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실력있는 불교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양성을 위해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과정과 불교학교지도자강습회 등 전문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 연꽃캠프 개최와 연4회 거리포교를 통해 불교레크리에이션의 저변확대와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불교레크리에애선포교회는 전국적인 활동을 위한 지부결성도 추진키로 했다.

부산 양정청소년회관 29일 문화의집 개원

부산 양정청소년회관(관장 범산)이 문화정보제공과 체험, 창작활동 등을 지원할 청소년 문화의집을 29일 오후 2시 개원한다.

청소년회관 1층과 3층 일부 시설을 개축해 총295평 규모로 마련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종합안내실과 상담실, 문화전시실, 영화관람을 위한 다목적 홀, 인터넷 정보검색실, 열린도서실, 비디오오디오 감상실 등을 두루 갖추고 지역 청소년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톡톡해 해 나갈 계획이다.

불우노인에 무료투약 서불청 탑골공원서

서울불교청년회는 불자약사회 보리회와 2월 7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탑골공원에서 무료투약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실직자와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검진과 약조제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02)730-9108

불교학생회 경상지역에 절반이상 분포

청소년 포교지 '법보' 조사…전체 534곳

불교학생회 창립과 활동이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포교지 〈법보〉(발행인 정완석) 875호 소식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불교학생회는 사찰불교학생회가 318개, 학교내 특별활동 불교반이 216개로 모두 53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이 138개(25.8%), 부산·경남지역이 158개(29.5%)로 절반 이상이 경상도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강원도가 10개로 가장 적었고, 서울이 86개, 광주 전라 64개, 대전 충청이 35개, 인천 경기 22개 등이다.

불교학생회는 76년부터 85년까지 10년 사이에 전체의 47%가 창립됐고, 90년대 중반부터는 불교학생회 창립이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사찰보다는 학교 불교학생회 창립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단신

경주 파라미타 예술제

파라미타 경주지회(지회장 종광스님)는 21일 오후 2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창립 2주년 기념예술제를 봉행했다.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파라미타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실시한 이번 예술제에는 지역불자와 청소년 5백여명이 참가했다. (0561)774-9605

진주 파라미타 수련회

파라미타 진주지회(지회장 동봉스님)는 23일~24일 산청군 관음정사에서 1박2일 일정으로 99년 진주지역 불교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가졌다.

"밝은 세상, 청소년 세상, 부처님 세상"을 주제로 선체조, 발우공양 등의 수련과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위한 토론회, 천체관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충북·강원 학생회 합동수련

충북 청주시 관음사는 26일~28일 2박3일간 충남 서산시 공군기지 법당에서 중고등부 등 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에는 관음사 학생회 소속회원들과 충북 혜능보육원 원생, 강원도 원주군 법웅사 학생회 회원, 청소년불자연합회 회원 등 1백여명이 동참한다. 1080배 정진, 촛불의식, 자자와 포살, 서산지역 불적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0431)256-6254

대전 청소년봉사센터 특강

대전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방학을 맞은 지역내 청소년을 위한 특강과 탐방활동을 전개한다.

청소년 특강이 28일 대전 평송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되고, 2월7일에는 향토사료관, 보건대 박물관 등을 탐방하고 주변환경 정화에 나선다.

016 PCS 최저가격·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PCS 016 정보!

PCS 016
1000分
무료통화 대축제~

■행사기간 : 99년 1월 22일~2월 20일(30일간)
■행사대상 :
- 추천고객 : 99년 1월 22일 현재 016을 사용중인 고객(이용정지 고객은 제외)
- 추천대상고객 : 기존 고객에게 추천을 받아 행사기간중 신규가입한 고객 (중고단말기 가입고객, 프리폰/렌탈폰 가입고객 제외)
■행사내용
- 추천받은 고객이 행사기간내, 016에 신규가입할 경우 무료통화 160분을, 추천해주신 고객께는 무료통화 최고 200분을 드립니다. (5명까지 추천가능)
- 추천받은 고객은 추천일 다음날부터 행사종료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무료통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당일 가입시 무료통화 혜택 없음)

※ 016에 가입한 고객끼리의 추천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SPH - 6010



"Fashionable 디자인"

· 최대 390분 연속통화 / 150시간 통화대기 (대용량 배터리, 슬롯모드 2 사용시)
· 매너기능(원터치 진동 전환)
· 한글 / 영문 SMS 서비스 기능
· 음성다이얼 가능
· 바로 전화걸기
· 국번없이 걸기 · 전자계산기 / 스톱워치
· 대화형 문자정보 서비스 지원
· 삐삐 호출시 자기번호 송출기능

●크기 : 108mm×46mm×23mm
●무게 : 94g
●표준형 배터리 기본채용
●색상 : 금색, 진은색
※소용량 / 중용량/ 대용량 배터리 별매

사은가격: ₩75,000 (가입비 분납)

문의:02)732-1522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옷. 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부다피아 쇼핑몰 선정
구정 선물 상품 특선

순금 경전 카드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원력이 항시 지켜드릴 것입니다.
각 사찰이나 단체에 맞는 별도의 도안과 글씨도 가능 합니다.

순금 99.9%

가격 : ₩ 15,000


S0090014


S0090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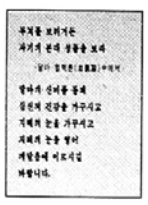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순금 페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순금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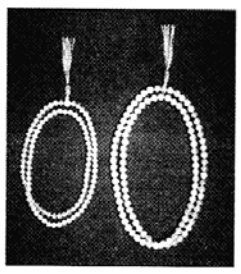


S0090003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붙아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순금99.9%
●크 기 5.2㎝ × 7㎝

가 격 : ₩ 20,000

건강 옥 염주



옥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몸에 지니면 기를 발산하여 고혈압, 두통,소화불량,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보석에 버금가는 대단한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

종 류 청옥 ·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생광석 108염주


S0010008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 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골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활신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여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크기 :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S0090002

열쇠고리, 향로, 차걸이



단주 열쇠고리

S0010020(경정돌)
S0010021(밤색돌)
S0010022(투명돌)

종 류 검정 밤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S0010007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낱개 ₩ 9,000)

* 금색종, 검정색종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서옹 큰스님의 불(佛)자를 공예작가 범오선생이 동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소장하시면 큰스님의 맑은 기운을 느낄 실 수 있습니다.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 50,000

S0030004

법성게 걸망

S0010009 S0010010



S0010011

크기 : 500×460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인터넷 불교 백화점 부다피아 쇼핑몰이 새로운 모습으로 99년 1월 6일 개점 했습니다. 싸고 다양한 불교 용품과 더불어 각종 정보란, 천불전 사이트 법당등 쇼핑을 하시면서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십시오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원산지:중국 가격 ₩ 98,000

수암옥의 특징

- 세계적 유명옥은 곤산옥(신강성),초산옥(호북,삼양), 수암옥(요령성)이 대표적인데 그중 수암옥을 2300여년전부터 내려와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한나라 이전부터 그 진가가 알려져 세계 최고의 옥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불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옥구패'가 수암옥으로 판명되고 있다.
- 고려사 보우스님편을 참조하면 명나라 황제가 딸 노국공주를 고려 공민왕에게 시집보낼때 제일 귀중한 예물로 수암연옥으로 만든 옥대를 만들어 보내며 공민왕의 장수를 빌었다는 기록이 있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골동품형 S0020001
개금형 S0020003
브론즈코팅형 S0020002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가격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580,000 (개금)

- 재질 100% 청동
-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4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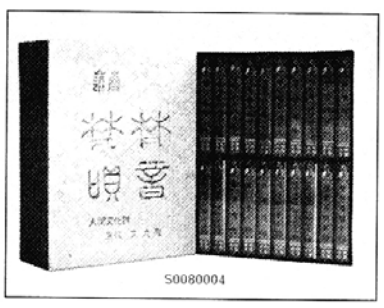
반야심경 자개 경판



크기 73 (가로)㎝ ×23 (세로)㎝

가격 : ₩ 700,000

문구암스님 범음 · 범패집


S008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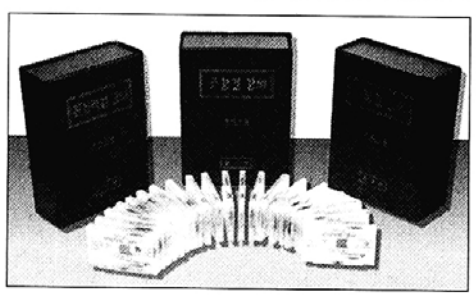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1. 불공의식 2. 삼신이운 3. 신정청 · 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 · 거목 6. 대령 · 관욕의식 I 7. 대령 · 관욕의식 II 8. 대령 · 관욕의식 III 9. 영반 · 부칭소리 · 대천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 지장청사 II 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전시식 17. 배송 18. 운심게 19. 법사이운 · 명전절한 20. 중성 · 천수작법 · 오잡

가격 : ₩ 50,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응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일까?
· 체질이란 무엇인가?
·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사상의학이란?
· 체질 감별법
· 자신의 외모,심성,병증으로 체질 진단
· 체질병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 체질에 맞는 심성이란?
·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보약
·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 과일,해물,차 등
· 건강 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대 사상의학회 회장 그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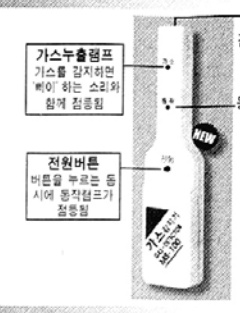
가격 ₩ 70,000 (가방 포함)

S0090012

가스누설 감지기(휴대용)

가스누설 감지기 하나면 우리집은 안전해요.

특징
· 비누거품을 이용한 불편한 점검방법 개선
· 휴대용이라 가볍고 초보지도 쉽게 작동(초소형 초경량)
· LPG, LNG, 부탄 에탄 수소 등 가연성, 폭발성 가스만을 감지
· 가정 및 업소 식당, 택시, LPG차량 등 사용범위가 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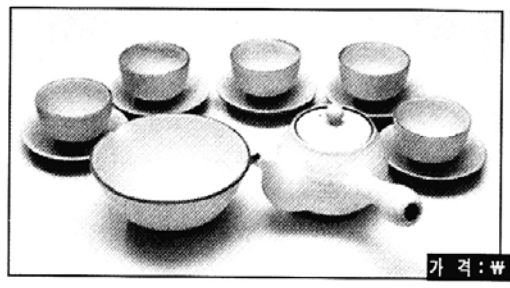


규격
• 정격전압 3v • 소비전류 20mA(max)
• 크 기 3.5㎝(가로) ×16㎝(높이) ×1.95㎝(두께)
• 색 상 화이트 • 중 량 39g

가 격 : ₩ 39,000 (건전지 별도 가격)

※98년 12월 부터 각 방송, 신문 보도

고산다기



가 격 : ₩ 120,000

거산죽염

선조들의 비전 비방

죽염은 우리 선조들이 애용한 보약(건강염) 제조 비방에서 전래된 것으로 성영유지의 필수불가결한 염(염성)을 강화시켜 주고 인체내에 부족하기 쉬운 각종 천연미네랄이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는 신비의 건강염입니다.


S0090013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작설차

(지리산 야생 수제녹차) 지리산 화개동 청정지역의 맑은 이슬을 머금고 자란 야생 찻잎을 정성껏 채취하여 수천년동안 이어온 전통 제다법 그대로 빚어낸 최고급 수제(투할) 녹차입니다



우전 : ₩ 80,000 중작 : ₩ 60,000 (2통 1세트)
세작 : ₩ 45,000 대작 : ₩ 40,000 (2통 1세트)

홍삼

세계적으로 그 효능을 인정받는 우리의 홍삼 진귀한 홍삼의 효능에 각종 한방 원료를 농축하여 만든 홍삼 대보정은 현대인의 건강에 활력을 드릴수 있는 홍삼 농축 액기스 제품입니다.



가 격 : ₩ 98,000

원산지 국내산
제조회사 개성인삼 협동조합
중 량 60ml×50포입

쑥 액기스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먹어라" (중국 철학자 맹자)



-백병에 3년 달린 사자탈 악쑥 액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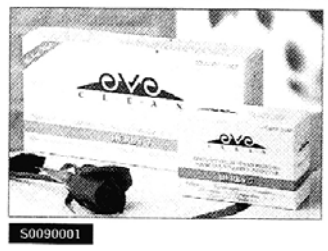
가격 : ₩ 50,000
(100g×60개입)

S0090011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으며, 술 많이 많이하는 남성은 더욱 좋습니다.
- 약으로 쑥탕의 느낌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기술제휴 한의학 박사 한택원(韓澤元)한방병원장)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S0090001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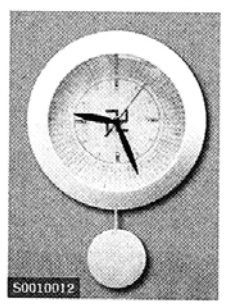
- 독특한 향 - 부드러운 촉감 + 미흡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택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유공하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 초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을 중심으로 인체 오염원 제거에 뛰어나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작용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천연생장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나가 및 놀내에 산재한 각종 유해 중금속합지 및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다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 김천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시 부는 이중효과뿐아니라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고무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순재료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처세대 이이다이 삼품이다

육바라밀 벽시계


S0010012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부처님의 말씀 육바라밀과 보왕삼매론을 시계에 접목시켜 디자인하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가정에 두시고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수 있는 기회가 되실것입니다.

· 육바라밀 생사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은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 정진(精進) · 선정(禪定) · 반야(般若)라고 하는 여섯 가지 실천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0개이상 주문시 원하는 경전문구 삽입 및 디자인 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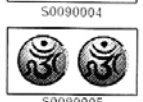
색상 백색원판에 4도칼라
크기 200×260×60㎜
원판내용 육바라밀 보왕삼매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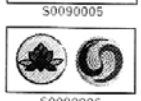
가격 ₩ 15,000

강력한 신소재 전자파 제거장치




S0090004


S0090005


S0090006

인체의 뇌파는 미세한 마이크로 웨이브 이지만 핸드폰은 900메가 헤르쵸의 전자파를 발산하며 뇌종양 유산등의 범을 유발합니다. 본 제품을 붙이기만 하면 안심!! 핸드폰을 들고, 붙이기 전에 오림테스트 해 보고 붙이고 나서 오링테스트 해 보시면 깜짝놀랄 정도로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커릴리안(KIRILIAN)이 유해전자파를 흡수 용해합니다.

모든 전자기기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용도 휴대폰, 헤어드리이기,컴퓨터,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TV 믹서 등과 수력과
규격 2개 1세트

가 격 : ₩ 9,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내부그림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특승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아니라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색상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55㎝(가로) 140㎝(세로)
재질 후로킹
특징 변색이 없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법회안내

혜산스님(반야사 주지)매월 음력 1일~3일 오전 10시 30분 신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0356)85-0531



대혜스님(선산 원각사 주지) 매월 1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 매월 1일~3일 오전 10시 초삼일 특별기도법회. 매월 둘째 금요일 밤 10시 정진법회. 매월 세째 일요일 오전 10시 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중고등부법회. 2월 4일 오전 10시 입춘기도법회. (0546)481-2363



초격스님(광명선원 주지)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신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인등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기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기도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거사림법회. 매월 네째 일요일 가족등산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문사수학생법회. (02)584-1108



지도스님(대구 보현사)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청년회법회. (053)254-6966



김재일법사(동산반야회 회장)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동산법당 신중기도법회.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성등 동산선원 가족법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동산법당 정토법회. (02)732-120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월27일 (수)

■선원사 종합예술제=강화 선원사는 오전 10시 태연스님(일본 고려사 관장) 초청법회 및 종합예술제를 실시한다. (032)933-8234

■국민회의 대구경북연등회 창립법회=대구경북연등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용택)는 오후 3시 대구은행 본점 강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 대구경북연등회 창립법회를 개최한다. (053)654-0055

■종범스님 초청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중앙승가대 교수 종범스님을 초청, 1월 다보법회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진행한다. (02)703-0108

1월28일 (목)

■삼매체험 선 수련회=원명선원 참선생활운동본부는 31일까지 3박4일간 출가본분각성 삼매체험 선 수련회를 개최한다. (064)755-3322

■지현스님 초청법회=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지구는 오후 7시 지현스님 초청법회를 연다. (053)255-3941

1월30일 (토)

■화엄회 용맹철야정진 법회=실상사 화엄회는 저녁 7시부터 화엄학림스님들과 함께하는 제11회 화엄회 용맹정진 철야법회를 봉행한다. 신심있는 불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671)634-3031

■길상사 주말수련회=길상사는 31일까지 1박2일간 99년도 제2차 주말수련회를 실시한다. 주말수련회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마련됐다. (02)3672-5945

■금강정사 학생법회 '마애불 등대지기' 예술제=광명시 금강정사 중고등부 학생법회는 오후 4시 '마애불등대지기'를 주제로 제4회 예술제를 연다. 연극, 풍물, 합창, 콩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연된다. (02)893-2700

1월31일 (일)

■기림사·골굴암 사찰순례=경남 진주불교회관은 경주 기림사, 감은사지, 골굴암 일대로 제13차 사찰순례를 떠난다. (0591)747-0108

■마이산 탑사 순례=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진안 마이산 탑사와, 문화예술의 고장 전주를 순례한다. 마이산에 오르면 이갑용씨가 쌓아올린 80여기의 탑을 감상할 수 있다. (02)725-1284

2월1일 (월)

■홍련암 철야기도 및 낙산사 참배=용진신행회는 강원도 양양 낙산사 참배 및 홍련암 철야기도법회를 떠난다. (02)279-1191

신행 바로잡고 발심하는 기회로

불교교양대 2~3월 개강

어렵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를 곧추 세우는 희망의 지광이가 된다.

체계적인 불교공부와 신행체험 등으로 불자들의 신행생활의 길잡이가 돼온 불교교양대학이 99년 신입생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이어지는 IMF한파에 최근 종단의 폭력사태 등으로 예년에 비해 문의전화가 20%이상 감소했다는 것. 2월~3월 개강하는 불교교양대학에서 흐트러진 삶의 자세를 바로잡고, 새로운 발심의 기회를 가져보자.

◆서울=동산불교대학(02)732-1206/법사원불교대학(02)499-1671/범음대학(02)392-3007/한국불교교육대학(02)821-0541/삼화불교대학(02)511-1080/금강불교대학(02)576-6401/해동불교법음대학(02)741-0495/동방불교대학(02)763-0229/조계사불교대학(02)720-1390/원효학당(02)3411-6167/우리는선우불교교양대학(02) 2278-8672/능인선원불교대학(02)571-2981/대원불교대학(02)776-7156/만해대학(02)738-3385/불일교양대학(02)733-5322/봉은불교대학(02)516-5652/불교원전전문학원삼학원(02)765-9602/불교통신교육대학(02)964-8044/삼보법회불교교양대학(02)913-2859/정토불교대학(02)379-1650/화계사불교교양대학(02)902-2663/원효불교대학(02)715-5441/진각대학(02)913-0133/삼보불교학교(02)352-6406/영산불교대학(02)932-2333/총지불교대학(02)552-1080/한국불교법사대학(02)720-1836

◆부산 경남지역=부산불교교육대학(051)818-8659/광명불교대학(051)504-6017/금정불교대학(051)866-7277/금화불교대학(051)582-3042/동국불교전법대학(051)642-6242/부산불교교육원(051)466-4079/부산불교대학(051)464-1160/진주불교교양대학(0591)747-0108/성주사불교대학(0551)62-0108/울산불교교육원(0522)66-3318

◆대구 경북지역=한국승가대학원법화삼부경강원(053)952-8711/관오사부설불교사회교육원(053)784-3669/대구불교교육원(053)256-3725/불광대학(053)656-6766/불교대구교육원(053)253-7063/불교대구방송칠곡교양대학(053)321-3600/영남불교대학(053)474-8228/원효불교대학(053)563-9154/신라불교교양대학(0561)773-3703/경북불교대학(0572)32-8226/고불선원불교대학(0561)746-1481/불국사부설 불교교육원(0561)774-6713/신라문화대학(0561)771-1950/안동불교대학(0571)56-6041

◆인천 경기지역=강화불교교양대학(032)933-2959/금강불교대학(032)523-9911/등함불교대학(032)434-3423/부루나불교교리대학(032)576-9741/봉선사불교대학(0346)68-1957/심우불교학교(0331)256-4127/부천불교교육원(032)657-3575/한국불교삼장대학(0355)32-2472/대승불교정법대학(0342)752-1991

◆광주 전라지역=광주불교대학(062)375-7603/광주불교교육원(062)228-9098/호남불교대학(062)222-0819/담양불교문화대학(0684)381-2683/전북불교대학(0652)226-7878/군산불교대학(0654)43-1080/남원불교대학(0671)32-6936/법화불교대학(0652)73-7475/이리불교대학(0653)54-1578/화엄불교대학(0652)251-4942

◆대전 충청지역=대전불교대학(042)627-0026/반야불교대학(042)673-5658/자광불교대학(042)822-9219/한밭불교대학(042)535-5530/화엄대학(042)822-9219/제천불교대학(0443)48-8840/충북불교교양대학(0443)46-3047/충북청주불교대학 (0431)63-2329/한국불교대학 (0434)534-3950

◆강원도=강원불교대학(0361)51-5040

게 시 판

♣ 인사

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 도현스님

♣ 알림

△노인의료서비스=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5시 복지관 2층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침, 지압, 맛사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02)2282-1100

△노인무료미용서비스=신도림복지관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세째주 수요일 컷트와 파머 등 무료미용서비스를 실시한다. (02)631-9792

△시민선방 개설=신라불교교양대학(학장 매물)은 상시로 시민선방을 개설한다. (0561)773-3703

♣ 강좌

△열린불교배움마당=광주불교교육원은 2월 9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 열린불교배움마당을 개설한다. '부처님과 만나면 즐겁습니다'를 주제로 생활속의 불교, 절집에 담긴 의미 등을 지도한다. (062)228-9098

△호스피스교육=충북불교자원봉사교육센터는 제7기 직업간병인 호스피스케어 교육을 실시한다. 3월10일부터 4월22일까지 6주간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며, 수강료는 8만원이다. (0431)254-2258

♣ 모집

△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는 99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1년과정으로 주간반과 야간반 2백명을 선발하며, 선착순 마감이다. (02)929-5004

△중앙불교합창단 단원=중앙불교합창단은 21세기 불교음악을 주도해 갈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음악전공자 및 성악에 소질이 있는 여성불자면 가능하다. (02)896-2091

△진각복지회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진각복지회는 부산시 강서구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할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을 모집한다. (02)942-0144

△장애인목욕 자원봉사자=강북장애인복지관은 오토바이 차량지원 봉사와 밑반찬 준비봉사, 장애인목욕봉사 등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989-4215

△진주불교회관 어린이 중학생법회 회원=진주불교회관은 보리수어린이법회와 중학생법회 회원을 모집한다. (0591)747-0108

△자비의 결연후원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과 1대1 결연을 맺을 자비의 후원자를 모집한다. (02)817-8052

종단소식

조계종

화엄산림법회 회향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월파)는 17일 설법전에서 지난 12월 19일부터 30일간 계속해온 화엄산림법회를 회향했다.

청하 부방장스님을 비롯 1만여명 불자가 함께한 회향법회에서 청하스님은 법어를 통해 "나 개인 한 생각바로하는 것이 곧 다른 이에게 공덕을 쌓는 것이며 나의 공덕을 중생들에게 나누며 사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태고종

덕암스님 종정 추대식



제16대 종정 덕암스님〈사진〉 추대식이 2월9일 오전 11시 봉원사에서 봉행된다.

경남교구 예산사업 책정

경남교구 지방종회(의장 산옹)는 15일 경남 마산시 종무원 회의실에서 정기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98년 세입세출 결산을 인준하고 올해 예산으로 3천5백만원을 책정했다. 또 승풍진작과 종단관 확립을 위해 승려 및 교임 연수교육을 9월~10월경 실시키로 했다.

대경교구 새해사업 논의

대구경북교구지방종회(의장 중산)는 28일 오전 10시 종무원 설법전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회에서는 △98·99년도 세입·세출 예결산안 △종무행정 전산화를 비롯한 신년 사업계획안 △승려 및 교임연수교육 실시안 등이 논의된다.

천태종

대충대조사 74돌 탄신대재

총무원(원장 운덕)은 22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대충대조사 제74회 탄신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탄신대재에는 도용 종정, 운덕 총무원장을 비롯해 부·국장 스님, 신도 등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했다.

재단이사 7명 재선임

재단이사회(이사장 도용)가 21일 총본사 구인사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4월 임기만료되는 덕수스님 도원스님 등 7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재선임됐다.

진각종

대전소년원서 수계불사



통리원(원장 성초)은 14일 대전소년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수계불사를 봉행했다.

수계불사에는 소년원생 30명이 동참했으며, 수계에 앞서 종회의장 휴명정사가 5계에 대해 설법했다.

한편 통리원은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전소년원에서 겨울불교학교를 실시했다.

원융종

28일 법계고시 첫 실시

총무원(원장 법륜)은 28일 오후 1시 총본산 원융사 대웅전에서 제1회 법계고시를 실시한다. 이번 법계고시는 승풍을 진작하고 승려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단 사상 처음으로 마련됐다. (02)857-5094

일붕선교종

지방종무원장 회의

총무원(원장 청송)은 21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지방종무원장 회의를 열었다.

이번 지방종무원장회의에서는 신년 사업계획 및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조동종

총무원장 학봉스님 선출

승정원(원장 지명)은 새로 옮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총무원 청사에서 4일 원로회의를 열고, 제5대 총무원장에 학봉스님을 선출됐다.

또 종회의장 범해, 감찰원장 송봉, 호법원장 춘담, 교육원장 심월스님 등 각 부 간부 54명을 새로 선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의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玉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정신적으로도, 병고에도 너무힘들때는 옥을 같이 사용하세요!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심장병, 당뇨, 뇌졸증(중풍), 동맥경화등의 순환기장애에는 90% 이상의 효과, 제일 못하다는 신경통에도 60%의 확율입니다. 50%의 효과면 선약이라고들 합니다.(한빙의 세계적인 권위인 북경중의병원 임상보고서)
제 옥목걸이, 반지, 팔찌, 108염주, 단주, 참선용옥방석, 환자용 옥찜질매트, 품 침구류, 복대, 무릎대, 옥비누와 기초화장품, 녹차잔의 옥도자기
신 옥분 108염주 (10mm알, ₩60,000) 목걸이 겸용 옥분 혼합제품, 무거운 것을 싫어하시는분 적합, 건강보전 기경팔맥 通氣용. 품 마음자리를 잘 볼수 있고, 탐진치의 瞋心을 줄일 수 있어 좋다.
* 옥에는 기(氣)옥과 맹물같이 기가 안나오는 벌옥이 있습니다. "옥을 했는데 나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요?"하면 그 옥은 이미 기옥이 아닌 벌옥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셔서 체크해 보셔요.
서울올지로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애독자 사은 생활 기공지도
독자 여러분의 요청에 부응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 기공 지도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내 용 ·
가. 변성의식 상태수련 비법지도
「보이지 않는 것을 과학한다」
도서출판 물병자리. 박희준 옮김 참조
나. 공기공과 원극공
「고차원 치료 능력자들의 세계」
도서출판 단. 박희준 지음 참조
다. 정심조식법(正心調息法)
(소망성취에 도움이 되는 염력 개발 특수 호흡법)
라. 수퍼 염력 개발법 특별지도
· 일시와 장소 ·
가. 일 시 : 1999년 1월부터 수시 접수
나. 장 소 :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교실
(전화 02)720-5682/ 725-2311)
일본 REIKI ONE힐링 협회 한국연락소
다. 지도자 :
번역저술가·레이키 마스터·티처 박희준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809호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치료요법인 「레이키법의 전수도 당분간 요금을 30퍼센트 할인」해 실시합니다.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난방비를 70%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343)468-7200(代)
·영업부 : 0343)445-6090
·FAX : 0343)445-3370

"포교상이 불심 북돋아 줘요"

사찰서 공로 · 정진 · 봉사등 각종상 시상
"포교사 배출과 동일한 전법효과" 인식
도심포교당 · 불교대 · 신행단체로 확산

포교 · 전법상 시상이 포교효과를 높이는 촉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상을 통한 포교는 90년이후 경기도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 포교대상을 비롯 도심포교당, 불교대학, 신행단체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창립기념일 등 주요법회를 통해 실시되는 시상은 전법 · 포교 · 정진 · 봉사상 등이 주를 이룬다. 올 성도절 주간에도 사찰과 단체들은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은 "포교상은 포교사를 배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수상자들도 "더욱 정진해 포교와 전법에 매진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은 24일 제10회 포교대상 및 제3회 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남성및 가족단위 포교활동을 펼친 권중서씨가 포교대상,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친 김보제화씨가 봉사대상을 각각 받았다. 권중서씨(45 · 거사림회 총무)는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신행 포교에 적극 나설 때 불교의 위상이 강화된다"며 가족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지홍)는 24일 창립 8주년을 맞아 활발한 포교와 봉사활동을 펼친 홍성귀씨에게 모범불자상을,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24일 성도절봉축대법회에서 포교와 복지분야에 공로가 큰 불자들에게 공로패, 감사패 표창패를 각각 수여했다.

전북불교총연합회(회장 도영 · 금산사주지) 6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제2회 전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불교총연합회는 지난해부터 전법활동에 매진해 온 스님 1명과 재가신도 1명에게 전법상을 수여한다.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구랍 12일 개교 10주년을 맞아 제1회 포교대상 시상식 개최했다. 불교대학에 10여명을 입학시켜 첫 수상자로 선정된 이인숙씨(불교학과 10회)는 "주위에는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은데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주춤거리로 있다"며 포교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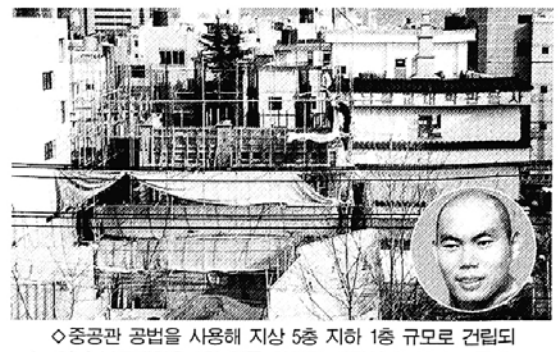
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도 매년 입학식이 끝난후 신입생 포교에 공로가 큰 학인에게 포교상을, 3천배, 1백일기도법회에 하루도 빠짐없이 동참한 학인에게 정진상을 수여한다.

이밖에도 조계종 포교원은 일반포교(어린이 · 청소년 · 대학생 · 청년 · 일반신도)와 특수포교(군 · 경찰 · 공무원 · 장애인 등)로 나눠 포교대상을, 대구불교사회복지회(회장 지도)는 자원봉사상을,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포교대상을, 부산 불국토(이사장 정관)는 자랑스런 불자상을, 부산 불심홍법원(이사장 하도명화)은 홍법대상을 각각 수여한다.

새로운 포교법으로 확산되고 있는 각종 전법 포교상 시상식은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관음사 영남불교대



◇중공관 공법을 사용해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는 영남 불교대학은 5월 최종 완공될 예정이다. 원내는 주지 우학스님.

교육불사 이끌 매머드 학사

35억원 들여 5월 완공
기둥 없는 첨단공법 활용
예식장 · 문화관등 들어서

대구경북지역 재가불자교육의 일번지임을 자임하는 관음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 대구시 남구 봉덕3동)이 새 학사를 신축하고 있다.

3층으로 된 현재의 법당이 낡고 비좁아 매학기 3천명에 육박하는 신입생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92년 3천만원짜리 전세로 출발한 영남불교대학이 불과 6년여만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게 된 것은 스님의 원력이 남다른데다, 매월 사찰 재정을 신도들에게 공개 등 사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거행한 신축법당은 오는 2월 1차 공사를 끝내고 학생 일부를 수용한 후 5월까지 2차공사를 마무리하여 나머지 학생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총 35억원을 들여 대지 6백평 연건평 1천5백여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신축불사는 중공관(中空管) 공법이라는 첨단특수공법을 사용했다. 이 공법은 속이 텅빈 중공관을 연결하여 천장을 마감함으로써 기둥을 없애고 층고를 낮출 수 있는 등 공간활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새건물의 지하에는 공양간겸 휴게실이 들어서며 1층에는 사무실과 '좋은인연' 출판사 등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간다. 2층은 예식장겸 문화관으로 사용되며 한켠에는 납골당 모형이 전시될 예정이다. 3층과 4층은 법당겸 강의실로, 5층은 원불이 모셔진 기도 전용 법당으로 사용된다. 특히 전용법당은 석가모니불을 비롯 관음 · 지장 등 1만기의 불보살로 장엄될 예정이다.

포교사고시 합격생과 학생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교육불사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영남불교대학이 7년만에 콩나물교실을 청산하면서 명실공히 지역불교의 새로운 전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장가 안가길 잘했네'의 저자이기도 한 우학스님은 "다음 불사의 목표는 꿈나무불자를 육성하는 유치원을 건립하는 일"이라며 "고아원과 양로원을 포함하는 종합복지관을 세우고 납골당도 건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금강자비회 사단법인으로

마산 · 창원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온 금강자비회가 사단법인 금강자비회(회장 정무주행)로 재탄생 됐다.

금강자비회는 15일 마산 사이보호텔에서 마산창원불교연합회 회장 경호스님, 김인규 마산시장, 후원회이사 등 사부대중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금강자비회 설립기념식을 가졌다. 금강자비회는 총재인 일타스님이 "금강석같이 깨어지지 않는 자비행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에 걸맞게 마산 결핵병원, 창녕 나환자마을 등에 매년 1천여만원의 후원금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매년 7월에는 큰스님 초청법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포교도 빼놓지 않았다.

87년 설립된 금강자비회는 각 사찰의 신도회장 출신이나 신도회 간부로 활동중인 여성불자들을 주축으로 매월 모임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금강자비회는 사단법인 설립을 계기로 독거노인 10세대 후원, 영세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장애인 사랑의 보장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저소득층와 소외 이웃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청련암 지장보살 점안

단양 청련암(주지 종덕)은 2월 8일 대웅전에서 복원불사를 위한 1백일 기도회향법회 및 지장보살상 점안식, 지장보살 후불탱화, 관세음보살 후불탱화 봉안식을 봉행한다. 청련암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복원불사를 위한 1백일 기도및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김중근 기자

1000원 작은정성 부처님 세상 만듭니다

'1천원의 작은 실천으로 훈훈한 세상 만들자'.

작은실천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1천원의 적은 보시금을 여럿이 모아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전개되고 있다.

전주 전북불교회관(원감 회일)은 올해 처음으로 '1000원으로 10배 자비실천운동'을 연중 행사로 실시하고 있다. 10배 자비실천운동은 불자들이 돕고 싶은 계층을 선별해 보시할 수 있도록 법당에 6종류의 보시함을 설치했다. 보시함은 우선 도움이 가장 절실한 심장병어린이, 실직자,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북한어린이, 청소년 · 군포교기금 등으로 분류했다. 신도들은 원하는 보시함에 보시를 하게 되면 전북불교회관은 정기적으로 해당 단체에 전달하거나 관련 행사를 통해 신도들의 자비행을 전하게 된다. 보시금의 투명성을 위해 각 항목별로 그래프를 만들어 모금현황도 공개할 예정이다.

전북불교회관은 25일 성도절을 맞아 6개 부문의 불우이웃을 위한 등불 밝히기 운동을 결쳤다. 1인1등(1천원)밝히기를 통해 모아진 기금으로 평화동 장애인회 회원들을 초청, 사찰답사와 점심공양,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으로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전북불교회관 교계의 각종 행사시 이같은 행사를 반드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불교회관 · 우리는 선우 등
클럽 · 보시함 만들어 연중모금
소년가장 · 실직자 · 불우노인 도와

원감 회일스님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불교계에서 실천해야 할 당연할 일이다"며 "보시함 설치로 인해 사찰재정이 감소 했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선우 전주지회(지회장 오종근 · 호원대학교 교수)도 23일 천천클럽(千千club) 발족식을 갖고 1천원으로 불우청소년을 돕자는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천천클럽은 한명이 한달에 1천원씩을 1년 단위로 보시하는 사회사업이다. 후원금은 전주소년원을 비롯 지역내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전액 지원된다.

전주 룸비니유치원(원장 이우숙) 원생들도 불우노인돕기 운동으로 매일 10원짜리 동전을 모아 적립하고 있다. 원생들은 6월말경 노인들을 찾아 재롱잔치를 벌일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구미 모례정 일대 성역화

신라불교 초전지…올해부터 유적등 복원

신라 불교의 발상지로 확인된 구미시 도개면 모례정(경북도 문화재자료 제296호)과 모례장자의 집 등 불교 유적지가 올해부터 불교성지로 본격 개발된다.

구미시가 지난해 한국교원대 박물관(관장 정영호박사)에 도개 2리 일대에 대한 '신라불교 초전지역 학술조사'를 의뢰한 결과,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여러 종류의 옛 문헌에 기록된 신라불교 발상지임이 입증됐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모례장자의 집을 재현하기 위해 지난해 말 3천만원을 들여 문화재 설계 전문업체에 설계를 맡겼다. 올 6월쯤 설계도가 나오는 대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미시와 대각회(회장 도문스님)가 함께 추진하는 도개 2리 불교성지 조성사업은 대각회가 43억여원을 들여 모례장자의 집 복원, 불교유물전시관, 교육관 설립 등 2007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군위 인각사 선당 · 일주문 복원

올부터…미륵당등 보수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저술한 군위 인각사(주지 하종 · 사적 374호)가 복원된다.

군위군은 올해 3억5천7백여만원을 들여 25평규모의 인각사 선당을 복원하고 미륵당을 보수한다.

인각사 일주문 복원과 사찰주변 단장은 연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군위군은 또 부계면 제2석굴암 삼존석굴(국보 109호)도 1억원을 들여 누수방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2억3천2백여만원을 들여 군위읍 지보사 산신각 개축 및 배수로 축대 계단 등 사찰조경사업을 실시한다. 우보면 신흥사 요사채 개축에도 1억1천만원이 투자된다.

이윤호 기자

담양 불교문화대학 개설

전통의식 · 불교문화 강의

전남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가 불교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불교문화대학을 개설했다.

용화사 부설 담양불교대학은 1년 과정이며 불교전통의식실습, 불교문화현장학습, 사찰수련회 등이 불교문화전문가에 의해 강의가 진행된다. 졸업후에도 연수 및 특강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김중근 기자

경산시 문화지도 발행

유적분포 순례코스 담아

경산시는 최근 관내 문화유적을 상세하게 표시한 경산시 문화유적 안내지도를 발행했다.

문화유적 안내지도에는 경산시의 연혁과 문화유적 순례코스, 각종 문화재 유적분포도, 강산수계도, 유적지간 거리 등이 게재돼 있다.

안내지도는 각 관청 정류장 등에 비치할 방침이다.

강지연 기자

부산 육주사 소유권 분쟁

현우 · 진우스님 주장 갈려

59년 대휘스님이 창건한 사설사암 부산 육주사(강서구 대저동)가 진통을 겪고 있다.

육주사를 조계종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현엽스님측과 (재)육주회 육주사임을 주장하는 진우스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 분쟁의 핵심이다.

육주사는 현재(19일) 부산고등법원의판결에 따라 진우스님측이 주지권을 행사하며 육주사를 패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고침 207호 22면 '뉴질랜드에 첫 한국사찰 세웠다' 기사중 '법련사 신도회장'을 '법륜사 신도회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관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잇단 사찰방화…불상파괴…종교교육 강요

훼불 보고만 있을 것인가

대전보문사 대웅전 전소…정부 미온적 수사
범종단 '종교편향 근절' 상설기구 만들어야

천안 광덕사 천불전 전소(12.29), 영주 관음사 불상 파괴(12.16)에 이어 14일 오후에는 대전 보문사(주지 현광) 대웅전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돼 1억1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보문사 대웅전 화재를 처음 목격한 김순화씨(67·공양주)는 "인기척이 들려 나가보니 만취한 남자가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다"며 "이상한 예감이 들어 대웅전 쪽을 바라보니 불길이 벽과 천장으로 번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화재현장에 있던 개신교인 고모씨(36)를 용의자로 불잡았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훼불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교계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처로 범인 검거는 고사하고 경·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한 촉구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범종단 대책기구 상설화 △훼불대책 예산확보 △공직자 특정종교편향행위 처벌조항 신설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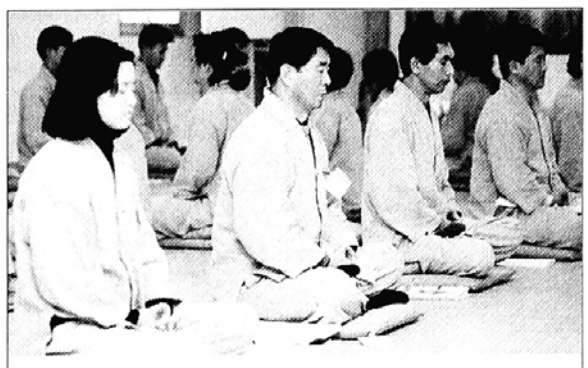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자월스님은 "훼불사건 근절을 위해서는 종교지도자들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훼불 문제를 중점 논의 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 관음사 도기스님은 "타종교 침해행위를 단순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발상 자체가 공권력의 종교편향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주 원명선원 대효스님은 "종교시설 파괴를 단순 폭력행위로 치부한다는 것은 그 특수성을 외면한 처사"라고 경찰과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해당 사찰과 공동 조사작업을 거친 뒤 수사당국과 국회 담당부서 등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조속한 사건해결을 범불교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며 "종교편향대책위를 범종단 차원의 상설기구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상훈 조사국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공직윤리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특정종교편향행위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종교 광신도들의 그릇된 선교형위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인식전환과 전 불자들이 훼불방지의 파수꾼으로 적극 나설 때 훼불사건 근절의 실마리는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번뇌를 씻자" 참선열기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대. 많은 불자들이 겨울수련회와 시민선방을 찾아 어지러운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곧추 세우기 위해 수행에 열중하고 있다.

17일~20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린 겨울 선수련회에는 아나운서 이계진씨를 비롯한 36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무한능력의 소유자인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번뇌를 씻어내기 위해 가부좌를 틀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에 열리는 무진법장사 주민선방, 매월 셋째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철야정진을 진행하는 선학원 시민선방 등 각 사찰과 신행단체에서 개설한 수련회와 시민선방에는 올 겨울에도 깨달음을 향한 불자들의 수행열기로 가득하다.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대전 보문사 대웅전이 14일 방화로 전소됐다.

조계종 새 포교사 257명 탄생

부산불교대 60명 '최다'

조계종포교원은 21일 제3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2백57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불교대학에 통보했다. 연수 및 품수식은 3월초 1박2일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지난 해 11월 시행된 포교사고시에는 조계종에 등록한 35개 불교대학에서 5백18명이 응시, 49.8%의 합격률을 보였다. 수석합격의 영광은 경기불교대학을 수료한 서정탁씨(49)가 안았다. 〈인터뷰 4면〉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부산불교교육대학으로 60명, 이어 동산불교대학 수료생 45명이 합격했다.

정성운 기자

석가세존 진신사리 친견대법회

2월2일 장충체육관

석가세존 진신사리 친견대법회가 2월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이건호 봉행위원장은 15일 "조계종사태로 사기를 잃은 재가불자들이 '부처님 닮아가기'를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리친견대법회를 봉행키로 했다"며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과 양애란보살이 참석해 증명 및 법어, 마정수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봉행위원장은 또 "이번 법회에는 지난 해 9월 미얀마에서 이운해 온 석가세존 진신사리 12과등 모두 64과의 사리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알림 본지는 '석가세존 진신사리 친견대법회'를 후원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대구보현사 유휴공간 신행단체에 무료개방

대불련등 10여단체 입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사찰이 유휴공간을 신행단체 사무실로 무료 개방하기로 해 도심포교의 새로운 전형이 되고 있다.

조계종 9교구본사 동화사 직할포교당인 대구 보현사(주지 지도)는 2월부터 대불련 대구지부, 파라미타 대구지부 등 10여개 신행단체에 사무실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보현사는 입주를 원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은 후 활동실적이나 장래성 등을 평가해 입주단체를 선별할 예정이다.

IMF사태로 사무실을 내놓거나 축소해야만 하는 신행단체들로서는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되고 있다. 신행단체들은 그동안 더부살이하거나 신행단체장의 주택을 사무실로 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현사의 이같은 구상은 사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본보기가 되고 있다.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소규모 불교회관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데다 도심에 위치해 있어 포교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행단체간 정보교류 및 연계성 제고에도 한몫 할 것으로 기대돼 신행단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고 열린 사찰을 만들겠다는 지도스님은 "시민들에게 사찰을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며 "보현사를 수행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자리매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현사는 또 부설로 불교사회교육원도 개설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미교양강좌도 실시한다. 개신교의 YMCA와 같은 문화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 프로그램은 택견, 성훈따주기, 한지공예, 사물놀이 등 주로 전통문화강좌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불교산악인련 사단법인 추진

명칭 바꾸고 환경·복지사업도 참여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가 올해 '사단법인' 등록을 하고 명칭을 '대한불교산악인연합회'로 변경키로 했다.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는 21일 타워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같은 방침은 비영리 불교신행단체로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명칭변경과 회비를 책정하여 발전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관을 개정하여 환경 복지사업에도 참여키로 했으며 특별사업으로 추진중인 '한라에서 백두까지' 산행계획도 백두대간 연봉에 연등을 밝히는 것에서 도라지 심기로 변경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경영정상화 촉구"

불교TV 노조

불교텔레비전 노동조합(위원장 신동우)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영진의 정상화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비상경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경영진은 이에 대한 활동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영진과 이사회에 △1차 비대위 결의사항 준수 △대표이사 등기이전 지연에 대한 해명 △위기상황 타개책의 투명한 공개 △이사 출연금 납입 등의 성실한 이행 △인원감축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진각종 부산 낙동복지관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이사장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했다. 진각복지회는 부산시 강서구청으로부터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고 21일 강서구청과 위탁체결식을 가졌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천4백평 규모로 어린이집, 예식장, 체력단련실, 도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오는 3월 개관될 예정이다.

한편 진각복지회는 이번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을 시작으로 복지관 2~3곳과 어린이집 4~5곳을 새로 수탁하고, 자체 시설 2곳을 개설하는 등 올해를 복지문화정착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사업으로 스리랑카와 네팔, 북한돕기 구호사업과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을 위한 푸드뱅크(food bank) 운영, 장애인돕기 이벤트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뉴스 & 뉴스

승가원 법당 불상점안

승가원(원장 보각)은 강원도 횡성종합복지타운 완공에 이어 28일 오전 11시 법당에서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점안식을 갖는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후원자들을 비롯한 불자와 원생들을 중심으로 천일기도입제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

사천왕사 '도시락보내기운동'

사천왕사(주지 성덕)가 '희망의 민들레 도시락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사천왕사는 11일부터 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월~토요일 월계2동, 상계동, 수유동 등 5개동 결식학생 67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사천왕사가 겨울방학 동안 긴급구호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이 운동은 결식학생에게 자비실천사상을 전달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지도를 실시,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펼쳐지고 있다. 2월27일까지 계속된다.

도필선 기자

전국법사련 신년 하례회

한국불교전국법사연합회(공동대표 선진규 한정섭 정병조)는 2월 9일 오후2시 서울 동산교육회관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국내법사대회 개최 등 새해사업 계획 수립과 법사회 고문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독거노인 115명에 후원금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23일 복지관 강당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1백15명에게 내복 75벌과 후원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매일신문과, 봉정암, LG기공성신회, 독산동 원강사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도필선 기자

2월7일 법사법위 품수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묘봉스님)은 2월7일 오후 2시 충정사에서 제7회 졸업 및 법사법위품수법회를 봉행한다. 5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이번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전원이 법사법위를 품수하고, 법홍스님(원효종 종정)이 특별 법문한다. 도필선 기자

동국대교수회 다시 농성

동국대 교수회(회장 유덕기)는 총장 후보 선거 이후 중단했던 농성을 14일부터 재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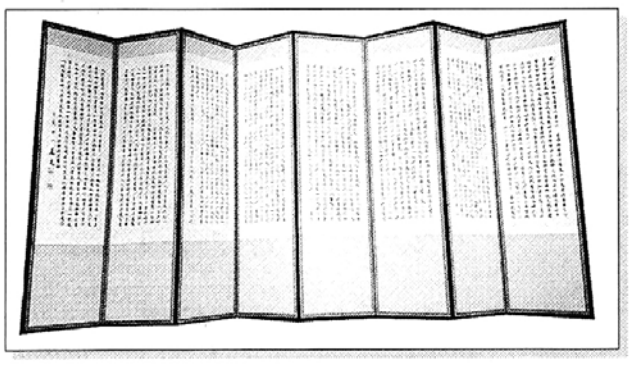
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 송석구 총장이 차기총장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학교측이 학내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다시 농성에 돌입한다"고 송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교수회는 또 이날 불교병원 설계용역 수의계약설 등 학교운영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송석구 총장에게 보냈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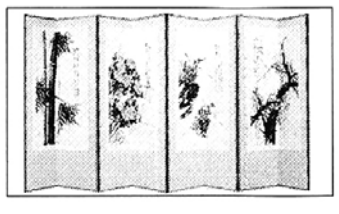
만사대길 대신통 불경병풍

· 법화경 8폭병풍(여래수량품제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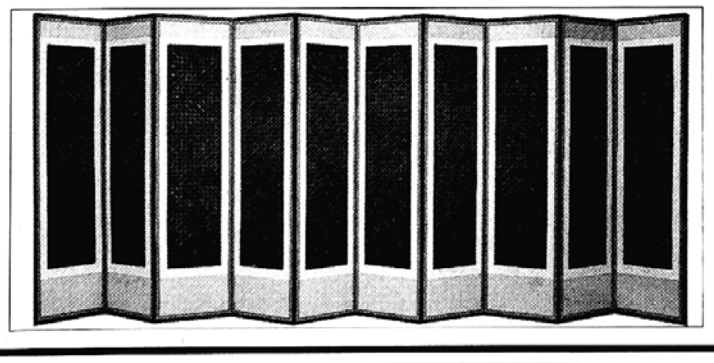


◀ 법화경사경 15년
(암도법사 친필 한정분)
후면: 성불도연화 林泉 화백 作
전시장가격 ~~₩1,320,000~~ · 특가: ₩680,000

▼林泉 화백 사군자 진품 병풍
후면:창곡선생 한지 · 특가: ₩580,000



· 금강경 金書10폭병풍



◀후면: 부처님일대기(金畵)
공단 양면 이중병풍
· 특가: ₩5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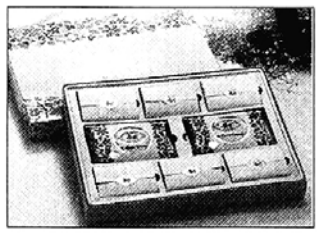
대를 물려도 뒤틀림이 없는 성보병풍입니다

불국기획

대표전화 (02)737-0048
공장전화 (0351)877-3540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본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 사장상)

나를 일깨워 주신 부처님 ③ · 〈끝〉

원만심 〈본명 채희주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봉사의 기쁨·건강·지혜를 주신 부처님! 제 마음속에 많은 법당 세우도록 힘을…"

그 광경을 본 일행 중 지성심 보살님이 "지붕을 내가 덮겠다"고 법사님하고 약속을 하게 되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법당 지붕은 누더기 옷을 기워 입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누더기 법당이라 불렀다. 그후 지성심 보살님이 이제 상량식 할 날도 가까웠으니 '좋은 법당'이라고 부르자고 하여 우리 회원들끼리는 그렇게 통하고 있다.

'좋은 법당'으로 완공되어 상량식날 우리 회원들은 부처님 공양물과 병사들에게 대중 공양물을 준비하기로 약속하고 철원 문혜리로 출발하였다. 상량식 시간이 오후 2시여서 12시되는 시점에서 준비해간 공양물로 점심을 먹기로 하였다.

버스 트렁크에서 점심 공양물을 꺼내는데 부처님께 올릴 떡이 보이지 않았다. 소임을 맡고 있던 나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었고 보살님들 시선은 모두 나에게로 쏠렸다. 서울 아닌 이 허허벌판에서 어디가서 준비해야 하나. 서울 떡집을 원망할 수도 없고 항상 우리는 어디를 갈 때마다 준비물이 많은 편이었다. 한번의 실수도 없이 일했고 떡방앗간에서 항상 미리 떡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재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이 나의 실수였다. 서울에다 전화를 걸었더니 내일인줄 알고 떡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 택시를 타고 방앗간을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마음이 조급하니까 택시도 좀처럼 오지 않아 애를 태웠다. 5분쯤 기다리니 택시가 왔다. 항상 힘든 일, 궂은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이처사와 방앗간 찾기에 나섰다. 그나마 택시에 염주를 단 것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다. "아저씨 제일 가까운 떡집으로 안내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군법당 상량식 준비를 도맡아 왔는데 떡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시골에서 떡 다섯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며 택시기사도 걱정했다. 이처사는 생 골하고 쌀이라도 준비해 가자며 나를 위로했다. 10분쯤 헤매다 한 곳을 발견했다. 찾아간 곳에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본체만체했다. 다른 떡 방앗간을 찾아 우리는 뛰기 시작했다. 마침 방앗간을 찾았다. 떡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다행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한말이면 되지만 더 주문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된다는 것이다. 오늘 결혼하는 집에서 떡 다섯말을 주문했는데 모르고 쌀 한 가마니를 더 담가놨다는 것이다. 곱도 예비로 한말 정도를 아침에 삶아 놨다는 것이다. 나는 이처사 손을 잡고 부처님은 나를 곤경 속에서 일어서게 해주셨다고 기뻐했다. 그때 그 감사와 기쁨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힘을 주셨다. 나는 자금도 그날을 꿈으로 남기고 싶다. 유년시절 교회에 나가던 막내아들에게도 어느 날 봉은사 수련회에 가도록 권유한 적이 있었다. 역사를 알고 불교도 확인해 보라고 해서다. 3박4일 해인사 수련회에 갔다오더니 교회친구들까지 부처님 품으로 인도했다.

보살들만 불교를 알려하는 것보다 청소년들도 방학 동안에 수련회에 참석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법공양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에서, 군대에서 열심히 불교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흐뭇하다. 종교는 자유다. 하지만 내 가족이 한 종교를 믿는다면 얼마나 든든할 것인가.

막내아들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정근했다 한다. 그래서 위험한 고비를 몇 번 넘겼다며 위문을 갈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며 나를 격려해준다. 군종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훈련병이 합장주 하나 달라고 하는데 못 건네주었을 때 미안했다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자 병사들은 합장주를 손목에 꼭 끼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었다.

육군 제3사관학교 부처님을 모셔야 하는데 모실 분을 이종인 법사님이 찾으셨다. 그래서 나는 현지답사를 갔다. 꿈속에서 사관학교 연못에 관세음보살님이 화현하는 꿈을 꾸었다. 삼우회원들이 꽃배를 타고 오색찬란한 빛을 보며 환호를 보내는 꿈이다. 불사를 이룰 때마다 꿈을 꾸게 된다. 삼존불, 후불탱화, 산중탱화…, 또 기적적인 불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장탱화의 꿈을 꾸게 되었다. 부처님 점안식 하루 앞두고였다. 지장탱화도 같이 점안하지 못해 잠을 이룰 수 없어 마음속으로 기도하다가 전곡에 있는 박미영보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해 기도하다 전화를 했다고 하며 같이 기도하자고 울음섞인 음성으로 울먹였더니 박미영 보살님도 같이 우는 것이었다. "보살님, 내일 차중에서나마 인연을 찾을거예요."

공양물을 준비하고 새벽 4시30분에 관광버스에 몸을 실었다. 몸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장탱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이크를 잡고 하게 되었다. 원래 난 말솜씨가 없어 앞에 나서서 마이크 잡는 것을 주저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날은 자신있게 지장탱화 인연이 차중에서 맺어지리라는 생각을 했다. 어젯밤 꿈속에서 내 얼굴이 비치는 큰 연못에 머리를 감으러 갔었다. 너무 물이 맑고 깨끗하여 그 맑은 물은 어디서도 다시 못 볼 것이라는 생각에서 도저히 그 곳에서는 물이 더러워질까 머리를 감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옆에 계곡물로 머리를 감는 꿈을 꾸었기에 용기를 내어 그 이야기를 했다. 오늘 지장탱화를 인연짓는 분은 참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나 자신도 모르게 울먹였다. 그 순간 신영자 보살님이 손을 들었고 연달아 불사가 이루어졌다. 기적이었다. 점안식 1시간 30분을 남겨놓고 회원들은 차안에서 박수를 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칠곡휴게소에서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께서도 우리 삼우회 회원들의 불심에 감동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3사관학교 점안식에서도 우리 회원들은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우리 회원들은 더 열심히 봉사하여 부처님께 보답하자고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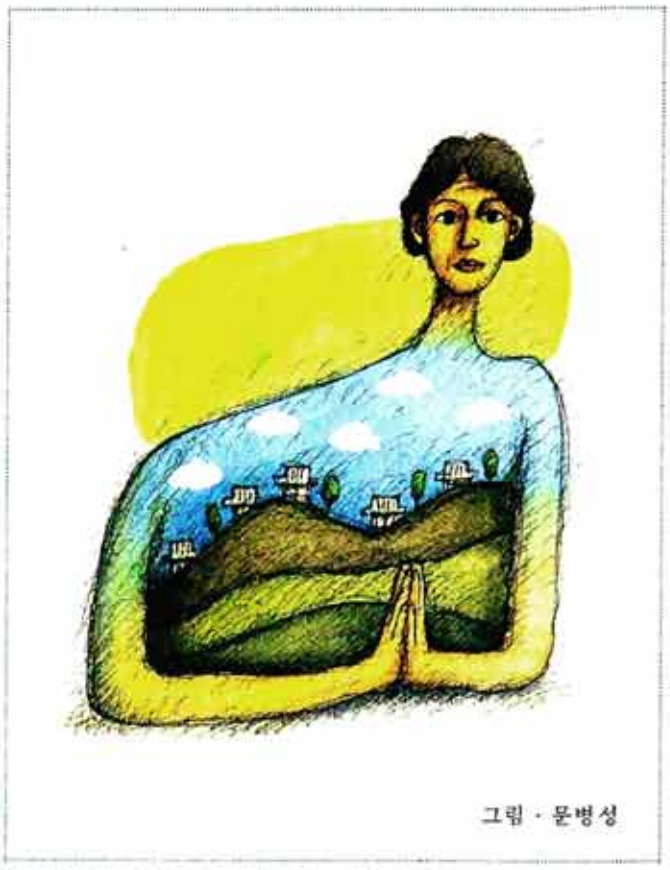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난 부처님을 만난 후 달라진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신 부처님께 항상 감사한다.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어주신 삼우회 보살님들. 이제는 작은 법당이라도 마련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부처님. 봉사를 하다보면 부처님의 가피를 확실히 느낀다. 이는 나의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또 관세음보살님 염불로 만난 인연도 많다. 한사람 한사람이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고 좋은 공덕 짓고 착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부처님께 발원한다.

봉사의 기쁨은 곧 나의 건강이며 내가 나약해 질 때도 불교라는 종교와 삼우회를 만났기에 나는 성숙해졌고 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부처님이시여, 내 마음속에 많은 법당을 짓게 힘을 주소서.

참선, 어떻게 할 것인가!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고,
구참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선 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언제나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참선요지 허운(虛雲)화상 법어, 대성(大醒)스님 용감
86변형 236쪽/ 값5,500원
여시아문 펴냄

여시아문은 '좋은 바 큰 지혜 어두님도 같이 건져갔다'는 정신으로 지대한 뜻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8 전화 (02)737-0005 팩스 (02)737-0006

나라의 安寧과 苦痛받는 이들을 위한 釋迦世尊 眞身舍利 親見大法會 奉行委員會 奉行안내

■취 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들이 몇번으로 증명하듯 우리 국운의 흥망성쇠는 천오백여년의 불교의 역사적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여왔다.

바로 요즈음은 총체적 위기야말로 모든 불자와 재가대중의 힘을 결집시켜 나아가야 할 시대적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간 수차 석가세존의 진신사리를 모셔왔으나 구 신회성은 더러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상좌부 불교의 나라 미얀마 정부의 공식 승인과 미얀마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이신 「우리나라」 큰 스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받아 「석가세존」 「육련존자」 「수보리존자」 「오백나한」님 등의 사리를 모시기는 국내 불교사상 최초의 쾌거이며 대작불사이다.

이천오백년만에 우리민족, 2천만불교도 곁에 다시 나투신 석가세존과 보살님들의 자비광명을 이땅의 모든 불자들과 함께 하고져 이 거룩한 법연을 마련한다.

◆일시 : 불기 2543년 2월2일 오후2시
◆장소 : 장충체육관(장충동)

증명대종사 · 강석주 큰스님

■고 문

강신명 고 은 권노갑 권설봉 권익현 김명윤 김복동 김종국 김지건 김 집 김대호
민병천 박상길 박원서 박재원 박근홍 박창암 서돈각 서석재 성낙승 송경빈 송석구
신정수 용태영 윤길중 윤호석 이병주 이상우 이철승 이한동 이홍세 임윤수
정재각 최영희 한갑진 허재남 홍성광명 황석연 김진배 배명인 김종규

■지도위원

강보성 강부자 강수천 강영숙 강용식 강희찬 고원준 곽재정 곽정출 곽정현
구천서 국순려 권기종 권오성 권오현 권지홍 권해옥 김동수 김근수 김기문
김노식 김동권 김동근 김동완 김병영 김상구 김선곤 김성곤 김성기 김양배
김영일 김영태 김용지 김용표 김용재 김인성 김인덕 김운환 김원주 김재웅
김전무 김진영 김찬우 김창배 김현석 남강수 남경상 남창민 노기태 노연옥
명청관 목정배 문상학 박구일 박경준 박규식 박규채 박근호 박기산 박범훈
박병호 박병남 박상규 박선영 박순인 박신원 박애경 박우병 박유재 박의주
박정희 박찬수 박찬주 박철언 박중임 박한기 박현태 반영규 배명국 백종무
백옥동 변용현 서윤길 선진규 성순경 손주환 손태곤 손현수 송기명 송두호
송영진 송정식 송춘희 송 해 송호수 신덕선 신민선 신재기 심재열 안병무
안영기 양재권 양승희 어수정 염창락 여봉구 연재원 오희창 원광식 원숙경 원의범
유수호 유 영 윤문길 윤영수 이강희 이기남 이건영 이길구 이배영 이병문 이상민
이수익 이상배 이동열 이순재 이상현 이성웅 이양길 이연석 이영기 이영자 이영숙
이옥천 이용태 이웅희 이원기 이 준 이인구 이정숙 이정자 이재창 이준우 이지수
이해봉 이현수 임부진 전경환 전병우 전상배 전용원 전종천 전호연 전동호 정병조
정부기 정상구 정연혜 정용수 정제문 정제철 정원구 정태영 정한용 조기상 조상래
조성준 조성환 조영장 조영재 조용직 조인제 조재호 조정희 조정익 조찬영 조형부
주양자 진치범 채영석 천세욱 최금자 최돈웅 최명준 최명현 최선영 최영제 최영덕
최유심 최응호 최의방 최정다 최창기 최찬상 최효선 최현열 추미애 하상준 한명규
한영애 한이헌 한정심 함중한 허대범 허영미 허재홍 홍경식 홍윤식 홍종욱 홍성용
황규선 황남채 황대봉 황선규 황윤기 황철수 김 식 박경서 이용근 이중위 김성호
김상현 김영자 김정호 박용준 변광순 이근분 이형석 이행자 전숙희 김선진 조주연
최숙화 이규호 박광서 김임호 송재운 이근우 최종화 권희경 금사향 김상현 오국근

명예대회장 : 양애란 자모님
대 회 장 : 이외윤
부위원장 : 이건호
운영위원장 : 박지선
집행위원장 : 최정수
추진위원장 : 김동직
여성위원장 : 정법계심

釋迦世尊 眞身舍利 親見大法會
대회장 이외윤
봉행위원장 이건호


석가세존 오색영롱 진신사리


효성제일 목련존자 진신사리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진신사리


일체지의 오백나한님 진신사리

이세상의 고통이란 고통은
모두 저에게 주시고 중생들에겐
기쁨만 주소서!
37년간 자연과 더불어 오직
물만 드시며 천공을 받으시고
용맹 정진하신 양애란 자모님



주최 : 釋迦世尊 眞身舍利 親見大法會 奉行委員會 주관 : 日光精舍(02)720-0380-1(代) 협찬 : (주)라경장수탑컨설팅 (주)청호나이스 (주)모토로라 (주)일진O.H.S (주)金瓷佛